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최은영 외

연구보고 2018-24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연구책임자 **최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24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 승림디앤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83-1 9359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 리 / 말

저출산 대응은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출산과 양육 문제는 이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다양한 육아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아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육아정책과 출산·육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육아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아문화의 창출에 필요한 국민의 인식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KICCE POLL)는 2017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의 출산·육아 현안에 대한 여론이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이다. 본 조사가 육아정책 관계자들에게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점검하여 정책 좌표를 재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사에 참여하여 성실히 응답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8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목 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25
II. 이론적 배경	27
1. 선행연구 분석	29
2. 1차년도 조사(KICCE POLL)의 주요 결과	33
3. 중앙 정부의 관련 육아정책 분석	42
4. 육아 관련 빅데이터 분석	52
III. 2차년도 KICCE 정기 여론조사 결과	61
1. 출산 및 저출산에 대한 의견	63
2. 영유아 부모의 육아 현황	85
3. 육아정책 인지 및 의견	95
4. 육아정책 현안 및 방향에 대한 의견	145
5. 소결	163

IV. 2차년도 KICCE 수시 여론조사 결과 167

- 1. 1차 수시 여론조사 주요 결과 169
- 2. 2차 수시 여론조사 주요 결과 176
- 3. 소결 194

V. 정책제언 199

- 1. 육아정책의 방향 201
- 2. 정책 과제 203

참고문헌 207

Abstract 209

부록

- 부록 1. 정기조사 설문지 213
- 부록 2. 1차 수시조사 설문지 233
- 부록 3. 2차 수시조사 설문지 237
- 부록 4. 1차 수시조사 결과(인포그래픽) 242
- 부록 5. 2차 수시조사 결과(인포그래픽) 249

표 목차

〈표 Ⅰ-3- 1〉 KICCE POLL 1차년도 조사내용 및 2차년도 문항 비교	16
〈표 Ⅰ-3- 2〉 KICCE POLL 2차년도 정기조사 응답자	18
〈표 Ⅰ-3- 3〉 KICCE POLL 2차년도 1차 수시조사 문항	20
〈표 Ⅰ-3- 4〉 KICCE POLL 2차년도 1차 수시조사 응답자	20
〈표 Ⅰ-3- 5〉 KICCE POLL 2차년도 2차 수시조사 문항	21
〈표 Ⅰ-3- 6〉 KICCE POLL 2차년도 2차 수시조사 응답자	22
〈표 Ⅰ-3- 7〉 KICCE POLL 2차년도 면담 질문 문항	23
〈표 Ⅰ-3- 8〉 KICCE POLL 2차년도 면담 응답자	23
〈표 Ⅱ-1- 1〉 여론조사 관련 선행 정책 연구과제	29
〈표 Ⅱ-1- 2〉 국외 여론조사 관련 선행 정책 연구과제	31
〈표 Ⅱ-2- 1〉 KICCE POLL 1차 조사 개요	33
〈표 Ⅱ-2- 2〉 KICCE POLL 1차 정기조사 결과(2017년)	34
〈표 Ⅱ-2- 3〉 KICCE POLL 1차 및 2차 수시조사 결과(2017년)	40
〈표 Ⅱ-3- 1〉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43
〈표 Ⅱ-3- 2〉 보건복지부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45
〈표 Ⅱ-3- 3〉 2018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49
〈표 Ⅲ-1-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 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63
〈표 Ⅲ-1- 2〉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 2) 임신·출산 지원 정책	65
〈표 Ⅲ-1- 3〉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 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66
〈표 Ⅲ-1- 4〉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 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67
〈표 Ⅲ-1- 5〉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 중요도	68
〈표 Ⅲ-1- 6〉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 - 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69
〈표 Ⅲ-1- 7〉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 - 2) 임신·출산 지원 정책	70
〈표 Ⅲ-1- 8〉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 - 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71
〈표 Ⅲ-1- 9〉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 - 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72
〈표 Ⅲ-1-10〉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 정책효과	74
〈표 Ⅲ-1-11〉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	74

〈표 Ⅲ-1-12〉 추가 출산 계획	76
〈표 Ⅲ-1-13〉 추가 출산 계획 시 자녀 수 계획	77
〈표 Ⅲ-1-14〉 선호하는 자녀 성별	78
〈표 Ⅲ-1-15〉 자녀 낳을 계획 없거나 생각 중인 경우 해당 이유	80
〈표 Ⅲ-1-16〉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 수	81
〈표 Ⅲ-1-17〉 이상 자녀 수	82
〈표 Ⅲ-1-18〉 출생아 수 감소 문제에 대한 생각	83
〈표 Ⅲ-2- 1〉 양육 효능감	86
〈표 Ⅲ-2- 2〉 양육 스트레스	88
〈표 Ⅲ-2- 3〉 사회적 관계망	90
〈표 Ⅲ-2- 4〉 정기적인 모임	90
〈표 Ⅲ-2- 5〉 집 또는 거주지 주변 기관 충분성	91
〈표 Ⅲ-2- 6〉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 인근의 육아 환경 필요성/만족도	92
〈표 Ⅲ-2- 7〉 주택의 입지에 따른 육아 환경 필요성/만족도	92
〈표 Ⅲ-2- 8〉 추가 출산의 영향 요인(여성)	93
〈표 Ⅲ-2- 9〉 추가 출산의 영향 요인(남성)	94
〈표 Ⅲ-3- 1〉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1) 0-2세 보육료 지원	96
〈표 Ⅲ-3- 2〉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2) 3-5세 누리과정비 지원	97
〈표 Ⅲ-3- 3〉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3) 양육수당 지원	98
〈표 Ⅲ-3- 4〉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4)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99
〈표 Ⅲ-3- 5〉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5) 시간제 보육료 지원	100
〈표 Ⅲ-3- 6〉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6)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101
〈표 Ⅲ-3- 7〉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7) 아동수당 지급	102
〈표 Ⅲ-3- 8〉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	103
〈표 Ⅲ-3- 9〉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104
〈표 Ⅲ-3-10〉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105
〈표 Ⅲ-3-11〉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106
〈표 Ⅲ-3-12〉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	107

〈표 Ⅲ-3-13〉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108
〈표 Ⅲ-3-14〉 보육료·유아학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	109
〈표 Ⅲ-3-15〉 유치원에서 강조해야 할 점 - 1순위	111
〈표 Ⅲ-3-16〉 유치원에서 강조해야 할 점 - 1+2순위	112
〈표 Ⅲ-3-17〉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점 - 1순위	112
〈표 Ⅲ-3-18〉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점 - 1+2순위	113
〈표 Ⅲ-3-19〉 유치원 선택 시 고려할 점 - 1순위	114
〈표 Ⅲ-3-20〉 유치원 선택 시 고려할 점 - 1순위+2순위	115
〈표 Ⅲ-3-21〉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할 점 - 1순위	115
〈표 Ⅲ-3-22〉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할 점 - 1+2순위	116
〈표 Ⅲ-3-23〉 유치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117
〈표 Ⅲ-3-24〉 어린이집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118
〈표 Ⅲ-3-25〉 유치원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119
〈표 Ⅲ-3-26〉 어린이집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120
〈표 Ⅲ-3-27〉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1)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	121
〈표 Ⅲ-3-28〉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2)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122
〈표 Ⅲ-3-29〉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123
〈표 Ⅲ-3-30〉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124
〈표 Ⅲ-3-31〉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5)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125
〈표 Ⅲ-3-32〉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6) 시간제 보육 지원 기준 개선 ·	126
〈표 Ⅲ-3-33〉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7)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127
〈표 Ⅲ-3-34〉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8) 아이돌보미 대기수요 해소/서비스 다양화	128
〈표 Ⅲ-3-35〉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1)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129
〈표 Ⅲ-3-36〉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2)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130
〈표 Ⅲ-3-37〉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131
〈표 Ⅲ-3-38〉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132
〈표 Ⅲ-3-39〉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5)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	133

〈표 Ⅲ-3-40〉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6) 시간제 보육 지원 기준 개선	134
〈표 Ⅲ-3-41〉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7)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135
〈표 Ⅲ-3-42〉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8) 아이돌봄비 대기수요 해소/서비스 다양화	136
〈표 Ⅲ-3-42〉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기대효과	137
〈표 Ⅲ-3-43〉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1) 출산전후 휴가	138
〈표 Ⅲ-3-44〉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2) 육아휴직	139
〈표 Ⅲ-3-45〉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1
〈표 Ⅲ-3-46〉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4) 유연근무제	142
〈표 Ⅲ-3-47〉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5) 직장어린이집	143
〈표 Ⅲ-4- 1〉 육아를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	145
〈표 Ⅲ-4- 2〉 가장 큰 불안 요인(1순위)	146
〈표 Ⅲ-4- 3〉 대중교통에서 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각	148
〈표 Ⅲ-4- 4〉 다자녀 가구 이용 편의 지원에 대한 의견	149
〈표 Ⅲ-4- 5〉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의 우선 순위	150
〈표 Ⅲ-4- 6〉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의 우선 순위	152
〈표 Ⅲ-4- 7〉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 1순위	153
〈표 Ⅲ-4- 8〉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 1+2+3순위	154
〈표 Ⅲ-4- 9〉 정부의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155
〈표 Ⅲ-4-10〉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	
1순위	156
〈표 Ⅲ-4-11〉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	
1+2순위	157
〈표 Ⅲ-4-12〉 직장의 출산 및 양육 적절 지원 정도	158
〈표 Ⅲ-4-13〉 세금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159
〈표 Ⅲ-4-14〉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출산율 상승에 대한 의견	160
〈표 Ⅲ-4-15〉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	161
〈표 Ⅳ-1- 1〉 조사 대상자 특성	170

〈표 IV-1- 2〉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의 행복 정도	170
〈표 IV-1- 3〉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관련 정책 인지	173
〈표 IV-1-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녀 등원 계획	173
〈표 IV-1- 5〉 유치원 방과후 영어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필요성 여부	175
〈표 IV-2- 1〉 KICCE POLL 2차 수시조사 응답자	176
〈표 IV-2- 2〉 실제적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177
〈표 IV-2- 3〉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1)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	178
〈표 IV-2- 4〉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2)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179
〈표 IV-2- 5〉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3)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179
〈표 IV-2- 6〉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4) 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	180
〈표 IV-2- 7〉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5)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181
〈표 IV-2- 8〉 자녀 양육 유형별 역할 담당자	181
〈표 IV-2- 9〉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녀 양육 도움받는 사람	182
〈표 IV-2-10〉 아동수당 신청 자격에 대한 인지 경로	183
〈표 IV-2-11〉 아동수당 신청하지 않은 이유	184
〈표 IV-2-12〉 아동수당 사용 계획	185
〈표 IV-2-13〉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도움 예상 정도	185
〈표 IV-2-14〉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한 의견	186
〈표 IV-2-15〉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 어머니	187
〈표 IV-2-16〉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 아버지	188
〈표 IV-2-17〉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 기타	188
〈표 IV-2-18〉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	189
〈표 IV-2-19〉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190
〈표 IV-2-20〉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안전 인식	191
〈표 IV-2-2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 여부	193

그림 목차

[그림 I-3- 1] KICCE i-POL 홈페이지	24
[그림 I-3- 2] 여론조사 결과 공유	24
[그림 II-4- 1] 네이버 트렌드의 출산/저출산 관련 주제어 검색 결과 (2017. 5. 10~2018. 11. 30.)	53
[그림 II-4- 2] 네이버 트렌드의 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관련 주제어 검색 결과 (2017. 5. 10~2018. 11. 30.)	54
[그림 II-4- 3] 네이버 트렌드의 양육수당/아동수당/누리과정비 관련 주제어 검색 결과 (2017. 5. 10~2018. 11. 30.)	54
[그림 II-4- 4] 네이버 트렌드의 방과후과정/온종일돌봄/아이돌보미 관련 주제어 검색 결과 (2017. 5. 10~2018. 11. 30.)	55
[그림 II-4- 5] 육아 관련 키워드(문재인정부)	56
[그림 II-4- 6] 육아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56
[그림 II-4- 7] 육아환경 관련 키워드(문재인정부)	57
[그림 II-4- 8] 육아정책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57
[그림 II-4- 9] 출산 관련 키워드(문재인정부)	57
[그림 II-4-10] 출산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57
[그림 II-4-11] 출산 관련 키워드(문재인정부)	58
[그림 II-4-12] 출산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58
[그림 II-4-13] 어린이집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59
[그림 II-4-14] 어린이집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59
[그림 II-4-15] 유치원 관련 키워드(문재인정부)	59
[그림 II-4-16] 유치원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59
[그림 IV-1- 1] 육아 행복감 응답 점수별 응답 사유	171
[그림 IV-1- 2]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72
[그림 IV-1- 3]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원하는 방안 ..	174
[그림 IV-1- 4] 방과후 영어/영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175
[그림 IV-2- 1] 아동수당 신청 여부	183

[그림 IV-2- 2] 자녀의 놀이 충분성	190
[그림 IV-2- 3] 자녀의 놀이 충분성	192
[그림 IV-2- 4] 기관에서의 자녀 아동학대 의심 여부	192
[그림 IV-2- 5] 자녀 학대 의심에 대한 이유	193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아문화의 창출에 필요한 국민의 인식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7년부터 5년간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연구가 수행될 예정으로,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나. 연구내용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중앙부처별 육아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언론기사 분석 등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주된 현안을 확인하며,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 1차년도 여론조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다양한 변인의 사회계층의 실태 및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별, 연령별 등의 특성을 세분화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육아환경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육아정책 일반 및 당면 현안 등에 대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를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로 나누어 실시함.
 - 정기 여론조사는 주요 육아정책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행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점을 모색함.
 - 수시 여론조사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정책대상을 선별한 후, 해

당 정책수요자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실시함.

-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국민의 요구에 기반을 둔 육아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 분석

- 육아정책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한 관련 기본계획, 업무보고 자료,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함.

□ 설문 조사

- 정기 조사
 - 육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자녀유무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함.
- 수시 조사
 - 정책현안에 대하여 2회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함. 전문조사기관의 패널 중 정책 현안과 관련한 대상과 1차년도에 구성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포함하여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함.

□ 심층 면담

- 영유아 또는 초등 부모 등 정책수요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 및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 및 현안에 대한 요구를 파악함.

□ 전문가 협의회

- 여론조사의 범위 및 내용의 수정·보완을 위해 육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육아정책 전문가, 관련 선행연구자 중심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함.

□ KICCE POLL 홈페이지 운영

- 주요 정책 이슈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수요자의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1차년도에 구축한 여론조사 관련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하여 운영함.
- 1차년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정기조사, 수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

으며, 쌍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육아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육아정책 등을 홍보함.

라. 연구범위 및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 수요자를 영유아 부모로 제한하고, 영유아 대상인 육아정책이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하여 육아정책의 범위는 돌봄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조사의 범위에 포함함.

2. 연구의 배경

가.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여론조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1차년도 조사 범위인 만 15세 이상에서 만 19세로 수정하는 것이 대국민 조사로서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조사 대상과 방식은 연속과제로써 시계열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1차년도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1차년도 연구의 조사대상 연령만을 만 19세로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나. 1차년도 조사(KICCE POLL)의 주요 결과

- 2017년 조사는 1회의 정기조사와 2회의 수시조사로 이루어짐.
- 정기 여론조사의 경우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부모됨, 양육관, 결혼관, 육아행복감, 유아교육·보육 정책, 정책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함.
- 수시 여론조사의 경우 영유아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가정 내 양육, 일·가정 양립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함.

다. 중앙 정부의 육아정책 분석

- 교육부의 육아정책
- 2017년 12월 발표된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육아 관련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주요 정책분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아중심 교육문화

조성,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안함.

□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 2017년 12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018-2022)’에 의하면, 주요 정책분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 2018년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육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지도 확대,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정책분야를 구분하여 정책과제들을 제시함.

다. 육아 관련 빅데이터 분석

□ 트렌드 분석

-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 분석을 통해 출산, 육아 관련 관심도를 확인함.

□ 워드클라우드 분석

- 대국민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블로그, 네이버/다음카페, 페이스북 데이터를 분석함. 자료수집 기간은 최근 3년(2016. 1. 1 ~ 2018 11. 30)으로, 이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나누어 문정부 출범 이전인 2016. 1. 1 ~ 2017. 5. 9, 문정부 출범 이후인 2017. 5. 10 ~ 2018. 11. 30까지의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함.

3. 2차년도 정기 여론조사 결과

가. 출산 및 저출산에 대한 의견

-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별 중요도와 정책효과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는 평균 4.19점~4.36점이었으며, 정책효과는 2.80~3.02점으로 정책효과를 다소 낮게 인식함.
-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었으며, 정책효과가 높다고 인식한 정책은 자녀 돌봄 지원 정책으로 나타남.

□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37.8%)을 제외하면, 43%가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인 경우, 그 이유로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36%), 양육비 부담(30.3%)로 나타남.
-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 수는 평균 2.1명,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2.3명임.
-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서 심각(매우+다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1.1%로 나타남.

나. 영유아 부모의 육아 현황

□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 육아 인프라를 조사함.

- 양육 효능감(5점 척도)은 3.5점, 양육 스트레스(5점 척도)는 3.1점임.

□ 집 또는 주거지 주변의 기관 충분성(5점 척도)과 수를 조사한 결과, 항목별로 평균 1.5개~2.6개로 필요성(7점 척도)은 3.6점~4.1점, 만족도는 2.5점~3점으로 나타남.

- 집 또는 주거지 주변의 기관의 충분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미술관(1.5개)과 박물관(1.6개)이었으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편리한 보행 환경(4.1점)과 보차분리(4점),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커뮤니티 시설(2.5점), 커뮤니티 시설 내 프로그램(2.5점)임.

다. 육아정책 인지 및 의견

□ 비용 지원 정책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50.1%), 시간제 보육료 지원(51.1%),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9.1%)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매우+약간) 50.4%, 바람직하지 않다(별로+전혀) 24.8%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소득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남.
-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매우+약간) 47.2%, 바람직하

지 않다(별로+전혀) 28.1%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역시 소득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2%임.

-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다 46.2%, 있다 29.7%로 나타났으며, 세금 부담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 선행이 35.3%,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이 28.5%로 나타남.

□ 서비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1순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인성지도가 40.8%,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가 36.6%로 가장 높았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할 점으로는 모두 집과의 거리(유치원 23.6%, 어린이집 26.2%)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신뢰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 3.13점, 어린이집은 평균 2.97점이었으며,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인성이 좋은 교사(유치원 83.4%, 어린이집 83.9%)로 나타남.
-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5점 척도)와 정책효과(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는 항목별로 평균 3.46점~4.12점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가장 높았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이 가장 낮았음. 한편 정책의 기대효과(5점 척도)는 항목별로 평균 3.15점~3.76점이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가장 높았음.

□ 시간 지원 정책의 인지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0.4%)과 유연근무제(33.8%)에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도움 정도는 항목별로 평균 3.92점~4.24점으로 육아휴직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음.

라. 육아정책 현안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국가 차원의 육아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34.2%로 가장 높았고, 재정 지원 설계의 우선 순위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51%로 나타남.

-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1순위)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 40.4%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 바라는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장에서 자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의 적정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0.2%가 전적+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 정부가 세금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매우+어느 정도) 79.1%로 나타남.
- 아동수당 도입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매우+다소) 46.1%, 아니다(약간+전혀) 46.1%로 나타났으며, 아동수당의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해서는 영유아 전체 가구로 확대가 26.2%로 가장 높았음.

4. 2차년도 수시 여론조사 결과

가. 1차 수시 여론조사 주요 결과

□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의 행복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6.91점으로,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 행복도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육아 행복감이 0~3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를 도와줄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육아 행복감이 7~10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7.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게이트 앞에서 두 명의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다자녀 가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을 질문한 결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음.

- 다자녀 가구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동 도우미, 다자녀 우선 주차 등)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지지함.

□ 미세먼지(‘나쁨’ 이상)로 인해 결석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0%로 나타남.

-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나쁨’ 이상) 자녀를 기관에 보낼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등원시키지 않고 싶지만 돌볼 방법이 없어 등원시킬 계획이라는 응답이 51.3%로 과반이었음.
- 맞벌이 가구들은, 등원시키고 싶지 않지만 돌볼 방법이 없어서 등원시킬 계

획이라는 응답이 68.5%로 외벌이 가구(3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응답을 보임.

- 유치원 방과 후 영어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7.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2.4%)에 비해 약간 높았음.
-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일반 영어학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지만, 영어를 빨리 배우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즉, 조기 언어 습득에 대한 기대)는 응답도 43.3%로 높은 비중을 보임.

나. 2차 수시 여론조사 주요 결과

-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어머니 : 아버지가 7 : 3 정도의 비중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됨.
- 구체적인 일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체로 어머니였으나,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를 한다는 응답이 37.4%로 높았음.
-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조부모/친인척이 73.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다니는 기관 7.4%, 이웃과 친구 6.4%, 베이비시터/도우미 등 1.6% 순이었음.
-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아동수당 신청 자격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72.5%로 대부분이었음.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 가량이었으며,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경우도 19.2%로 나타남.
- 아동수당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자녀 보육, 교육비에 쓰겠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녀 적금 및 보험료 30.1%, 자녀 생필품 구입 19.9%, 가구 생활비 7.4% 순임.
-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음.
- 첫 자녀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를 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3시간 24

분, 주말에 5시간 29분 가량이었고,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평균 주중 1시간 33분, 주말 4시간 49분이었음.

- 아버지의 경우, 주중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0~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남.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1시간 21분, 주말 1시간 51분으로 아이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혼자 놀이하고 있었음.
- 현재 자녀가 충분히 놀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5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놀이 충분성에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48.2%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4.0%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놀이대상(친구, 부모 등)의 부재가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놀이방법(놀잇감 등) 부족이 25.1%로 나타남.

□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85.4%로, 지역 규모에 따라서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59.7%)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관 이용자(423명) 중 14.9%가 의심해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5.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9%로, 훈육을 위한 체벌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임.

5. 정책 제언

가. 육아정책의 방향

- 육아가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함.
- 정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를 고려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질 제고를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로 둬.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함.
- 정책적 요구 수준을 고려한 현 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나. 정책 과제

- 행복육아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 추진 과제
 - 추가 출산의 영향 요인의 다면평가를 통한 육아정책 재설계
 -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구축
 -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육아정책 유형별 추진 과제
 - 놀이를 통한 영유아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강화
 - 아동수당 수급대상 및 효과성 검토
 -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육아정책이나 양육관 등에 대해 국민이 어떤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육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육아정책은 모든 국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육아정책의 투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저출산 사회에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소비주의적 육아문화와 교육열에 따른 사교육 문화는 단순한 재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아문화의 창출에 필요한 국민의 인식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7년부터 5년간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연구가 수행될 예정으로,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1차년도에는 육아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조사 대상 표집 및 설문문항 구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젊은 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양육 및

가사에 있어 공평한 분담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사 대상자 가정에서는 부부 간 불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훈·이재희·이혜민, 2017). 또한 국민들은 정부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0~5세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동훈·이재희·이혜민, 2017).

2차년도(2018년)부터는 1차년도 연구 설계를 수정·보완하여 육아정책 여론조사 및 국민 인식조사를 지속적·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육아정책과 육아 관련 여론과 인식의 추이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요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국민의 요구에 기반한 육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와 관련한 국내 정책과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중앙부처별 육아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언론기사 분석 등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주된 현안을 확인하며,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1차년도 여론조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다양한 변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직업별, 연령별 등의 특성을 세분화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육아환경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육아정책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육아문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 육아정책 일반 및 당면 현안 등에 대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를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정기 여론조사는 주요 육아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점을 모색한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개인배경, 유아교육 및 보육, 가치관 등 육아정책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식 및 태도 관련 내용으로 향후 5년간 추세변

화를 비교할 수 있는 고정문항과 변동문항으로 구성한다. 수시 여론조사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정책대상을 선별한 후, 해당 정책수요자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국민의 요구에 기반을 둔 육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분석

유관 기관의 육아정책 및 육아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육아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존의 결과 외에 정책수요자의 관점에 집중하여 육아문화와 육아정책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한 관련 기본계획, 업무보고 자료,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하였다.

나. 설문 조사

1) 정기 조사

육아관련 정책 및 인식에 관한 조사 실시를 통해, 오늘날 일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대상은 육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로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자녀유무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하였다. 조사 방법은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 및 패널 pool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하였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조사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이메일, 문자, 유선통화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기조사의 문항과 조사 참여자는 <표 I-3-1>, <표 I-3-2>와 같다.

우선 2018년에 실시된 정기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차 조사에서는 부모됨 및 결혼 등의 인식, 행복감 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

많이 포함되었다면, 2018년에는 가치관 문항보다는 실제적으로 느끼는 육아 관련 고충 및 어려움, 최근 정책 관련 의견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에 새롭게 포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육아를 수행하는 부모로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육아 인프라(육아에 도움이 되는 기관의 충분성, 필요성, 만족도 등)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였다. 이에 2차 조사에서는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저출산 관련 심각성에 대해 실제적인 체감이 있는지, 다자녀 가구 대상 정책에 대한 의견, 2018년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정책 의견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표 I-3-1 KICCE POLL 1차년도 조사내용 및 2차년도 문항 비교

(○: 기존문항, ●: 신규문항)

영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부모됨	부모됨 인식 및 역할	1	부모됨에 대한 의견	○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반인식	○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시기	○	
		4	부모 취업과 자녀양육	○	
	부모역할의 실제	5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정도 및 적절수준 의견	○	
		6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별 실제 분담 정도	○	
		7	자녀양육시기별 부모의 바람직한 경제활동 상태	○	
		8	좋은 부모 인식 여부	○	
		9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낳는 시기	○	
		10	좋은 부모 기능성 전망	○	
		11	좋은 부모 필요요건	○	
	육아 현황	12	양육 효능감		●
		13	양육 스트레스		●
		14	사회적 관계망		●
		15	육아 인프라		●
결혼 및 자녀 양육관	결혼 가치관	16	결혼필요성	○	
	결혼과 출산	17	결혼과 출산의 관계	○	
	적정 자녀 수	18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	○	○
	자녀 선호도	19	자녀 성 선호도	○	○
	자녀에 대한 필요성	20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견	○	
		21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	
		2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	
	양육 태도	23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자녀양육 어려움	24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	
	자녀 교육관	25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	
		26	자녀양육 선호도	○	

영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저출산	개인 출산 관련	27	추가 출산 계획 및 미계획 시 이유		●
	저출산 정책	28	저출산 관련 국가 심각성 인지 여부		●
육아 행복감	육아행복감 및 가치	29	자녀양육 즐거움	○	
		30	양육 및 육아의 가치 및 자신감	○	
	양육의 경제적 가치	31	영유아 육아의 경제적 가치 환산 금액(월 평균)	○	
	양육의 책임	32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	
		33	정부의 육아정책 설계 우선순위	○	○
육아 정책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34	정부의 육아 재정지원 설계 우선순위	○	○
		35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	○
		36	유치원·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	○
		37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	○
	교사	38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
		39	보육료·유아학비 등 육아비용 지원정책 인지 여부	○	○
	비용지원 정책	40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	
	아동학대 관련 의견	41	영유아 사교육 근본 원인	○	
		42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43	육아정책 관련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	○
		44	추가세금 부담에 대한 반대 이유	○	○
	세금 추가 부담 의사	45	현재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
		46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의견		●
		47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바라는 정책		●
		48	직장에서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의견		●
	육아지원 정책 희망	49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	○
		50	무상보육·교육정책 만족도	○	○
		51	보육료·유아학비 불만족 시 불만족 이유	○	○
		52	양육수당 불만족 시 불만족 이유	○	○
	일-가정 양립 의견	53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예상 정책효과	○	○
		54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추가 출산 영향 여부	○	
	무상보육·교육정 책 만족도	55	다자녀 가구 관련 정책 의견		●
		56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금지 관련 의견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57	아동수당 도입과 출산율과의 관계	○	○
		58	아동수당 도입 적정 금액 및 적정 연령	○	○
		59	아동수당 적정 대상 의견		○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의견	60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는 형태에 대한 인식	○	○
		61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안전한 사회 인식 정도	○	○
	안전한 사회	62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불안 요인	○	○
		63	육아지원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올해 KICCE POLL 2차년도 정기조사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총 3,000명이 정기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남성은 1,522명, 여성은 1,478명이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19.6%였고, 광역시 및 특별시 거주자는 전체의 26%가 해당하였다. 중소도시 거주하는 경우는 49.7%였다. 조사 대상자 중 읍면지역 거주자는 4.8%였다. 응답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응답자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응답자는 21%였다. 60대 이상의 경우 17.9%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52.6%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고졸인 경우는 21.1%였다.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기혼, 사실혼 포함)가 77.1%였고, 미혼인 경우가 19.3%, 이혼, 별거, 사망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6%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맞벌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4%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0.5%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27.5%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는 2명이 58.9%로 가장 많았고, 평균 자녀 수는 1.79명이었다.

표 1-3-2 KICCE POLL 2차년도 정기조사 응답자

단위: %(명),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000)	100.0	지역규모		
성별			서울특별시	(588)	19.6
남성	(1,522)	50.7	광역시	(779)	26.0
여성	(1,478)	49.3	중소도시	(1,490)	49.7
학력			군(읍면지역)	(143)	4.8
무학	(3)	0.1	연령		
초등학교 졸업	(10)	0.3	10대(15~19세)	(58)	1.9
중학교 졸업	(53)	1.8	20대	(632)	21.1
고등학교 졸업	(634)	21.1	30대	(519)	17.3
전문대 졸업	(413)	13.8	40대	(630)	21.0
대학교 졸업	(1,578)	52.6	50대	(625)	20.8
대학원 석사	(280)	9.3	60대 이상	(536)	17.9
대학원 박사	(29)	1.0	혼인 여부		
종사상 직업			미혼	(579)	19.3
관리자	(210)	7.0	배우자 있음	(2,312)	77.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07)	10.2	배우자 없음	(109)	3.6
사무 종사자	(1,011)	33.7	종사상 지위		
서비스 종사자	(250)	8.3	고용주	(39)	1.3
판매 종사자	(92)	3.1	자영업자	(249)	8.3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농림어업 종사자	(12)	0.4	상용근로자	(1,578)	52.6
기능원 및 종사자	(85)	2.8	임시근로자	(165)	5.5
장치 등 종사자	(47)	1.6	일용근로자	(68)	2.3
단순 노무 종사자	(81)	2.7	무급가족종사자	(40)	1.3
군인	(34)	1.1	무직	(785)	26.2
기타	(871)	29.0	무응답, 모름	(76)	2.5
맞벌이 유무			자녀 취학 등 현상태 ¹⁾		
맞벌이	(1,350)	58.4	가정양육(영유아)	(209)	9.9
맞벌이 아님	(962)	41.6	영유아 기관	(515)	24.3
자녀 유무			초등학교	(508)	24.0
있음	(2,116)	70.5	중학교	(217)	10.3
없음	(884)	29.5	고등학교	(281)	13.3
영유아 자녀 유무			대학 이상	(596)	28.2
있음	(582)	27.5	직장인	(970)	45.8
없음	(1,534)	72.5	출가 및 미취업	(413)	19.5
총 자녀 수(있는 경우)			기타	(79)	3.7
1명	(668)	31.6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2명	(1,247)	58.9	유치원	(137)	26.6
3명	(181)	8.6	어린이집	(377)	73.2
4명 이상	(20)	0.9	기타	(1)	0.2
(자녀 있는 경우) 평균	1.79명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가구소득 ²⁾			국공립어린이집	(89)	17.3
60% 미만	(919)	30.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20)	3.9
60 - 80% 미만	(441)	14.7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21)	4.1
80 - 100% 미만	(418)	13.9	민간어린이집	(182)	35.3
100 - 120% 미만	(363)	12.1	가정어린이집	(54)	10.5
120 - 140% 미만	(351)	11.7	직장어린이집	(11)	2.1
140 - 160% 미만	(190)	6.3	국공립유치원	(31)	6.0
160% 이상	(318)	10.6	사립유치원	(106)	20.6
			기타	(1)	0.2

주: 1)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 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2,116명보다 많음.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한 것임.

2) 수시 조사

긴급하게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하여 2회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 조사기관의 패널 중 정책 현안과 관련한 대상 400명과 1차년도에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포함하였다. 수시조사의 문항과 조사 참여자는 <표 I-3-3>, <표 I-3-4>와 같다.

가) 1차 수시조사

1차 수시조사 문항은 다음 <표 I-3-3>와 같다. 1차 수시조사에는 육아 행복감,

영유아 생활환경(미세먼지 중심), 영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1차 수시조사 응답자는 다음 <표 I-3-4>와 같다. 수시조사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차 수시조사 응답자의 경우 남·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약 78%로 가장 많았다. 맞벌이인 경우가 46.8%로 아닌 경우보다 적었으며, 응답자 연령은 30대가 68.2%로 가장 많았다. 수시조사 응답자의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22.3%, 가정보육하는 경우는 24.9%였다.

표 I-3-3 KICCE POLL 2차년도 1차 수시조사 문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육아/육아문화	1	주관적인 육아 행복감
	2	육아 행복감이 낮은 이유
	3	육아 행복감이 높은 이유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반적 인식
	5	다자녀 가구 관련 정책 의견
영유아 생활환경: 미세먼지 관련 정책	6	미세먼지 발생 시 결석할 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관련 정책 인지 여부
	7	미세먼지 발생 시 자녀 기관 등원 의견
	8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 보호 방안 중 가장 원하는 방안
영유아 영어교육	9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에 대한 의견
	10	영어수업 허용 의견에 대한 이유

표 I-3-4 KICCE POLL 2차년도 1차 수시조사 응답자

단위: %(명),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00)	100.0	응답자 연령		
응답자			20대	(36)	7.2
어머니	(250)	50.0	30대	(341)	68.2
아버지	(250)	50.0	40대	(123)	24.6
총 영유아 자녀 수			지역규모		
1명	(389)	77.8	서울특별시	(126)	25.2
2명	(107)	21.4	광역시	(139)	27.8
3명	(4)	0.8	중소도시	(214)	42.8
(영유아 있는 경우) 평균		1.53	군(읍면지역)	(21)	4.2
맞벌이 유무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주)}		
맞벌이	(234)	46.8	어린이집	(319)	51.9
맞벌이 아님	(266)	53.2	유치원	(137)	22.3
본인 취업 여부			반일제 이상 기관	(3)	0.5
취업 중	(358)	71.6	이용안함(가정보육)	(153)	24.9
미취업 중	(142)	28.4	기타	(3)	0.5

주: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500명보다 많음.

나) 2차 수시조사

한편 2차 수시조사 문항은 다음 <표 I-3-5>와 같다. 2차 수시조사에서는 실제적인 영유아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실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및 역할 분담 정도, 아동수당 관련 의견, 영유아로서의 자녀의 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2차 수시조사 응답자는 다음 <표 I-3-6>와 같다. 2차 수시조사 역시 남·녀 동등한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차 수시조사에서는 맞벌이인 경우가 맞벌이가 아닌 경우보다 더 많았다. 2차 수시조사에서도 영유아 자녀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24.4%,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18.9%였다.

표 I-3-5 KICCE POLL 2차년도 2차 수시조사 문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영유아 자녀 돌봄	1	배우자 간 영유아 자녀 양육 및 가사 역할 분담 정도
	2	자녀 양육 중 각종 역할 담당자
	3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도움 받는 사람
아동수당	4	아동수당 신청여부
	5	아동수당 신청자격 인지 경로
	6	아동수당 미신청 이유
	7	아동수당 사용처
	8	아동수당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도움 예상 정도
	9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한 의견
	10	가구 구성원과 자녀가 놀이하는 시간
자녀와의 놀이	11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
	12	자녀의 놀이 충분성
	13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하는 이유
	14	영유아 놀이에 대한 정의
	15	유치원·어린이집 생활 안전성 의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16	유치원·어린이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7	유치원·어린이집 학대 의심 여부
	18	유치원·어린이집 학대 의심 이유
	19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 의견
	20	훈육으로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I-3-6 KICCE POLL 2차년도 2차 수시조사 응답자

단위: %(명), 명

구분	사례 수	비율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500)	100.0	응답자 연령		
응답자			20대	(22)	4.4
어머니	(250)	50.0	30대	(364)	72.8
아버지	(250)	50.0	40대	(114)	22.8
총 영유아 자녀 수			지역규모		
1명	(362)	72.4	서울특별시	(45)	9.0
2명	(125)	25.0	광역시	(175)	35.0
3명	(13)	2.6	중소도시	(251)	50.2
(영유아 있는 경우) 평균	1.65명		군(읍면지역)	(29)	5.8
맞벌이 유무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주)}		
맞벌이	(293)	58.6	어린이집	(367)	56.4
맞벌이 아님	(207)	41.4	유치원	(159)	24.4
본인 취업 여부			반일제 이상 기관	(1)	0.2
취업 중	(417)	83.4	이용안함(가정보육)	(123)	18.9
미취업 중	(83)	16.6	기타	(1)	0.2

주: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 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500명보다 많음.

다. 심층 면담

영유아 또는 초등 부모 등 정책수요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 및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 및 현안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을 기반으로 1차년도 조사문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우선 면담은 ‘육아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와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육아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주제에서는 육아의 행복감을 실제로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육아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필요요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면,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서는 실제 알고 있는 육아정책 내용과 정책 개선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총 8인이 참여하고, 면담자는 모두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여성 5명과 남성 3인이었다. 면담은 두 차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면담자에 대한 상세 특성은 다음 <표 I-3-8>과 같다.

표 I-3-7 KICCE POLL 2차년도 면담 질문 문항

대주제	연번	상세내용
육아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1	육아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2	육아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육아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4	(알고 있는)육아정책은 무엇이며, 육아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5	(알고 있는)육아정책 도입 이후 변화한 것은 무엇입니까?
	6	(알고 있는)육아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행복한 육아를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표 I-3-8 KICCE POLL 2차년도 면담 응답자

구분	면담자	면담자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자녀 연령
면담 1	A	여	38세	전업주부	만5세
	B	여	30세	전업주부	만1세
	C	남	49세	회사원	만5세
	D	여	37세	회사원	만7세/만5세
면담 2	E	여	43세	전업주부	만5세
	F	여	36세	전업주부	만3세
	G	남	38세	사회복지사	만2세
	H	남	38세	회사원	만1세

라. 전문가 협의회

여론조사의 범위 및 내용의 수정·보완을 위해 육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 육아정책 전문가, 관련 선행연구자 중심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마. KICCE POLL 홈페이지 운영

주요 정책이슈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수요자의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1차년도에 구축한 여론조사 관련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1차년도 연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구결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정기조사, 수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쌍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육아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육아정책 등을 홍보하였다.

그림 I-3-1 KICCE i-POL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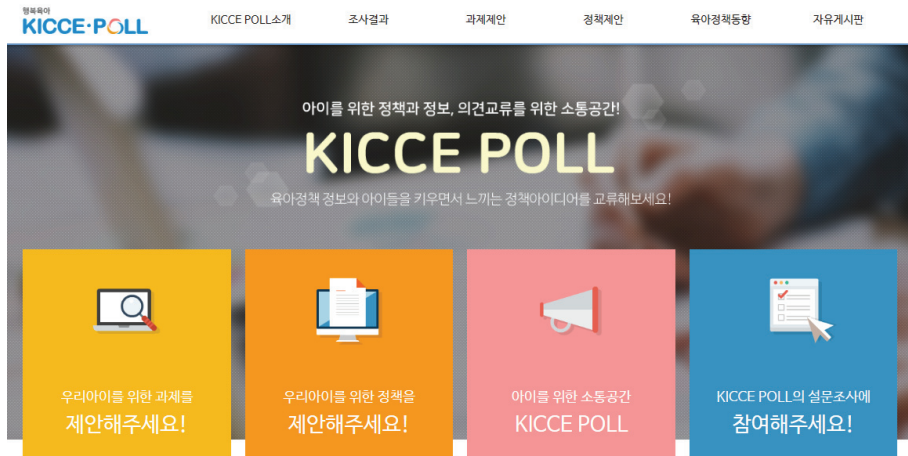


그림 I-3-2 여론조사 결과 공유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육아, 양육, 돌봄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의미 영역이 서로 중첩되면서도 다른 외연을 가진다. 먼저 ‘육아’란 주로 태내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유아기에 이르기까지의 아동을 돌보고 기르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육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어린이를 기름, 즉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보살피는 행위”(김혜정, 2017: 6), “어린이의 신체적 발육과 지적 교육, 정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김주희, 2010: 5)로 정의된다.

‘양육’의 개념은 보살피고 기르는 대상이 영유아를 포함할 뿐 아니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육아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양육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아동을 기르는 양태, 혹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데 나타나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 행동”(한윤옥, 2012: 7), “아이를 길러 자라게 하는 것으로(중략)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보호 및 교육, 정서적 욕구충족 등을 제공하는 것”(백지혜, 2009: 7) 등으로 규정되어 양육 대상이 ‘아동’, ‘자녀’ 등으로 좀 더 포괄적이다.

한편 ‘돌봄’은 육아와 양육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와주다’, ‘보호하다’와 유사어이며,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피 돌보다,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하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의 의미를 가진다. 즉 돌봄은 육아와 양육과는 달리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보살피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보호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누구라도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육아, 양육, 돌봄은 대상을 보호하고 보살핀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나 육아는 주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은 영유아기를 포함하여 아동,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돌봄은 그 대상이 반드시 자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센터나 학교, 유치원의 돌봄 교실과 같이 부모-자녀 이외의 관계에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살핀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의 대상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육아정책 수요자를 영유아 부모로 제한하였다. 또한 육아, 양육, 돌봄의 의미가 포괄하는 대상과 주체가 상이하다고는 하나 영유아 대상인 육아정책이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하여 육아정책의 범위는 돌봄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조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2. 1차년도 조사(KICCE POLL)의 주요 결과
3. 중앙 정부의 관련 육아정책 분석
4. 육아 관련 빅데이터 분석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관련 연구

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해 국내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여론조사 연구의 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연구 주제별로 초점 대상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대국민 조사는 주로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규모를 살펴보면, 최소 30명에서 2,000명까지 편차가 컸으며,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면접, 전화, 온라인, 이메일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조사들은 온라인, 이메일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표 II-1-1 여론조사 관련 선행 정책 연구과제

과제 명	조사 대상	조사 규모	표본추출 방법	조사 방법
교원능력평가 활용과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 3.)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513명	성·연령·지역별 할당표본추출 (quota sampling)	전화조사 (telephone interview)
	전국 초·중·고교 교원	총 500명	전국 초·중·고교 교원 무작위 표본추출 (random sampling)	
사교육비 및 사교육 의식 파악을 위한 학부모 여론 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2009. 12.)	전국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자녀 사교육 경험이 있는 자	유효표본 총 1,500명	지역별 × 학교급별 학생수 현황에 따른 비례할당표집 (quota sampling)1)	1:1 방문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2011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경제정보센터, 2010. 11.)	경제전문가(교수, 연구원, 기업인, 금융·투자분석가)	총 327명	-	e-mail 조사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1,000명	-	전화조사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과제 명	조사 대상	조사 규모	표본추출 방법	조사 방법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경제정보센터, 2011. 7.)	경제전문가(교수, 연구원, 기업인, 금융인, 투자분석가)	총 276명	-	e-mail 조사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1,000명	-	전화조사
남북교류협력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통일부, 2011. 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500명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random sampling)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국민 여론조사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 보고서 (안전행정부, 2013. 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유효표본 총 1,000명	-	임의전화번호 걸기(RDD)에 의한 가구전화와 이동전화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중표집틀 (dual frame) 방식의 전화면접조사(CATI)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유효표본 총 150명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
	국민 안전, 정부 운영, 지방 자치 분야 전문가(유관 학과 교수)	유효표본 총 30명	-	직접 방문, FAX, Email을 통한 심층 면접 조사(depth interview)
2015년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경찰청, 2015. 11.)	전국 16개 지방청별 112신고 접수자	총 800명	-	사전 LIST를 이용한 전화 설문
	전국 16개 시도별 일반시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총 800명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현장 설문
	전국 16개 지방청 소속 자율방범대	총 800명	-	사전 LIST를 이용한 전화 설문
	전국 30개 관할지역 일반 시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총 2,400명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현장 설문
	주요 5대 도시별 일반시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총 1,047명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현장 설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 (KEDI POLL 2017) (한국교육개발원, 2017)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남녀	총 2,000명	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	온라인 조사

주: 1) '도' 지역의 경우 중소도시/읍면지역을 고려하여 할당함.

2)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로,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하여 2017년 기준 12차 조사가 실시됨.

-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09. 3.). 교원능력평가 활용과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p. 2.
 2)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사교육비 및 사교육 의식 파악을 위한 학부모 여론 조사 결과. p. 2.
 3) 경제정보센터(2010. 11.). 2011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p. 1.
 4) 경제정보센터(2011. 7.).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pp. 1-2.
 5) 통일부(2011. 12.). 남북교류협력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요약). p. 1.
 6) 안전행정부(2013. 12.). 국민 여론조사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 보고서. pp. 4-6
 7) 경찰청(2015. 11.). 2015년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pp. 4-80.
 8) 한국교육개발원(20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7) p. 7.

나. 국외 관련 연구

국외 여론조사 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별 초점대상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규모는 약 500명 ~ 2,000명으로 편차가 크다. 조사 방법으로는 주로 전화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2 Ⅱ 국외 여론조사 관련 선행 정책 연구과제

과제 명	기관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방법	조사내용	조사기간
Parents' perceptions of child care in the United States (2006)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 (NACCRRA)	전국 거주 최소 한 명 이상의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부모	총 592명	전화조사	parents' views on quality child care/funding child care,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child care settings	2006.2.1-2006.2.14.
The economy's impact on parents' choices and perceptions about child care (2010)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 (NACCRRA)	전국의 12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부모	총 1,000명	전화조사	parents' views and experiences regarding child care as well as the types of changes they support to improv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affordable child care	2010.6.7-2010.6.16.
Parents' and teachers' attitudes and opinions on technology in education(2012)	LEAD Commission, Hart Research Associates	유치원~8학년 담당 공립학교 교사 812명/공립학교를 다니는 자녀(유치원~8학년)가 있는 부모	총 883명	온라인 조사 & 전화조사	perceptions toward technology in education	2012.8.9-2012.8.15. 2012.8.7-2012.8.13

과제 명	기관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방법	조사내용	조사기간
Canadian daycare desires (2013)	Institute of Marriage and Family Canada (IMFC)	캐나다인	총 2,022명	대표성 있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실시	daycare desires, daycare funding preferences	2013.1.25~2013.1.28
Californians & Education (2016)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PPIC)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성인	총 1,703명	전화조사	approval ratings of state elected officials, state funding, raising local school revenues, school quality, school teachers	2016.4.3~2016.4.12.
Child Care and Health in America (2016)	National Public Radio(NPR), 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5세 이하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총 1,120명	임의전화번호 걸기 (random-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조사	child care choice, child care experience and impact on child's health, impact of child care on parent and cost, impact on health of parents and work, assessment of child care options in the community, long-term impact of child care	2016.6.8~2016.8.7.
Parents 2017: Unleashing their power & potential(2017)	Learning Heroes	공립학교를 다니는 자녀(유치원~8학년)가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총 1,423명	온라인 조사 & 면접	parents' academic perceptions, expectations, child's academic progress	2017.3.22~2017.4.6. 2017.2.6~2017.2.10

자료: 1)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2006). Parents' perceptions of child care in the United States. p. 6, p. 9, p. 10, p. 11, p. 15.
2)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2010). The economy's impact on parents' choices and perceptions about child care. p. 1.
3) LEAD Commission, Hart Research Associates(2012). Parents' and teachers' attitudes and opinions on technology in education. p. 2.
4) Institute of Marriage and Family Canada(2013). Canadian daycare desires. p. 1, p. 6, e-pendix
5)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2016). Californians & Education. p. 23.
6) National Public Radio(NPR), 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2016). Child Care and Health in America. p. 17.
7) Learning Heroes(2017). Parents 2017: Unleashing their power & potential. p. 28.

다. 시사점

국내·외 여론조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1차년도 조사 범위인 만 15세 이상에서 만 19세로 수정하는 것이 대국민조사로서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차년도 연구의 조사 대상과 조사 방식은 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조사 대상과 방식은 연속과 제로써 시계열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1차년도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연구의 조사 대상은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1차년도 조사(KICCE POLL)의 주요 결과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제1차 육아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조사는 1회의 정기조사와 2회의 수시조사로 이루어졌다. 정기여론조사의 경우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부모됨, 양육관, 결혼관, 육아행복감, 유아교육·보육 정책, 정책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수시여론조사의 경우 영유아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가정 내 양육, 일·가정 양립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여론조사(KICCE POLL) 1차년도의 조사 특성을 다음 <표 II-2-1>에 제시하였다.

표 II-2-1 KICCE POLL 1차 조사 개요

조사차수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1차 (2017)	육아지원 정책에 따른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 및 인식과 체감 파악	<정기>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 국민 3,000명	<정기> 2017년 11월 7일~14일	온라인 조사
		<수시> 영유아 부모 500명	<수시> 2017년 12월 7일~11일	

자료: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5, p. 17, p. 22.

2017년에 실시된 1차 정기조사는 부모됨(부모됨 인식 및 역할, 부모 역할의 실제), 결혼 및 자녀 양육관(결혼 가치관, 결혼과 출산, 적정 자녀 수, 자녀에 대한

필요성, 양육 태도, 자녀양육 어려움, 자녀 교육관), 육아 행복감(육아행복감 및 가치, 양육의 경제적 가치, 양육의 책임), 정책 관련(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교사, 비용지원 정책, 아동학대 관련 의견,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세금 추가 부담 의사, 육아지원 정책 희망, 일-가정 양립 의견, 무상보육·교육정책 만족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등) 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세부 결과는 다음 <표 II-2-2>와 같다.

한편 1차 정기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본 조사대상의 젊은 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양육 및 가사에 있어 공평한 분담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사 대상자 가정에서는 부부 간 불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0~5세 전 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 전략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차년도 연구자는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층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으며,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육아정책 개선 과제로서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며, 0-5세 전 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도 재검토를 제기하였다.

■ 표 II-2-2 ■ KICCE POLL 1차 정기조사 결과(2017년)

영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주요 응답결과
부모됨	부모됨 인식 및 역할	1	부모됨에 대한 의견 (5점 평균)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3.27점)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3.53점)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3.45점)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3.35점)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2.64점)

영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주요 응답결과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2.92점)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3.00점)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반인식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68.8%) vs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31.2%)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36.3%) vs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63.7%)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시기	대학 졸업할 때까지(45.1%), 취업할 때까지(20.9%)
		4	부모 취업과 자녀양육 인식(5점 평균)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2.87점)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2.94점)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2.48점)
	부모역할의 실제	5	자녀양육 및 가사 적절수준 의견(비율)	〈자녀 양육〉 어머니(5.74) : 아버지(4.26) 〈가사〉 어머니(5.85) : 아버지(4.16)
		6	자녀양육 및 가사실제 분담 정도(영유아 부모 한정)	〈자녀 양육〉 어머니(6.86) : 아버지(3.14) 〈가사〉 어머니(6.81) : 아버지(3.19)
		7	자녀양육시기별 부모의 바람직한 경제활동 상태	-영유아 자녀: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74.7%) -초등학생 자녀: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47.5%) -중고등학생 자녀: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57.9%)
		8	(본인) 좋은 부모 인식 여부(5점 평균)	그렇다(40.4%), 그렇지 않다(13.6%), 평균 3.3점
		9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낳는 시기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시간을 더 둘 것이다 : 그렇지 않다(44.6%), 그렇다(37.5%)
		10	좋은 부모 가능성 전망(5점 평균)	그렇다(39.4%), 그렇지 않다(22.9%), 평균 3.21점
		11	좋은 부모 필요요건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40.7%),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35.8%)
결혼 및 자녀 양육관	결혼 가치관	12	결혼필요성	하는 편이 좋다(43.0%),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40.1%), 반드시 해야 한다(13.6%), 하지 않는 게 낫다(3.2%)
	결혼과 출산	13	결혼과 출산의 관계(4점 평균)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2.00점)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3.07점)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2.59점)

영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주요 응답결과
	적정 자녀 수	14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 및 자녀 성 선호도	-이상적인 자녀 수: 2.25명 -딸(1.29명), 아들(1.16명)
	자녀에 대한 필요성	15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45.6%), 꼭 있어야한다(32.7%), 없어도 무방하다(19.2%), 모름(2.5%)
		16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46.8%),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44.2%),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3.7%)
		17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26.4%),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20.7%),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17.0%),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13.4%)
	양육 태도	18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4점 평균)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 빠진다(3.06점)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2.56점)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2.82점)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3.15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54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2.37점)
	자녀양육 어려움	19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32.5%),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31.9%), 자녀의 심리적 안정(10.3%)
	자녀 교육관	20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32.6%),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26.8%),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삶(14.9%), 자녀가 좋은 직장(취직)(12.7%)
		21	자녀양육 선호도	-열정에 따라 사는 것 선호(34.1%), 경제 안정과 열정에 따라 사는 것의 중간 정도 수준(33.6%), 경제적인 안정 선호(32.4%) -친구가 되어주는 것 선호(69.4%),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것 중간(25.3%), 권위를 보여주는 것(5.3%)
육아 행복감	육아행복 감 및 가치	22	자녀양육 즐거움	자녀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40.1%),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30.3%),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정과 지지(27.6%)
		23	양육의 육아의 가치 및 자신감(4점 평균)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3.16점)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2.97점)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2.75점)

영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주요 응답결과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고 생각한다(3.07점)
	양육의 경제적 가치	24	영유아 육아의 경제적 가치 환산 금액	월 평균 239.59만원
	양육의 책임	25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76.1%),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한다(14.6%),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7.6%)
육아 정책	보육·유아교 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26	정부의 육아정책 설계 우선순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39.7%), 부모의 일·가정 양립(31.2%),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23.2%), 아이의 행복(5.8%)
		27	정부의 육아 재정지원 설계 우선순위	국가 재정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48.8%),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42.1%)
		28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인성 지도(65.6%), 안전한 보호(44.5%), 균형 있는 발달(34.9%), 자유놀이 중심 활동(24.7%), 급·간식 등 건강관리(14.4%)
		29	유치원·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어린이집〉 집과의 거리(41.7%), 학부모 비용부담(29.7%), 원장 및 교사(28.9%), 프로그램(26.5%), 주변평 판(25.9%), 운영시간(23.9%)
				〈유치원〉 집과의 거리(39.1%), 프로그램(33.3%), 학부모 비용부담(32.5%), 원장 및 교사(26.5%), 주변평 판(23.2%), 운영시간(18.8%)
	교사	30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5점 평균)	보육교사 3.02점, 유치원교사 3.20점
		31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인성이 좋은 교사(80.4%), 아이와의 상호작용 (78.7%), 교육·보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 사(20.6%),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13.9%)
	비용지원 정책	32	보육료·유아학비 등 육아비용 지원정책 인지 여부	-0-2세 보육료 지원: 알고 있음(61.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알고 있음(63.8%)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알고 있음 (59.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 일보육 등): 알고 있음(43.9%) -시간제 보육료 지원: 알고 있음(41.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알고 있음(42.1%)
	아동학대 관련 의견	3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25.8%), 부모 및 교 직원 대상 교육 실시(19.4%),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17.5%), 아동학대 위험아동 조기발견 노력 (12.1%)

영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주요 응답결과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34	영유아 사교육 근본 원인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 뒤쳐질까봐(60.4%),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58.6%),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26.2%)
		35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지속될 것임(79.2%), 잘 모르겠음(13.7%), 지속되지 않을 것임(7.1%)
	세금 추가 부담 의사	36	육아정책 관련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없음(39.3%), 있음(32.3%), 잘 모르겠음(28.4%)
		37	추가세금 부담에 대한 반대 이유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38.1%),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26.9%),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15.1%),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11.8%)
	육아지원 정책 희망	38	현재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56.4%),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49.9%),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49.7%), 유연근무제 확대(35.5%), 시간연장형 보육(32.0%),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22.2%)
	일-가정 양립 의견	39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인지여부〉 육아휴직(94.8%), 출산전후 휴가(89.7%), 직장 어린이집 (75.6%), 유연근무제(5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3.0%) 〈도움여부: 5점 평균〉 육아휴직(4.15점), 직장어린이집(4.09점), 출산전후 휴가(4.08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86점), 유연근무제(3.83점) 〈향후 이용의향〉 출산전후 휴가(92.5%), 육아휴직(9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8.8%), 유연근무제(88.7%), 직장어린이집(88.0%)
	무상보육·교육정책 만족도	40	무상보육·교육정책 만족도(5점 평균)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 3.36점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3.31점
		41	보육료·유아학비 불만족 시 불만족 이유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77.7%), 세금 부담 가중 우려(13.6%), 여전한 부모 부담(4.1%), 재정 지원 불안정(3.6%)
		42	양육수당 불만족 시 불만족 이유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79.8%), 세금 부담 가중 우려(14.0%), 여전한 부모 부담(3.4%), 부모 취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1.7%)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43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예상 정책효과(5점 평균)	〈중요도〉 -임신·출산 지원정책: 4.22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4.22점 -자녀돌봄 지원정책: 4.18점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4.09점 〈정책효과〉

영역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주요 응답결과
				-자녀돌봄 지원정책: 3.38점 -임신·출산 지원정책: 3.32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3.26점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3.21점
	추가 출산	44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추가 출산 영향 여부(5점 평균)	평균 3.03점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의견		45	아동수당 도입과 출산율과의 관계 (5점 평균)	보통 32.2%, 그렇지 않을 것이다 30.4%(평균 2.83점)
		46	아동수당 도입 적정 금액 및 적정 연령	〈지급 필요성〉 지급할 필요 있음(45.5%), 잘 모르겠음(40.7%), 지급할 필요 없음(13.8%) 〈적정 지급 연령 및 금액〉 평균 6.7세까지 월 평균 38.55만원 지급
	보육료 지불방식	47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는 형태에 대한 인식	정부는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 고 부모가 선택(42.2%), 정부가 어린이집·유치 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28.2%), 지금 그대 로 유지(28.0%)
안전한 사회		48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안전한 사회 인식 정도(5점 평균)	평균 2.75점
		49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불안 요인	범죄발생(64.2%), 빈부격차(40.7%), 도덕성 부 족(35.6%), 경제적 위험(20.7%), 환경오염 (12.3%)
	전반적 만족도	50	육아지원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5점 평균)	평균 3.08점

자료: 김동훈·이재화·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pp. 68-140.

2017년에 정기조사와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영유아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시조사는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관련(실제 기관 이용 시기 및 필요 시간, 어린이집 면적 적절성, 관련 정책 찬반 여부 등), 가정 내 양육(양육 참여자, 부모교육 및 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정부 정책, 보완점 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 <표 II-2-3>과 같다.

수시 조사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조사 대상의 경우 평균적으로 영유아의 적정 기관 이용 시간을 9.23시간으로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73.2%)이 본인이 응답한 적정 기본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 현재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영유아 수가 많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실이 작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가정 내 양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 양육지원센터 운영을 찬성하는 비율이 대다수였고,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절 근로시간을 6~7 시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본 수시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가구 특성에 맞게 비용지원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 배치 및 보육실 면적 기준의 조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정 내 양육 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양육지원센터의 동 단위 확대 및 양육 수당 인상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표 II-2-3 KICCE POLL 1차 및 2차 수시조사 결과(2017년)

영역	연번	문항내용 및 상세내용	주요 응답결과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정책 관련	1	적절한 기관 이용 시작 시기	평균 29.61개월
	2	원하는 기관 이용 시간	〈등원시간〉 08:31~09:00(33.0%), 10:01 이후(22.8%) 〈하원시간〉 16:01~17:00(24.4%), 15:01~16:00(21.8%) 〈원하는 기관 이용시간〉 평균 7.84시간
	3	보육료 전 계층 지급 여부가 기관 이용 시기에 미친 영향	영향을 미침(61.2%), 영향을 미치지 않음(24.0%), 잘 모르겠음(14.8%)
	4	교사 1인당 적절한 영유아 수 및 보육실 면적 의견(5점 평균)	-교사1인당 유아 담당기준: 3.39점 -교사1인당 영아 담당기준: 3.14점 -현재 영유아 수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크기: 2.16점
	5	국공립 기관 확대 계획 찬성여부	찬성(85.2%), 잘 모르겠음(9.2%), 반대(5.6%)
	6	직장어린이집 확대 계획 찬성여부	반대(44.2%), 찬성(42.4%), 잘 모르겠음(13.4%)
	7	어린이집, 유치원 만족도(5점 평균)	유치원(2.88점), 어린이집(2.81점)
	8	적절한 기관 기본이용시간 의견	평균 9.23시간
	9	기본이용시간 외 추가 비용 부담 의사	있음(73.2%), 없음(26.8%)
	10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수준 의견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여야 함(58.0%), 현 수준이 적절(33.2%), 현 수준보다 줄여야 함(3.4%)

영역	연번	문항내용 및 상세내용	주요 응답결과
가정 내 양육	11	배우자 이외 자녀양육 참여자	〈자녀 직접 돌보기〉 조부모(56.0%), 없음(39.2%), 친인척(3.4%) 〈경제적 지원〉 없음(68.2%), 조부모(28.6%), 친인척(2.6%) 〈가사 지원〉 없음(59.0%), 조부모(37.8%), 친인척(1.8%)
	12	부모교육 의무화 의견	찬성(77.6%), 반대(11.6%), 잘 모르겠음(10.8%)
	13	양육지원센터 도입 의견	찬성(85.4%), 잘 모르겠음(8.8%), 반대(5.8%)
	14	양육수당 지원 수준 의견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여야 함(65.6%), 현 수준이 적절(25.6%), 잘 모르겠음(5.0%), 현재 지원수준보다 줄여야 함(3.8%)
일·가정 양립	15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우선 정책	부모의 육아휴직 활성화(30.2%), 수준 높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19.2%), 국가 차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18.6%),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15.8%)
	16	가정 내 양육을 위한 정부의 우선 정책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44.4%),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21.2%),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14.6%), 가정 내 놀이 방법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9.0%)
	17	일·가정 양립에 대한 본인 직장 평가(적절성, 5점 평균)	평균 2.72점
	18	일·가정 양립 정책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	육아휴직제도(35.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26.6%) 장시간 근로 및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15.8%), 가족친화인증기준 개선(14.8%)
	19	영유아 가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절한 근로시간	평균 6.56시간

자료: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pp. 149-164.

3 중앙 정부의 관련 육아정책 분석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육아’ 및 ‘육아정책’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육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주요 육아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가. 교육부의 육아정책

2017년 12월 발표된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육아 관련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주요 정책분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아중심 교육문화 조성,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과제에서는 교육기회 평등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고 지원, 저소득 유아에 대한 국공립 우선입학 기회 제공,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 유치원 지정 확대,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과제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국공립 유치원의 여건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과제에서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방식 다양화,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유아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분야에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참여 강화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3-1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1-1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	①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
		②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기회 제공 확대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 취원 시 어린이집 수준으로 학비경감 추진
		③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 가정의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 유치원 지정 확대 추진 다문화유아 언어발달 지원, 일반유아의 통합·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유아와의 유대 형성 및 편견 해소 지원
		④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 교육 확대 운영 다문화 학부모 대상 언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 400개 이상 신·증설을 통해 통합교육 확대 장애중도·중복 유아 등이 유아교육 단계부터 원활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사립 통합유치원 설 립·지원
	1-2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①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단계적으로 신·증설 학교용자본 개정으로 유치원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추진
		② 국공립 유치원의 여건 개선 시·도교육청별 학급당 유아 수를 어린이집 수준(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으로 개선 농·산·어촌 유치원, 혼합연령 학급 등 원아충원율이 낮은 기관 개선방안 마련
1-3 간접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① 공영형 사립유치원 ¹⁾ 도입 '18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개발,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후, 단계적 확대
		②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 방식 다양화 민간경영자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마련하고, 위탁된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 전반을 공립에 준하게 운영
		③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활성화 소규모·설립자 위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학교법인 요건 및 지원책 마련 사립유치원 재인가 기간 단축 등과 병행 추진하여 현장 불편 최소화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교실현장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2-1 유아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	① 놀이·유아 중심의 교육 과정 혁신 계획된 수업에서 탈피하여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유놀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 누리과정 운영 개선방안 '18년도부터 실시, 교육과정 전면개편은 '18년 심화연구 후 '20년 개정·시행
		② 유아와 환경이 중심이 되는 혁신유치원 ²⁾ 확대 학부모, 교원, 유아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중심이 되는 협력체계 구축 방과후 놀이유치원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주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등 국·공·사립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 대폭 강화
		① 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 개편 유아의 놀이, 휴식, 언어, 신체발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시간 다양화 등 탄력적 모델 개발 유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방식 등 활용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 지정 단계적 확대
	2-2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② 공교육 혁신을 위한 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 영유아 대상 불법 학원 운영 지도·점검 내실화 "유치원 명칭" 무단 사용하는 사교육 기관 처분 및 정보공개, 부당광고 금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근거 신설
		① 학부모만심인종제 도입·운영 석면검사, 수질검사, 조리실 검사, 감염병 예방 점검 등을 포함한 학부모만심교육인종제를 도입·운영 희망 시·도교육청부터 자체 유치원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시범운영 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확대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3-1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환경 조성	①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 간 상담, 소통을 지원하여 유아에 대한 부모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가 참여·주도하는 수업기회 제공
	3-2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①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 시·도교육청별 병설유치원 행정인력 배치 기준 조정 등을 통해 병설유치원 행정인력 확충
	3-3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②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 현장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간접 바우처 형태의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 방식을 직접 바우처 결제 방식 등으로 개선 추진

주: 1) 공영형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2) 혁신유치원: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 공감과 지원으로 함께 유아중심의 혁신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사립 유치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7. 12. 27.). 출판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pp. 4-12.

나.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2017년 12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의하면, 주요 정책분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 질 관리체계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 어린이집의 관리역할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육 체계 개편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편,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분야에서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양육정보 제공 확대,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기관 확대, 지원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3-2 보건복지부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①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 신속 지원 단계 인상, 지자체 자체설치 시설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확실적인 국고보조율(50%)을 개선한 차등보조를 도입 검토 각 시·군·구별 연 1개소 이상 확충 및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수요 1천명 이상의 읍·면·동 우선 설치
		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식 다양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학교 내 유류 공간 등) 확보 기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 신규 도입
		③ ‘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추진 매년 확충 추이 점검과 함께 출산 동향,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따른 유아 수요 등 종합적 환경 고려를 통해 매년 목표 설정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1-2 공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① 공공립 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	위탁제 자격기준, 선정 절차 등 공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전반에 걸쳐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위탁제 선정 시 사회적 경제조직 및 공공기관을 우선 고려하고, 신규 설치시설의 개인위탁 최소화 공공립의 취약보육 운영 의무 확대
		신설·민간전환 과정에서 공공립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평가·현장실사 등을 수행 할 전담 지원체계 운영 공공보육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 추진 및 확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② 민간 전환 공공립 어린이집 등 질 관리체계 운영	①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사전 신고 방식으로 전환 등 설치의무 이행 수단 개편 확대 및 의무이행을 90%로 위탁보육을 예외적 허용으로 최소화하여 어린이집 직접적인 설치 확대 확대 사업장 내 보육수요를 고려한 최소 설치기준 마련
		②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지자체 협업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중소기업(산업단지형 포함)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1-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①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공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회계투명성 확보, 수요자 중심 성 강화 등 관리 강화 여량 있는 보육교사 확보 등을 통해 우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지원기준 인상
		보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 등을 통해 협동조합 설치·운영 등 지원방안 마련
	②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 주체 참여 보장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의 공공립 전환 등 시설유형 간 조정을 위한 지원방안과 법 체계 개선 검 토 연구 실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원장 배출을 위해 원장 자격 기준 요건 강화 원장을 보조하여 어린이집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할 중간관리직 신설
1-4 어린이집 운영의 간접성 제고	③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어린이집의 부채 인정 비율(50)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0%)으로 개선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기타운영비 등의 지출한도액을 보육료 수입의 15% 이하로 축소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
	④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고,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다 양화
		어린이집 보육시간에 맞춘 등·하원 시간 규정 및 준수 유도
보육 체계 개편	2-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	부모의 이용의사, 이용시간과 무관한 보육료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어린이집 이용 시 자발적·합리적 부모 선택이 가능한 기제 도입 보상체계 마련(‘18~) 보육료 지원과의 연계로 보육시간에 적합한 보육 서비스 제공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2-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①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과거 '14년 계측 이후 고가의 물가변화와 시설 규모·유형, 지역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보육료 산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계측 주기와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 검토 ② 적정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 기준 정비 표준보육비용을 토대로 적정 보육료 지급기준 마련 경력 교직원 채용과 적정 인건비 지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방안 검토
	2-3 보육과정 개선	①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 환경변화를 반영해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춘 표준보육과정 개정 추진 특히,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 보장 보육교사 양성 과정 및 직무교육 반영, 보육과정 컨설팅, 평가제 반영 등 관련제도 연계 강화 ② 특별활동 개선 및 운영 합리화 특별활동 평가인증 반영 개선으로 어린이집의 과도한 특별활동 참여 유인 방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부모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활동 운영기준 개선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 제도 도입 검토
	3-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①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재편하여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격차 해소 추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유아교사 자격 신설 방안 검토 ②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 신규진입, 경력단절 후 복귀, 보수교육 이수횟수 등을 고려한 보수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필요과목 선택적 이수 등 보수교육 과정 구성방식 개선 ③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 교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육과정 준비시간이 확보되도록 새 학기 시작 전 '어린이집 방학' 도입 검토 보수교육 총괄관리기관 운영 및 보수교육 기관 평가·관리 보육교사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보육교사 이력 종합 관리체계 구축 및 연차별 맞춤형 보수교육 지원
	3-2 보육교사 적정 차우 보장	①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수준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 추진 보육교사 적정 근로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보장 체계 마련 ②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 담당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 연가 등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확대 및 지원역할 강화 추진 ③ 교사 업무부담 경감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출결관리, 보육료 신청 등 전산을 통해 자동화 가능한 사항 개발 보육교사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실시
	3-3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	①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개편 방안 마련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겸직 원장' 허용범위 축소, 탄력보육 최소화 ②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유치원과과의 설치기준 격차 해소 추진 보육실 면적기준을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재설정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부모 양육지원 확대	3-4 상시적 품질 관리 강화	①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평가등급, 내용 등 주요 정보 부모제공으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②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 지도점검(법령위반)·평가제(품질평가)·컨설팅(개선지원) 간 유사·중복 기능 정비 및 연계 강화 지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③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관리 강화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대상 안전사고 예방·대응교육 다양화로 각종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식약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지속 실시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범부처 협조체계 확대
	4-1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지원	④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열린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15% 이상으로 확 산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연계해 중앙부처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 전담인력 배치 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운영 활성화
		① 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 부모 양육수준별, 자녀 발달상황별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자녀 양육관련 정보 제공안내 확대 '부모교육 수료증' 발급 및 인센티브 구조 설계
4-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②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 확산으로 부모 지원 확대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교구 지원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센터 간 기능 재개편 문화센터·복지센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반 확대 방안 모색 시간제 보육 시설 수요와 지역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보육반을 점진적으로 확대	
	4-3 취약보육 지원 개선	② 시간제 보육 지원기준 개선 맞벌이형·기본형으로 이원화된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부모의 이용 부담완화 및 편의 제고
		①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 및 실태조사 보육 취약계층의 수요와 어린이집의 지원현황 분석을 위한 취약보육 실태조사 실시 영유아 대상별 특성과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의 대상 재검토
		다문화이동 통합보육을 위한 여건 개선 장애영유아에대한 지원 확대(장애아보육 제공기관 확대, 장애이전담 보육 교사자격 및 양성 체계 정비)

자료: 보건복지부(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p. 19-35.

다.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2018년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육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지도 확대,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정책분야를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보편적·통합적 가족정책으로의 전환, 위기가족 지원체계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대기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서 한부모·미혼모 자녀의 안정적 양육 지원,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상담서비스 확충, 다문화 가족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3-3 | 2018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① 취약가족 우주에서 보편적·통합적 가족정책으로 전환 가족정책의 대상과 기능변화에 따른 핵심 추진과제 발굴 및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 보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로 지역사회 가족돌봄 허브기능 강화 범시민 참여를 위한 「가족시민회의(가정)」 등 개최로 가족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
		②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위기가족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등 위기가족 조기발견,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및 사후관리 제공 자녀 체벌 등 아동학대 및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 교육 확대
	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 추진(시범운영)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 지자체는 돌봄공간 확보, 기업은 공간 리모델링 지원, 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민간 거버넌스 협력모델 구축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및 운영시간, 규모, 형태 등 다양화 모델 시범운영 추진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다양한 가족의 양육 및 지원 확대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을생활권 단위로 나눔터 공간 확산	공공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로 확대 추진 일정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나눔터 공간을 의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③ 품앗이 참여 부모,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돌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경력단절 및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 창출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육아의 국가책임성 강화	① 맞벌이·한부모 등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비용 상향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시간 확대
		② 아이돌보미 대기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집중시간대를 설정하고, 해당 시간대에 아이돌보미 우선투입으로 대기수요 해소 보육시설, 학교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 파견 및 1:다(多) 서비스 제공 지역별 맞춤형,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③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돌봄 수당 지속 인상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처우를 유사 돌봄 서비스 수준으로 개선 양성·보수교육 내실화, 경력사유 확인 등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다양한 가족의 양육 및 지원 확대	① 한부모·미혼모 자녀의 안정적 양육 지원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현실화(양육비 정부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확대 등) 미혼모 등에게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 지원
		② 한부모·비혼 가정 등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비양육부모 양육비 이행 책임성 제고로 양육 부담 완화 자발적 양육비 이행 위한 면접교섭 실행 매뉴얼 개발·보급
		③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상담서비스 확충 법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이혼 전·후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추진 비혼 임신여성 상담매뉴얼 개발 및 상담서비스 시범 실시
		④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한부모 가족의 날(5.10)」제정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 혼인 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발굴·개선 추진 다양한 가족 편견·차별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 및 단체활동 지원

정책분야	정책과제	내용
다문화 가족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확대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 불법 국제결혼중개 처벌 등 현지 인권보호 감시체계 및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24시간 지원
	②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부처 간 정책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상시 협력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정책참여 거버넌스 확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18-’22)」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유사 중복사업 점검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
	③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사례 및 지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구 추진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정책 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④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기관 간 협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⑤ 다문화가족 자녀를 미래인재로 육성 추진	이중언어 인재 발굴 확대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연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확대 하행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합업전업을 돕는 찾아가는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정착 지원 및 진로지원 강화
	⑥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등 대민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확대

자료: 여성가족부(2018. 1.).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pp. 18-24

4 육아 관련 빅데이터 분석

본 절에서는 육아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툴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서 검색량 추이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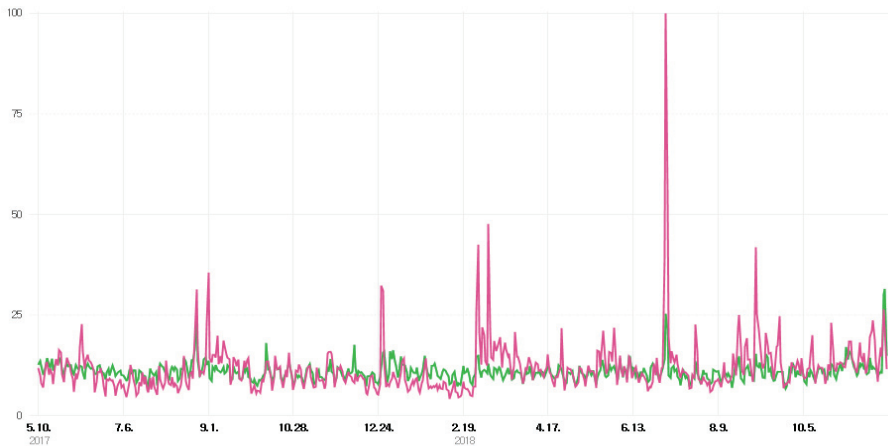
가. 트렌드 분석(2016.1.1.~2018.10.30.)

한국 포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랩 검색 서비스는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의 PC 통합검색 횟수와 모바일 통합검색 횟수를 각각 1~100의 지수로 환산해서 주간별 지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곽재현·홍지숙, 2018).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 분석을 통해 관심도를 확인하였다. 네이버의 데이터랩의 자료수집 기간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 5. 10 ~ 2018 11. 30까지로 설정했다.

1) 출산/저출산 관련 키워드

네이버 데이터랩을 사용하여 ‘출산’과 ‘저출산’의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등락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지만 2018년 7월 ‘저출산 관련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 아동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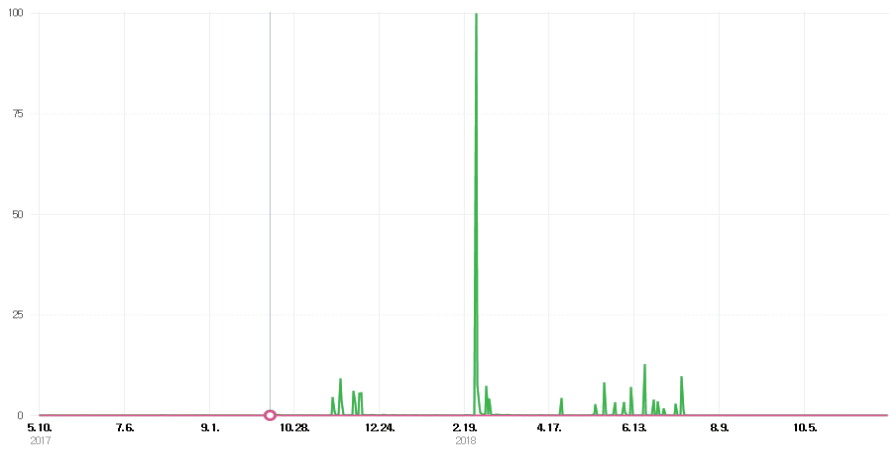
■ 그림 II-4-1 ■ 네이버 트렌드의 출산/저출산 관련 주제어 검색 결과
(2017. 5. 10~2018. 11. 30.)



최근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계획한 대책으로 미취학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내지 않도록 추진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을 2021년으로 1년 앞당기며, 돌봄서비스 대기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등의 개편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7)을 담고 있어 이후 추진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의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2월 '근로시간 단축'의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8년 2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휴일수당 명확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진 것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2022년까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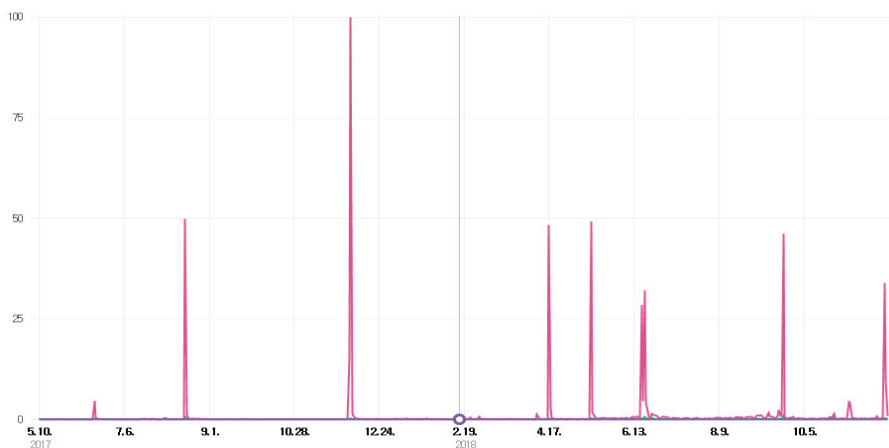
■ **그림 II-4-2** ■ 네이버 트렌드의 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관련 주제어 검색 결과
(2017. 5. 10~2018. 11. 30.)



2) 육아 정책 관련 주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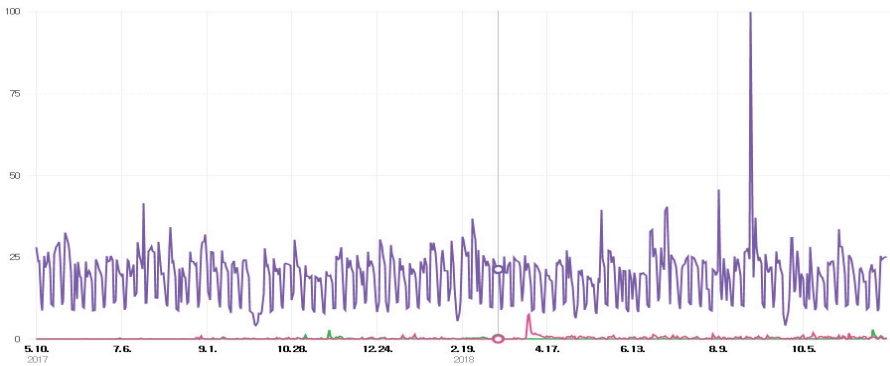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정책 중에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누리과정비’의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 당·정·청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2018년 12월 급증했다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시기와 맞물려 검색량이 간헐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그림 II-4-3** ■ 네이버 트렌드의 양육수당/아동수당/누리과정비 관련 주제어 검색 결과
(2017. 5. 10~2018. 11. 30.)



한편 ‘방과후 과정’, ‘온종일 돌봄’, ‘아이돌보미’의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폭으로 등락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지만 2017년 8월 ‘아이돌보미’의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2017년 9월부터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되기도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기간에 대한 불만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II-4-4 ■ 네이버 트렌드의 방과후과정/온종일돌봄/아이돌보미 관련 주제어 검색 결과
(2017. 5. 10~2018. 11. 30.)



나. 워드클라우드 분석

텍스트마이닝 방법은 비정형 텍스트를 군집화, 분류, 요약하는 것(김종성, 2017)으로 대국민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블로그, 네이버/다음카페, 페이스북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최근 3년(2016. 1. 1 ~ 2018 11. 30)으로, 이를 문제인 정부 출범 전후로 나누어 문정부 출범 이전인 2016. 1. 1 ~ 2017. 5. 9, 문정부 출범 이후인 2017. 5. 10 ~ 2018. 11. 30까지의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1) 육아

최근 3년간 ‘육아’와 관련한 상위 20개의 키워드에는 ‘아이’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다음으로 엄마, 아기, 시간, 출산, 오늘, 일기, 용품, 아빠, 생각, 정보, 임신, 요즘, 카페, 시작, 육아휴직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인 정부 이전과 이후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육아휴직’이라는 키워드가 문정부 이전보다 많이 등장한다. 이는 문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강조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일부 기대감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 그림 II-4-5 ■ 육아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 그림 II-4-6 ■ 육아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2) 육아환경

최근 3년간 ‘육아환경’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다음으로 아기, 친환경, 엄마, 출산, 사용, 시간, 교육, 생각, 호르몬, 부모, 지원, 아이들, 제품, 안전, 건강, 여성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부 이전과 이후에도 관련어의 출현 경향은 유사했으나 ‘친환경’에 대한 검색 빈도가 다소 증가했다.

■ 그림 II-4-7 ■ 육아환경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 그림 II-4-8 ■ 육아정책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3) 출산

최근 3년간 ‘출산’과 관련한 상위 20개의 키워드에는 ‘임신’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다음으로 아기, 선물, 준비, 저출산, 육아, 여성, 용품, 엄마, 결혼, 산모, 건강, 사용,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출산’이라는 키워드가 문정부 이전보다 많이 등장한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그림 II-4-9 ■ 출산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 그림 II-4-10 ■ 출산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4) 저출산

최근 3년간 ‘저출산’과 관련한 상위 20개의 키워드에는 ‘고령’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다음으로 문제, 사회, 출산, 인구, 정책, 시대, 대책, 극복, 해결, 정부, 국가, 감소, 경제, 지원, 증가, 아이, 결혼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부 이전과 이후에도 관련어의 출현 경향은 유사하다.

■ 그림 II-4-11 ■ 출산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 그림 II-4-12 ■ 출산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5) 어린이집

최근 3년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다음으로 아이, 아이들, 시간, 오늘, 친구, 엄마, 선물, 어린이, 선생님, 국공립, 직장, 교육, 보육,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공립’이라는 키워드가 문정부 이전보다 많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대국민 관심도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II-4-13 어린이집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그림 II-4-14 어린이집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6) 유치원

최근 3년간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다음으로 아이, 아이들, 시간, 친구, 오늘, 교육, 학교, 엄마, 초등학교, 시각, 선생님, 선물, 어린이,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부 이전과 이후에도 관련어의 출현 경향은 유사했으며,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 ‘초등학교’와 같은 관련어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기관으로써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초등학교에 병설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4-15 유치원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그림 II-4-16 유치원 관련 키워드
(문재인정부 이전)



III

2차년도 KICCE 정기 여론조사 결과

1. 출산 및 저출산에 대한 의견
2. 영유아 부모의 육아 현황
3. 육아정책 인지 및 의견
4. 육아정책 현안 및 방향에 대한 의견
5. 소결



Ⅲ. 2차년도 KICCE 정기 여론조사 결과

1 출산 및 저출산에 대한 의견

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및 정책 효과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그리고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1-1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 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40.4	44.9	11.9	2.1	0.7	100.0(3,000)	4.22
성별 구분							
남자	40.1	44.1	12.0	2.8	1.0	100.0(1,522)	4.20
여자	40.7	45.7	11.7	1.5	0.3	100.0(1,478)	4.25
X ² (df)/t			10.97(4)*				1.88
연령							
10대 이하	53.4	36.2	6.9	1.7	1.7	100.0(58)	4.38
20대	48.3	39.6	10.6	1.4	0.2	100.0(632)	4.34
30대	34.9	44.1	16.4	3.7	1.0	100.0 (519)	4.08
40대	31.1	50.8	15.2	2.1	0.8	100.0(630)	4.09
50대	42.6	47.2	7.4	1.6	1.3	100.0(625)	4.28
60대 이상	43.7	43.3	10.8	2.2	0.0	100.0(536)	4.28
X ² (df)/F			90.21(20)***				11.65***
혼인 여부							
미혼	48.4	41.1	8.8	1.4	0.3	100.0(579)	4.36
배우자 있음	38.5	45.6	12.7	2.4	0.7	100.0(2,312)	4.19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배우자 없음	39.4	49.5	10.1	0.0	0.9	100.0(109)	4.27
$X^2(df)/F$			26.01(8)**				11.09***
영유아자녀유무							
유	34.7	43.6	17.4	3.3	1.0	100.0(582)	4.08
무	40.2	46.7	10.3	2.1	0.8	100.0(1,534)	4.23
$X^2(df)/t$			23.98(4)***				4.00***
취업 여부							
취업	38.8	45.3	12.5	2.7	0.7	100.0(2,139)	4.19
미취업	44.1	44.2	10.3	0.8	0.6	100.0(785)	4.30
$X^2(df)/t$			16.53(4)**				3.53***
맞벌이 유무							
맞벌이	38.0	45.3	13.1	2.8	0.7	100.0(1,350)	4.17
맞벌이 아님	39.2	46.0	12.2	1.9	0.7	100.0(962)	4.21
$X^2(df)/t$			2.7(4)				1.20
가구소득 ¹⁾							
60% 미만	45.2	42.7	10.1	1.4	0.7	100.0(919)	4.30
60 - 80% 미만	40.4	44.9	12.5	1.6	0.7	100.0(441)	4.23
80 - 100% 미만	41.4	44.0	13.2	1.0	0.5	100.0(418)	4.25
100 - 120% 미만	33.1	48.8	14.9	2.2	1.1	100.0(363)	4.10
120 - 140% 미만	39.6	46.4	11.4	2.0	0.6	100.0(351)	4.23
140 - 160% 미만	37.4	44.2	14.2	4.2	0.0	100.0(190)	4.15
160% 이상	36.8	46.9	10.1	5.3	0.9	100.0(318)	4.13
$X^2(df)/F$			49.81(24)**				4.0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임신·출산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5%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가장 낮았다. 연령과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 2) 임신·출산 지원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50.5	37.7	9.5	1.6	0.7	100.0(3,000)	4.36
성별 구분							
남자	50.9	36.9	9.3	2.0	0.9	100.0(1,522)	4.35
여자	50.1	38.5	9.7	1.2	0.5	100.0(1,478)	4.36
$X^2(df)/t$			5.45(4)				0.53
연령							
10대 이하	53.4	31.0	12.1	0.0	3.4	100.0(58)	4.31
20대	60.6	29.0	8.2	1.9	0.3	100.0(632)	4.48
30대	54.9	35.1	8.1	1.7	0.2	100.0(519)	4.43
40대	43.7	42.5	11.6	1.1	1.1	100.0(630)	4.27
50대	42.7	43.7	11.0	1.6	1.0	100.0(625)	4.26
60대 이상	50.9	38.6	8.0	1.9	0.6	100.0(536)	4.38
$X^2(df)/F$			75.17(20)***				7.95***
혼인 여부							
미혼	49.7	37.0	10.7	1.7	0.9	100.0(579)	4.33
배우자 있음	50.7	37.8	9.2	1.6	0.7	100.0(2,312)	4.36
배우자 없음	49.5	38.5	11.0	0.9	0.0	100.0(109)	4.37
$X^2(df)/F$			2.99(8)				0.42
영유아자녀유무							
유	58.8	33.2	6.4	1.5	0.2	100.0(582)	4.49
무	45.4	41.7	10.3	1.6	0.9	100.0(1,534)	4.29
$X^2(df)/t$			33.51(4)***				-5.28***
취업 여부							
취업	50.9	37.5	9.3	1.5	0.7	100.0(2,139)	4.36
미취업	48.9	39.0	9.7	1.7	0.8	100.0(785)	4.34
$X^2(df)/t$			0.93(4)				-0.86
맞벌이 유무							
맞벌이	51.9	36.9	9.0	1.5	0.7	100.0(1,350)	4.38
맞벌이 아님	49.0	39.2	9.4	1.8	0.7	100.0(962)	4.34
$X^2(df)/t$			2.14(4)				-1.24
가구소득 ¹⁾							
60% 미만	51.4	36.5	10.0	1.3	0.9	100.0(919)	4.36
60 - 80% 미만	54.0	34.0	9.8	1.6	0.7	100.0(441)	4.39
80 - 100% 미만	50.7	37.6	8.9	1.9	1.0	100.0(418)	4.35
100 - 120% 미만	51.5	39.7	8.0	0.8	0.0	100.0(363)	4.42
120 - 140% 미만	51.3	37.6	8.8	1.7	0.6	100.0(351)	4.37
140 - 160% 미만	45.3	43.2	8.9	1.6	1.1	100.0(190)	4.30
160% 이상	43.7	41.2	11.6	2.8	0.6	100.0(318)	4.25
$X^2(df)/F$			22.11(24)				1.83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1$.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자녀 돌봄 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그리고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 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43.5	44.5	10.3	1.1	0.7	100.0(3,000)	4.29
성별 구분							
남자	40.1	45.5	12.2	1.4	0.9	100.0(1,522)	4.22
여자	47.0	43.5	8.3	0.7	0.5	100.0(1,478)	4.36
X ² (df)/t			24.52(4)***				4.88***
연령							
10대 이하	46.6	31.0	19.0	0.0	3.4	100.0(58)	4.17
20대	50.3	37.8	9.7	1.7	0.5	100.0(632)	4.36
30대	57.8	33.3	7.5	1.0	0.4	100.0(519)	4.47
40대	38.9	47.8	11.7	1.0	0.6	100.0(630)	4.23
50대	32.2	53.4	12.8	0.5	1.1	100.0(625)	4.15
60대 이상	39.7	50.4	8.0	1.5	0.4	100.0(536)	4.28
X ² (df)/F			127.46(20)***				12.88***
혼인 여부							
미혼	42.0	42.7	12.4	1.9	1.0	100.0(579)	4.23
배우자 있음	43.8	44.9	9.8	0.9	0.6	100.0(2,312)	4.30
배우자 없음	45.0	45.0	9.2	0.9	0.0	100.0(109)	4.34
X ² (df)/F			10.49(8)				2.74
영유아자녀유무							
유	59.3	32.6	7.0	0.5	0.5	100.0(582)	4.50
무	36.4	51.4	10.6	0.9	0.7	100.0(1,534)	4.22
X ² (df)/t			90.58(4)***				-7.98***
취업 여부							
취업	44.6	43.6	9.9	1.3	0.6	100.0(2,139)	4.30
미취업	40.5	46.8	11.2	0.6	0.9	100.0(785)	4.25
X ² (df)/t			7.44(4)				-1.57
맞벌이 유무							
맞벌이	46.6	41.8	10.3	0.8	0.5	100.0(1,350)	4.33
맞벌이 아님	39.8	49.4	9.0	1.0	0.7	100.0(962)	4.27
X ² (df)/t			14.74(4)**				-2.14*
가구소득 ¹⁾							
60% 미만	43.1	43.3	11.2	1.5	0.9	100.0(919)	4.26
60 - 80% 미만	44.9	43.8	9.3	1.1	0.9	100.0(441)	4.31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80 - 100% 미만	41.9	46.7	10.0	0.7	0.7	100.0(418)	4.28
100 - 120% 미만	44.1	45.2	9.6	1.1	0.0	100.0(363)	4.32
120 - 140% 미만	45.6	44.7	8.5	0.3	0.9	100.0(351)	4.34
140 - 160% 미만	42.6	45.8	10.5	1.1	0.0	100.0(190)	4.30
160% 이상	42.1	44.3	11.6	1.3	0.6	100.0(318)	4.26
$X^2(df)/F$			14.00(24)				0.7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그리고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표 III-1-4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 - 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39.2	42.6	16.1	1.6	0.5	100.0(3,000)	4.19
성별 구분							
남자	35.3	44.0	18.1	1.9	0.7	100.0(1,522)	4.11
여자	43.3	41.2	14.0	1.2	0.3	100.0(1,478)	4.26
$X^2(df)/t$			26.72(4)***				5.15***
연령							
10대 이하	46.6	31.0	20.7	0.0	1.7	100.0(58)	4.21
20대	50.0	34.8	13.0	1.7	0.5	100.0(632)	4.32
30대	50.5	35.6	12.5	1.2	0.2	100.0(519)	4.35
40대	34.1	47.1	16.8	1.3	0.6	100.0(630)	4.13
50대	29.3	49.4	19.0	1.4	0.8	100.0(625)	4.05
60대 이상	32.5	46.6	18.3	2.4	0.2	100.0(536)	4.09
$X^2(df)/F$			114.65(20)***				14.54***
혼인 여부							
미혼	39.6	42.7	15.4	1.4	1.0	100.0(579)	4.18
배우자 있음	39.4	42.5	16.1	1.6	0.4	100.0(2,312)	4.19
배우자 없음	33.9	45.9	19.3	0.9	0.0	100.0(109)	4.13
$X^2(df)/F$			6.91(8)				0.30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영유아자녀유무							
유	53.3	33.3	12.0	1.2	0.2	100.0(582)	4.38
무	31.7	47.7	18.2	1.9	0.5	100.0(1,534)	4.08
$X^2(df)/t$			83.75(4)***				-7.96***
취업 여부							
취업	39.7	42.4	15.6	1.8	0.5	100.0(2,139)	4.19
미취업	38.9	42.9	16.8	0.9	0.5	100.0(785)	4.19
$X^2(df)/t$			3.83(4)				-0.05
맞벌이 유무							
맞벌이	42.1	41.8	14.3	1.6	0.3	100.0(1,350)	4.24
맞벌이 아님	35.7	43.5	18.6	1.8	0.5	100.0(962)	4.12
$X^2(df)/t$			13.61(4)**				-3.57***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1$, *** $p < .001$.

중요도(5점 척도)가 가장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4.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 돌봄 지원 정책 4.29점,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4.22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4.19점 순이었다.

표 III-1-5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 지 않음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수	평균
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40.4	44.9	11.9	2.1	0.7	100.0(3,000)	4.22
2) 임신·출산 지원 정책	50.5	37.7	9.5	1.6	0.7	100.0(3,000)	4.36
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43.5	44.5	10.3	1.1	0.7	100.0(3,000)	4.29
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39.2	42.6	16.1	1.6	0.5	100.0(3,000)	4.19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의 정책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3%로 가장 높았고, 매우 효과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그리고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 - 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3.6	19.1	45.3	24.8	7.2	100.0(3,000)	2.80
성별 구분							
남자	3.5	17.5	42.8	26.9	9.3	100.0(1,522)	2.79
여자	3.7	20.7	47.8	22.7	5.1	100.0(1,478)	2.95
X ² (df)/t			32.14(4)***				4.86***
연령							
10대 이하	13.8	22.4	41.4	15.5	6.9	100.0(58)	3.21
20대	4.1	19.3	48.6	21.0	7.0	100.0(632)	2.93
30대	2.5	14.6	47.6	26.2	9.1	100.0(519)	2.75
40대	3.3	17.9	48.9	24.0	5.9	100.0(630)	2.89
50대	2.7	19.2	43.2	27.8	7.0	100.0(625)	2.83
60대 이상	4.3	23.9	37.9	26.5	7.5	100.0(536)	2.91
X ² (df)/F			58.25(20)***				4.20**
혼인 여부							
미혼	5.0	18.7	45.9	23.1	7.3	100.0(579)	2.91
배우자 있음	3.3	19.0	45.4	25.2	7.1	100.0(2,312)	2.86
배우자 없음	2.8	22.9	40.4	25.7	8.3	100.0(109)	2.86
X ² (df)/F			6.61(8)				0.67
영유아자녀유무							
유	4.1	15.6	49.1	23.0	8.1	100.0(582)	2.85
무	3.5	20.7	43.0	25.9	6.9	100.0(1,534)	2.88
X ² (df)/t			11.88(4)*				0.72
취업 여부							
취업	3.3	18.5	45.1	25.6	7.6	100.0(2,139)	2.84
미취업	4.3	20.1	46.1	23.1	6.4	100.0(785)	2.93
X ² (df)/t			5.22(4)				2.23*
맞벌이 유무							
맞벌이	3.3	18.2	45.1	26.4	7.0	100.0(1,350)	2.84
맞벌이 아님	3.3	20.1	45.7	23.6	7.3	100.0(962)	2.89
X ² (df)/t			2.82(4)				1.10
가구소득 ¹⁾							
60% 미만	4.0	20.1	44.3	23.8	7.7	100.0(919)	2.89
60 - 80% 미만	3.2	19.3	47.8	23.1	6.6	100.0(441)	2.89
80 - 100% 미만	2.6	21.1	46.2	22.2	7.9	100.0(418)	2.88
100 - 120% 미만	3.3	17.6	51.2	22.3	5.5	100.0(363)	2.91
120 - 140% 미만	5.1	17.1	45.3	27.1	5.4	100.0(351)	2.89
140 - 160% 미만	3.2	16.3	44.2	27.9	8.4	100.0(190)	2.78
160% 이상	3.1	18.6	37.4	32.1	8.8	100.0(318)	2.75
X ² (df)/F			32.37(24)				1.45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7%로 가장 높았고, 매우 효과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그리고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 - 2) 임신·출산 지원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4.8	19.1	37.7	28.2	10.3	100.0(3,000)	2.80
성별 구분							
남자	5.0	17.9	34.4	29.9	12.8	100.0(1,522)	2.72
여자	4.5	20.3	41.1	26.5	7.6	100.0(1,478)	2.88
X ² (df)/t			34.12(4)***				4.11***
연령							
10대 이하	10.3	15.5	41.4	24.1	8.6	100.0(58)	2.95
20대	5.2	15.5	35.6	31.6	12.0	100.0(632)	2.70
30대	3.9	18.9	34.3	27.4	15.6	100.0(519)	2.68
40대	3.3	17.6	42.9	27.6	8.6	100.0(630)	2.80
50대	3.2	20.0	40.3	28.6	7.8	100.0(625)	2.82
60대 이상	8.0	24.6	33.8	25.6	8.0	100.0(536)	2.99
X ² (df)/F			76.41(20)***				6.74***
혼인 여부							
미혼	4.5	14.9	37.3	30.1	13.3	100.0(579)	2.67
배우자 있음	4.8	20.1	37.8	27.8	9.5	100.0(2,312)	2.83
배우자 없음	4.6	20.2	36.7	27.5	11.0	100.0(109)	2.80
X ² (df)/F			14.50(8)				5.68**
영유아자녀유무							
유	6.4	19.2	35.2	27.0	12.2	100.0(582)	2.81
무	4.8	21.1	38.7	27.2	8.1	100.0(1,534)	2.87
X ² (df)/t			11.65(4)*				1.31
취업 여부							
취업	4.7	18.8	37.2	28.5	10.8	100.0(2,139)	2.78
미취업	4.8	20.3	38.9	27.1	8.9	100.0(785)	2.85
X ² (df)/t			3.32(4)				1.60
맞벌이 유무							
맞벌이	4.7	19.6	37.0	29.2	9.6	100.0(1,350)	2.80
맞벌이 아님	5.1	20.9	39.0	25.8	9.3	100.0(962)	2.87
X ² (df)/t			3.75(4)				1.49
가구소득 ¹⁾							
60% 미만	5.2	17.4	38.6	27.1	11.6	100.0(919)	2.77
60 - 80% 미만	4.5	18.8	42.2	24.7	9.8	100.0(441)	2.84
80 - 100% 미만	4.5	19.9	38.0	27.3	10.3	100.0(418)	2.81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100 - 120% 미만	5.0	21.5	36.9	28.7	8.0	100.0(363)	2.87
120 - 140% 미만	6.0	19.1	39.3	27.9	7.7	100.0(351)	2.88
140 - 160% 미만	3.2	20.5	29.5	36.8	10.0	100.0(190)	2.70
160% 이상	3.5	19.8	32.1	32.1	12.6	100.0(318)	2.69
$X^2(df)/F$			32.39(24)				1.6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자녀 돌봄 지원 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7%로 가장 높았고, 매우 효과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그리고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1-8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 - 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5.7	24.8	41.7	21.1	6.7	100.0(3,000)	3.02
성별 구분							
남자	5.5	23.8	40.3	21.8	8.6	100.0(1,522)	2.96
여자	6.0	25.8	43.2	20.3	4.8	100.0(1,478)	3.08
$X^2(df)/t$			19.89(4)**				3.40**
연령							
10대 이하	13.8	12.1	44.8	24.1	5.2	100.0(58)	3.05
20대	4.7	16.8	44.6	23.9	10.0	100.0(632)	2.82
30대	5.4	17.7	40.3	25.4	11.2	100.0(519)	2.81
40대	5.9	24.4	44.9	20.6	4.1	100.0(630)	3.07
50대	3.8	31.0	41.1	19.0	5.0	100.0(625)	3.10
60대 이상	8.2	35.4	36.4	16.0	3.9	100.0(536)	3.28
$X^2(df)/F$			145.42(20)***				19.28***
혼인 여부							
미혼	5.0	17.1	45.4	22.8	9.7	100.0(579)	2.85
배우자 있음	6.0	26.3	40.9	20.6	6.1	100.0(2,312)	3.06
배우자 없음	2.8	32.1	39.4	21.1	4.6	100.0(109)	3.07
$X^2(df)/F$			33.96(8)***				10.50***
영유아자녀유무							
유	7.9	19.9	39.5	23.7	8.9	100.0(582)	2.94
무	5.7	31.4	40.6	17.7	4.5	100.0(1,534)	3.16
$X^2(df)/t$			45.27(4)***				4.66***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취업 여부							
취업	6.1	24.8	40.1	21.6	7.4	100.0(2,139)	3.01
미취업	5.0	25.0	46.0	19.2	4.8	100.0(785)	3.06
$X^2(df)/t$			13.18(4)*				1.33
맞벌이 유무							
맞벌이	7.0	24.2	39.4	22.4	7.0	100.0(1,350)	3.02
맞벌이 아님	4.7	29.3	43.0	18.2	4.8	100.0(962)	3.11
$X^2(df)/t$			21.66(4)***				2.24*
가구소득 ¹⁾							
60% 미만	4.9	22.3	44.5	20.2	8.1	100.0(919)	2.96
60 - 80% 미만	4.3	26.5	42.4	20.9	5.9	100.0(441)	3.02
80 - 100% 미만	6.0	27.5	41.4	18.4	6.7	100.0(418)	3.08
100 - 120% 미만	7.4	23.1	40.8	22.6	6.1	100.0(363)	3.03
120 - 140% 미만	6.6	26.8	43.0	19.9	3.7	100.0(351)	3.13
140 - 160% 미만	6.3	26.3	35.8	23.7	7.9	100.0(190)	2.99
160% 이상	6.3	24.5	36.5	25.2	7.5	100.0(318)	2.97
$X^2(df)/F$			30.20(24)				1.7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8%로 가장 높았고, 매우 효과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그리고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Ⅲ-1-9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 - 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4.5	17.8	42.8	25.2	9.7	100.0(3,000)	2.82
성별 구분							
남자	4.5	17.5	40.2	26.4	11.4	100.0(1,522)	2.77
여자	4.4	18.1	45.5	24.0	8.0	100.0(1,478)	2.87
$X^2(df)/t$			15.82(4)**				2.68**
연령							
10대 이하	13.8	20.7	46.6	12.1	6.9	100.0(58)	3.22
20대	4.7	13.6	41.8	26.1	13.8	100.0(632)	2.69
30대	4.2	13.9	35.5	29.7	16.8	100.0(519)	2.59
40대	3.3	16.5	44.1	28.3	7.8	100.0(630)	2.79
50대	3.2	20.5	48.3	22.4	5.6	100.0(625)	2.93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60대 이상	6.2	24.6	42.9	20.9	5.4	100.0(536)	3.05
$X^2(df)/F$			136.54(20)***				17.85***
혼인 여부							
미혼	4.3	15.0	46.1	22.6	11.9	100.0(579)	2.77
배우자 있음	4.6	18.2	42.0	25.7	9.4	100.0(2,312)	2.83
배우자 없음	1.8	23.9	42.2	27.5	4.6	100.0(109)	2.91
$X^2(df)/F$			16.75(8)*				1.24
영유아자녀유무							
유	7.2	13.6	35.6	28.4	15.3	100.0(582)	2.69
무	4.0	21.3	45.8	22.9	6.1	100.0(1,534)	2.94
$X^2(df)/t$			78.45(4)***				5.27***
취업 여부							
취업	4.2	18.1	40.7	26.1	10.8	100.0(2,139)	2.79
미취업	5.1	16.7	49.3	22.0	6.9	100.0(785)	2.91
$X^2(df)/t$			24.57(4)***				3.03**
맞벌이 유무							
맞벌이	4.7	18.8	39.1	27.6	9.8	100.0(1,350)	2.81
맞벌이 아님	4.5	17.4	46.2	23.2	8.8	100.0(962)	2.85
$X^2(df)/t$			12.08(4)*				1.03
가구소득 ¹⁾							
60% 미만	4.5	16.9	46.1	22.1	10.4	100.0(919)	2.83
60 - 80% 미만	3.2	16.8	43.1	26.8	10.2	100.0(441)	2.76
80 - 100% 미만	3.3	19.4	41.6	24.6	11.0	100.0(418)	2.79
100 - 120% 미만	6.1	17.9	44.1	23.7	8.3	100.0(363)	2.90
120 - 140% 미만	5.4	17.9	43.3	24.5	8.8	100.0(351)	2.87
140 - 160% 미만	3.7	18.9	34.2	34.7	8.4	100.0(190)	2.75
160% 이상	5.3	18.9	37.7	29.6	8.5	100.0(318)	2.83
$X^2(df)/F$			32.78(24)				1.03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정책효과(5점 척도)가 가장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자녀 돌봄 지원 정책이 3.02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 돌봄 지원 정책 2.82점, 청년 이 자리 주거 대책과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각각 2.8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1-10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 정책효과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3.6	19.1	45.3	24.8	7.2	100.0(3,000)	2.80
2) 임신·출산 지원 정책	4.8	19.1	37.7	28.2	10.3	100.0(3,000)	2.80
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5.7	24.8	41.7	21.1	6.7	100.0(3,000)	3.02
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4.5	17.8	42.8	25.2	9.7	100.0(3,000)	2.82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1.1%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그리고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1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어느정도 영향을 미침	보통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3.7	21.0	22.9	41.1	11.4	100.0(3,000)	2.64
성별 구분							
남자	3.5	19.8	22.7	40.5	13.4	100.0(1,522)	2.60
여자	3.8	22.1	23.1	41.7	9.3	100.0(1,478)	2.69
X ² (df)/t			13.16(4)*				-2.54*
연령							
10대 이하	5.2	27.6	29.3	31.0	6.9	100.0(58)	2.93
20대	6.0	23.6	23.1	37.3	10.0	100.0(632)	2.78
30대	4.4	20.8	18.7	39.7	16.4	100.0(519)	2.57
40대	3.2	17.9	24.1	43.3	11.4	100.0(630)	2.58
50대	2.4	19.0	24.3	45.1	9.1	100.0(625)	2.60
60대 이상	2.1	23.1	22.9	40.5	11.4	100.0(536)	2.64
X ² (df)/F			55.43(20)***				5.04***
혼인 여부							
미혼	4.3	21.2	24.0	40.6	9.8	100.0(579)	2.70
배우자 있음	3.5	21.0	22.7	41.2	11.6	100.0(2,312)	2.64
배우자 없음	3.7	19.3	21.1	41.3	14.7	100.0(109)	2.56
X ² (df)/F			3.92(8)				1.15

구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어느정도 영향을 미침	보통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수	평균
영유아자녀유무							
유	5.7	22.3	22.2	34.5	15.3	100.0(582)	2.69
무	2.3	20.0	23.5	43.3	10.9	100.0(1,534)	2.60
$X^2(df)/t$			31.19(4)***				
취업 여부							
취업	4.0	20.5	22.3	40.9	12.4	100.0(2,139)	2.63
미취업	2.9	21.8	24.3	41.9	9.0	100.0(785)	2.68
$X^2(df)/t$			8.98(4)				
맞벌이 유무							
맞벌이	4.5	21.4	21.6	41.2	11.3	100.0(1,350)	2.67
맞벌이 아님	2.1	20.4	24.2	41.2	12.2	100.0(962)	2.59
$X^2(df)/F$			11.88(4)*				
가구소득 ¹⁾							
60% 미만	3.3	21.0	23.1	42.1	10.6	100.0(919)	2.64
60 - 80% 미만	3.9	20.0	25.4	38.8	12.0	100.0(441)	2.65
80 - 100% 미만	4.5	19.4	24.2	39.7	12.2	100.0(418)	2.64
100 - 120% 미만	3.9	23.1	21.5	41.3	10.2	100.0(363)	2.69
120 - 140% 미만	4.8	22.8	21.4	42.5	8.5	100.0(351)	2.73
140 - 160% 미만	3.2	20.5	19.5	46.3	10.5	100.0(190)	2.59
160% 이상	2.2	20.1	22.6	38.1	17.0	100.0(318)	2.53
$X^2(df)/F$			25.96(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나. 추가출산 의도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3.0%,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로 나타났다.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고, 자녀가 있으며, 취업, 맞벌이, 저소득의 경우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2 추가 출산 계획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생각중	해당없음	수
전체	9.5	43.0	9.7	37.8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9.5	44.7	8.8	36.9	100.0(1,522)
여자	9.5	41.3	10.6	38.6	100.0(1,478)
X ² (df)	5.24(3)				
연령					
10대 이하	0.0	0.0	0.0	100.0	100.0(58)
20대	18.5	9.3	16.1	56.0	100.0(632)
30대	20.8	39.9	19.7	19.7	100.0(519)
40대	7.5	64.9	9.0	18.6	100.0(630)
50대	1.3	61.9	3.8	33.0	100.0(625)
60대 이상	0.9	42.7	1.1	55.2	100.0(536)
X ² (df)	950.47(15)*				
자녀 유무					
유	6.8	58.6	9.9	24.7	100.0(2,116)
무	16.0	5.8	9.3	69.0	100.0(884)
X ² (df)	783.37(3)*				
영유아자녀유무					
유	19.6	51.2	25.8	3.4	100.0(582)
무	2.0	61.4	3.8	32.8	100.0(1,534)
X ² (df)	552.71(3)*				
취업 여부					
취업	11.6	47.1	10.8	30.5	100.0(2,139)
미취업	4.3	34.5	7.0	54.1	100.0(785)
X ² (df)	148.13(3)*				
맞벌이 유무					
맞벌이	15.1	54.9	14.3	15.7	100.0(1,350)
맞벌이 아님	8.1	52.7	9.9	29.3	100.0(962)
X ² (df)	80.60(3)*				
가구소득 ¹⁾					
60% 미만	4.8	22.4	4.8	68.0	100.0(919)
60 - 80% 미만	11.1	41.5	10.7	36.7	100.0(441)
80 - 100% 미만	10.5	55.5	9.3	24.6	100.0(418)
100 - 120% 미만	15.2	51.2	14.3	19.3	100.0(363)
120 - 140% 미만	12.5	55.0	14.8	17.7	100.0(351)
140 - 160% 미만	12.1	52.6	12.6	22.6	100.0(190)
160% 이상	8.2	60.1	10.4	21.4	100.0(318)
X ² (df)	578.56(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추가 출산 계획 시 자녀 수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8%로 가장 높았고,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그리고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1-13 ■ 추가 출산 계획 시 자녀 수 계획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수	평균
전체	62.8	33.7	3.5	100.0(285)	1.4
성별 구분					
남자	71.0	26.2	2.8	100.0(145)	1.3
여자	54.3	41.4	4.3	100.0(140)	1.5
X ² (df)		10.16(3)*			
연령					
20대	42.7	50.4	6.8	100.0(117)	1.6
30대	73.1	25.0	1.9	100.0(108)	1.3
40대	83.0	17.0	0.0	100.0(47)	1.2
50대	75.0	25.0	0.0	100.0(8)	1.3
60대 이상	100.0	0.0	0.0	100.0(5)	1.0
X ² (df)		38.44(12)*			
자녀 유무					
유	83.3	16.0	0.7	100.0(144)	1.2
무	41.8	51.8	6.4	100.0(141)	1.7
X ² (df)		53.25(3)*			
영유아자녀유무					
유	82.5	16.7	0.9	100.0(114)	1.2
무	86.7	13.3	0.0	100.0(30)	1.1
X ² (df)		0.48(2)			
취업 여부					
취업	62.2	33.7	4.0	100.0(249)	1.4
미취업	70.6	29.4	0.0	100.0(34)	1.3
X ² (df)		1.86(3)			
맞벌이 유무					
맞벌이	59.3	37.3	3.4	100.0(204)	1.4
맞벌이 아님	70.5	25.6	3.8	100.0(78)	1.3
X ² (df)		6.12(3)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수	평균
가구소득 ¹⁾					
60% 미만	72.7	22.7	4.5	100.0(44)	1.3
60 - 80% 미만	63.3	34.7	2.0	100.0(49)	1.4
80 - 100% 미만	52.3	38.6	9.1	100.0(44)	1.6
100 - 120% 미만	58.2	40.0	1.8	100.0(55)	1.4
120 - 140% 미만	65.9	29.5	4.5	100.0(44)	1.4
140 - 160% 미만	56.5	43.5	0.0	100.0(23)	1.4
160% 이상	73.1	26.9	0.0	100.0(26)	1.3
$X^2(df)/F$	18.90(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선호하는 자녀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선호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7.4%로 가장 높았고, 남아라고 응답한 비율은 10.9%로 가장 낮았다. 성별, 혼인 여부, 그리고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자녀 성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 응답자는 남아를, 여성 응답자는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표 III-1-14 선호하는 자녀 성별

단위: %(명)

구분	남아	여아	선호없음	수
전체	10.9	41.8	47.4	100.0(285)
성별 구분				
남자	17.2	40.0	42.8	100.0(145)
여자	4.3	43.6	52.1	100.0(140)
$X^2(df)$	12.53(2)*			
연령				
20대	10.3	42.7	47.0	100.0(117)
30대	11.1	41.7	47.2	100.0(108)
40대	12.8	40.4	46.8	100.0(47)
50대	0.0	37.5	62.5	100.0(8)
60대 이상	20.0	40.0	40.0	100.0(5)
$X^2(df)$	1.99(8)			
자녀 유무				
유	16.0	45.8	38.2	100.0(144)
무	5.7	37.6	56.7	100.0(141)
$X^2(df)$	13.28(2)*			

구분	남아	여아	선호없음	수
영유아자녀유무				
유	18.4	44.7	36.8	100.0(114)
무	6.7	50.0	43.3	100.0(30)
X ² (df)		2.46(2)		
취업 여부				
취업	12.4	41.8	45.8	100.0(249)
미취업	0.0	44.1	55.9	100.0(34)
X ² (df)		4.921(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0.8	43.6	45.6	100.0(204)
맞벌이 아님	9.0	37.2	53.8	100.0(78)
X ² (df)		1.54(2)		
가구소득 ¹⁾				
60% 미만	9.1	36.4	54.5	100.0(44)
60 - 80% 미만	12.2	42.9	44.9	100.0(49)
80 - 100% 미만	9.1	59.1	31.8	100.0(44)
100 - 120% 미만	9.1	38.2	52.7	100.0(55)
120 - 140% 미만	15.9	34.1	50.0	100.0(44)
140 - 160% 미만	0.0	43.5	56.5	100.0(23)
160% 이상	19.2	38.5	42.3	100.0(26)
X ² (df)		13.79(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인 경우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6.0%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안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는 양육비 부담, 50대 이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1-15 자녀 낳을 계획 없거나 생각 중인 경우 해당 이유

단위: %(명)

구분	양육비 부담 때문에	교육비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로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	개인 시간 이 필요 해서	기타	수
전체	30.3	7.0	4.0	0.8	17.7	36.0	2.3	1.8	100.0(1,582)
성별 구분									
남자	33.0	5.9	2.3	0.2	19.6	36.9	0.9	1.1	100.0(815)
여자	27.5	8.2	5.9	1.3	15.6	35.1	3.9	2.5	100.0(767)
X ² (df)/t				48.90(7)*					-1.33
연령									
20대	64.6	2.5	8.1	0.6	8.7	0.0	11.2	4.3	100.0(161)
30대	59.5	7.1	10.0	1.0	11.3	2.9	4.9	3.2	100.0(309)
40대	30.0	12.0	3.4	0.9	24.0	27.9	0.4	1.3	100.0(466)
50대	9.2	6.1	0.7	0.0	20.0	62.8	0.5	0.7	100.0(411)
60대 이상	6.0	1.7	0.4	1.7	15.7	73.6	0.0	0.9	100.0(235)
X ² (df)/F				802.06(28)*					140.62***
자녀 유무									
유	28.0	7.6	3.9	0.6	19.3	38.3	1.0	1.4	100.0(1,449)
무	56.4	0.8	6.0	2.3	0.8	11.3	16.5	6.0	100.0(133)
X ² (df)/t				234.56(7)*					3.97***
영유아자녀유무									
유	55.1	7.1	8.7	0.7	16.1	6.9	2.9	2.5	100.0(448)
무	15.8	7.8	1.7	0.6	20.7	52.3	0.2	0.9	100.0(1,001)
X ² (df)/t				408.39(7)*					-18.01***
취업 여부									
취업	33.1	6.9	4.9	0.6	17.5	33.4	1.9	1.7	100.0(1,238)
미취업	19.9	7.7	0.6	1.5	18.4	45.4	4.3	2.1	100.0(326)
X ² (df)/t				47.33(7)*					-5.45***
맞벌이 유무									
맞벌이	33.6	7.5	6.2	0.6	16.6	31.4	2.2	1.8	100.0(934)
맞벌이 아님	26.2	6.6	0.7	0.8	19.1	42.4	2.5	1.7	100.0(602)
X ² (df)/t				48.76(7)*					-4.56***
가구소득 ¹⁾									
60% 미만	28.0	6.0	0.4	1.2	15.2	45.6	2.0	1.6	100.0(250)
60 - 80% 미만	39.1	6.5	2.2	0.9	16.5	30.9	2.2	1.7	100.0(230)
80 - 100% 미만	28.8	8.1	0.7	0.7	19.6	37.6	2.6	1.8	100.0(271)
100 - 120% 미만	31.1	8.0	5.5	0.8	18.9	30.7	2.9	2.1	100.0(238)
120 - 140% 미만	31.8	8.2	5.7	0.8	19.6	29.4	2.9	1.6	100.0(245)
140 - 160% 미만	25.8	5.6	9.7	0.0	12.9	41.1	2.4	2.4	100.0(124)
160% 이상	25.9	5.8	7.6	0.4	18.8	38.8	1.3	1.3	100.0(224)
X ² (df)/F				71.71(42)*					2.37*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 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0%로 가장 높았고,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0%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그리고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1-16 ■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 수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수	평균
전체	15.0	62.0	23.0	100.0(1,821)	2.1
성별 구분					
남자	13.3	62.5	24.3	100.0(943)	2.2
여자	16.9	61.5	21.6	100.0(878)	2.1
X ² (df)		17.24(7)*			
연령					
20대	15.2	58.9	25.9	100.0(263)	2.2
30대	18.5	59.5	22.0	100.0(400)	2.1
40대	17.1	63.1	19.8	100.0(504)	2.1
50대	9.9	65.1	25.0	100.0(416)	2.2
60대 이상	13.4	61.8	24.8	100.0(238)	2.2
X ² (df)		69.00(28)*			
자녀 유무					
유	12.8	63.4	23.7	100.0(1,572)	2.2
무	28.5	53.0	18.5	100.0(249)	2.0
X ² (df)		107.49(7)*			
영유아자녀유무					
유	11.6	63.5	24.9	100.0(550)	2.2
무	13.5	63.4	23.1	100.0(1,022)	2.2
X ² (df)		11.60(6)			
취업 여부					
취업	13.9	61.9	24.2	100.0(1,445)	2.2
미취업	18.5	62.2	19.3	100.0(357)	2.1
X ² (df)		18.41(7)*			
맞벌이 유무					
맞벌이	14.6	61.7	23.7	100.0(1,102)	2.1
맞벌이 아님	15.8	63.8	20.4	100.0(671)	2.1
X ² (df)		15.95(7)*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수	평균
가구소득 ¹⁾					
60% 미만	14.3	57.3	28.3	100.0(293)	2.2
60 - 80% 미만	16.2	62.5	21.3	100.0(272)	2.1
80 - 100% 미만	15.3	65.6	19.2	100.0(308)	2.1
100 - 120% 미만	15.7	60.1	24.2	100.0(281)	2.1
120 - 140% 미만	16.1	61.6	22.2	100.0(279)	2.1
140 - 160% 미만	14.7	67.1	18.2	100.0(143)	2.1
160% 이상	12.2	62.0	25.7	100.0(245)	2.2
X ² (df)	51.45(4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3%로 가장 높았고,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1%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지역규모,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유무, 그리고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 이상 자녀 수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수	평균
전체	8.1	64.3	27.6	100.0(2,942)	2.3
성별 구분					
남자	7.8	64.1	28.1	100.0(1,493)	2.3
여자	8.4	64.6	27.1	100.0(1,449)	2.2
X ² (df)	14.10(6)*				
연령					
10대 이하	12.3	73.7	14.0	100.0(57)	2.0
20대	15.0	69.1	16.0	100.0(601)	2.0
30대	11.5	64.8	23.7	100.0(503)	2.2
40대	5.1	64.8	30.1	100.0(625)	2.3
50대	5.1	60.1	34.7	100.0(622)	2.4
60대 이상	3.4	62.0	34.6	100.0(534)	2.4
X ² (df)	198.79(30)*				
혼인 여부					
미혼	14.9	70.3	14.8	100.0(549)	2.0
배우자 있음	6.6	63.5	30.0	100.0(2,285)	2.3
배우자 없음	4.6	52.8	42.6	100.0(108)	2.5
X ² (df)	146.48(12)*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수	평균
자녀 유무					
유	5.3	62.4	32.3	100.0(2,103)	2.3
무	15.0	69.2	15.7	100.0(839)	2.0
X ² (df)		206.74(6)*			
영유아자녀유무					
유	8.0	63.1	28.9	100.0(575)	2.3
무	4.3	62.1	33.6	100.0(1,528)	2.4
X ² (df)		18.790(5)*			
취업 여부					
취업	7.8	63.4	28.8	100.0(2,097)	2.3
미취업	8.6	66.5	24.9	100.0(770)	2.2
X ² (df)		6.10(6)			
맞벌이 유무					
맞벌이	7.1	61.5	31.4	100.0(1,329)	2.3
맞벌이 아님	5.8	66.2	28.0	100.0(956)	2.3
X ² (df)		12.21(5)*			
가구소득 ¹⁾					
60% 미만	10.9	64.5	24.6	100.0(890)	2.2
60 - 80% 미만	5.5	65.4	29.1	100.0(433)	2.3
80 - 100% 미만	8.2	68.4	23.4	100.0(415)	2.2
100 - 120% 미만	7.9	62.6	29.5	100.0(356)	2.3
120 - 140% 미만	7.0	64.3	28.7	100.0(345)	2.2
140 - 160% 미만	5.3	65.6	29.1	100.0(189)	2.3
160% 이상	6.4	58.3	35.4	100.0(314)	2.4
X ² (df)		73.78(36)*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출생아 수 감소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63.5%로 가장 높았고,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2%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소득이 높을수록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표 III-1-18 출생아 수 감소 문제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매우 심각한 문제	다소 심각한 문제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님	전혀 심각한 문제 아님	모르겠음	수
전체	63.5	27.6	5.9	1.2	1.8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69.1	23.3	5.2	1.4	1.1	100.0(1,522)

구분	매우 심각한 문제	다소 심각한 문제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님	전혀 심각한 문제 아님	모르겠음	수
여자 X ² (df)	57.8	32.1	6.6 48.17(4)*	0.9	2.6	100.0(1,478)
연령						
10대 이하	37.9	50.0	10.3	0.0	1.7	100.0(58)
20대	53.2	34.0	8.4	1.6	2.8	100.0(632)
30대	64.5	25.8	5.4	1.3	2.9	100.0(519)
40대	65.4	28.1	4.0	1.6	1.0	100.0(630)
50대	65.8	26.4	5.9	0.6	1.3	100.0(625)
60대 이상 X ² (df)	72.8	20.1	5.0 86.29(20)*	0.7	1.3	100.0(536)
혼인 여부						
미혼	50.1	36.6	8.3	2.1	2.9	100.0(579)
배우자 있음	66.8	25.3	5.4	1.0	1.5	100.0(2,312)
배우자 없음 X ² (df)	65.1	28.4	2.8 61.07(8)*	0.9	2.8	100.0(109)
자녀 유무						
유	68.3	24.7	4.9	0.9	1.3	100.0(2,116)
무 X ² (df)	52.1	34.6	8.1 77.31(4)*	1.9	3.2	100.0(884)
영유아자녀유무						
유	68.6	23.9	5.0	0.5	2.1	100.0(582)
무 X ² (df)	68.2	25.0	4.9 5.16(4)	1.0	1.0	100.0(1,534)
취업 여부						
취업	65.2	26.9	5.2	1.0	1.7	100.0(2,139)
미취업 X ² (df)	59.4	29.2	8.0 12.97(4)*	1.4	2.0	100.0(785)
맞벌이 유무						
맞벌이	66.8	26.2	5.0	0.8	1.2	100.0(1,350)
맞벌이 아님 X ² (df)	66.8	24.0	6.0 5.22(4)	1.1	2.0	100.0(962)
가구소득 ¹⁾						
60% 미만	57.0	31.2	6.9	2.0	2.9	100.0(919)
60 - 80% 미만	64.9	26.1	5.2	1.4	2.5	100.0(441)
80 - 100% 미만	68.9	25.1	3.6	1.0	1.4	100.0(418)
100 - 120% 미만	61.4	30.9	6.3	0.6	0.8	100.0(363)
120 - 140% 미만	63.8	26.2	8.5	0.6	0.9	100.0(351)
140 - 160% 미만	71.1	23.2	4.2	0.0	1.6	100.0(190)
160% 이상 X ² (df)	71.1	23.0	4.4 59.95(24)*	0.9	0.6	100.0(3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2 영유아 부모의 육아 현황

가. 양육 효능감

양육 효능감 중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3.1%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가장 낮았다. 양육 효능감 중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5%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다. 양육 효능감 중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8%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가장 낮았다. 양육 효능감 중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3%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양육 효능감 중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루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9%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가장 낮았다. 양육 효능감 중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5%로 가장 낮았다. 양육 효능감 중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1%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5%로 가장 낮았다. 양육 효능감 중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가장 낮았다. 양육 효능감 중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9%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2%로 가장 낮았다.

표 III-2-1 양육 효능감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수	평균
전체	0.7	10.2	40.1	37.6	11.4	100.0 (582)	3.5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잘 알고 있다	0.0	1.0	8.9	53.1	36.9	100.0 (582)	4.3
2)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 한다.	1.5	20.1	51.5	23.4	3.4	100.0 (582)	3.1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0.7	9.5	44.8	39.9	5.2	100.0 (582)	3.4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관찰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2.6	18.6	49.3	25.4	4.1	100.0 (582)	3.1
5)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0.7	11.0	51.9	32.0	4.5	100.0 (582)	3.3
6)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0.5	8.4	39.9	44.2	7.0	100.0 (582)	3.5
7)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0.5	9.6	43.1	41.1	5.7	100.0 (582)	3.4
8)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	0.0	1.7	20.4	47.1	30.8	100.0 (582)	4.1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 을 잘 알고 있다.	0.2	11.9	50.9	32.0	5.2	100.0 (582)	3.3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중 나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칭얼대며 불평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로 가장 높았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 밥 먹이는 데 어려움(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거나 불평하는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5%로 가장 높았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7%로 가장 높았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9.1%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의 스케줄(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때문에 나의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2%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는 나에게 함께 놀아주거나 재밌게 해달라고 조르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4.3%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가 잠 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들 때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5%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집안 일을 하는데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적거리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2%로 가장 높았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많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5.7%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 입혀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 가장 높았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2%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는지(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1%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1%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공공장소(식품가게, 쇼핑센터, 음식점)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려운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3%로 가장 높았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외출할 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기 위해 아이를 준비시키려면 어

려운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2%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기고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데 문제(예를 들어, 싸우거나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거나 친구가 없는 등)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로 가장 높았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중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0%로 가장 높았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1%로 가장 낮았다.

표 III-2-2 양육 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수	평균
전체	6.8	22.1	34.5	27.6	9.0	100.0 (582)	3.1
1) 나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한다.	1.2	12.0	31.6	47.1	8.1	100.0 (582)	3.5
2)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칭얼대며 불평한다.	5.3	34.7	40.2	18.0	1.7	100.0 (582)	2.8
3) 아이 밥 먹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거나 불평하는 등).	7.2	29.9	34.5	23.7	4.6	100.0 (582)	2.9
4)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6.9	34.7	40.7	16.0	1.7	100.0 (582)	2.7
5)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9.1	20.4	29.6	26.8	14.1	100.0 (582)	3.2
6) 아이의 스케줄(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때문에 나의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있다.	6.0	22.0	34.2	26.8	11.0	100.0 (582)	3.1
7) 아이는 나에게 함께 놀아주거나 재밌게 해달라고 조른다.	1.9	8.1	33.5	44.3	12.2	100.0 (582)	3.6
8)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들 때가 있다.	5.5	16.2	34.5	32.5	11.3	100.0 (582)	3.3
9) 집안 일을 하는데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적거린다.	9.1	31.4	39.2	17.2	3.1	100.0 (582)	2.7
10)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	8.8	29.2	41.6	18.6	100.0 (582)	3.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수	평균
11)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을 바 꿔야 할 때가 많다.	2.7	12.5	35.6	35.7	13.4	100.0 (582)	3.4
12)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 입혀야 한다.	8.6	25.8	36.4	24.1	5.2	100.0 (582)	2.9
13) 아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8.1	21.8	32.1	27.3	10.7	100.0 (582)	3.1
14) 공공장소(식품가게, 쇼핑센터, 음식점)에서 아 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9.5	29.2	33.3	20.3	7.7	100.0 (582)	2.9
15) 외출할 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기 위해 아이 를 준비시키려면 어렵다.	5.3	22.9	35.2	30.6	6.0	100.0 (582)	3.1
16)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기고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3	11.3	24.7	31.1	27.5	100.0 (582)	3.6
17)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데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 싸우거나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거나 친 구가 없는 등)	21.1	36.1	31.4	10.0	1.4	100.0 (582)	2.3
18)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 한 일을 해야만 한다.	7.2	20.3	45.0	23.4	4.1	100.0 (582)	3.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한 것임.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사회적 관계망

영유아 부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 친척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3.6명, 이웃 1.5명이라고 응답되었다. 사회적 관계망 중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 친척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0.6명, 이웃 0.4명이라고 응답되었다. 사회적 관계망 중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 친척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1.4명, 이웃 0.9명이라고 응답되었다. 사회적 관계망 중 육아에 있어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 친척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0.9명, 이웃 0.5명이라고 응답되었다. 사회적 관계망 중 육아와 관련된 통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 친척이 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0.2명, 이웃 0.2명이라고 응답되었다.

표 III-2-3 사회적 관계망

단위: 명, %(명)

구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수
1)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	4.2	3.6	1.5	100.0(582)
2)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2.3	0.6	0.4	100.0(582)
3)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	1.6	1.4	0.9	100.0(582)
4) 육아에 있어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	1.9	0.9	0.5	100.0(582)
5) 육아와 관련된 통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0.6	0.2	0.2	100.0(58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 부모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모임은 평균 1개, 온라인 모임은 평균 1.6개,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평균 0.6개로 응답되었다.

표 III-2-4 정기적인 모임

단위: 개(명)

구분	정기적 참여 모임(오프라인)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온라인)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수
전체	1.0	1.6	0.6	(582)
성별 구분				
남자	1.0	1.5	0.6	(327)
여자	0.9	1.9	0.7	(255)
연령				
20대	0.9	1.6	0.7	(131)
30대	1.0	1.7	0.6	(297)
40대	0.9	1.4	0.6	(145)
50대	1.3	3.5	1.0	(6)
60대 이상	4.3	2.3	1.7	(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0	1.5	0.8	(98)
광역시	1.0	1.5	0.7	(143)
중소도시	0.9	1.7	0.6	(308)
군(읍면지역)	0.9	1.5	0.4	(33)
혼인 여부				
배우자 있음	1.0	1.6	0.6	(578)
배우자 없음	1.3	1.3	0.3	(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육아 인프라 및 주변 환경

집 또는 거주지 주변의 어린이집 수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6%로 가장 높았고,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가장 낮았다. 집 또는 거주지 주변의 유치원 수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4%로 가장 높았고,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가장 낮았다. 집 또는 거주지 주변의 놀이터 수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3%로 가장 높았고,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가장 낮았다. 집 또는 거주지 주변의 아동 도서관 수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로 가장 높았고,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낮았다. 집 또는 거주지 주변의 미술관 수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로 가장 높았고,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5%로 가장 낮았다. 집 또는 거주지 주변의 박물관 수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로 가장 높았고,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로 가장 낮았다. 집 또는 거주지 주변의 문화센터 수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로 가장 높았고,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가장 낮았다.

표 III-2-5 집 또는 거주지 주변 기관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기관수 매우 부족	기관수 다소 부족	보통	기관수 약간 충분	기관수 매우 충분	수	평균
1) 어린이집	17.9	29.2	36.6	11.7	4.6	100.0(582)	2.6
2) 유치원	28.2	35.4	27.1	6.9	2.4	100.0(582)	2.2
3) 놀이터	21.1	25.9	32.3	15.3	5.3	100.0(582)	2.6
4) 아동 도서관	38.7	31.8	21.3	6.9	1.4	100.0(582)	2.0
5) 미술관	62.9	25.9	7.4	3.3	0.5	100.0(582)	1.5
6) 박물관	57.7	27.7	10.7	2.7	1.2	100.0(582)	1.6
7) 문화센터	33.3	30.2	28.2	6.4	1.9	100.0(582)	2.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 인근의 육아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편리한 보행 환경이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가 규모와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내 프로그램이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 인근의 육아 환경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편리한 보행 환경과 자연환경이 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내 프로그램이 2.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2-6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 인근의 육아 환경 필요성/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한 보행환경	보차 분리	자연 환경	어린이 놀이 시설	주차 여건	상가 규모와 시설	커뮤니티 시설	커뮤니티 시설 내 프로그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전반적 육아 환경	수
필요성	4.1	4.0	3.8	3.9	3.9	3.6	3.7	3.6	4.0	3.9	100.0(582)
만족도	3.0	2.7	3.0	2.8	2.6	2.7	2.5	2.5	2.8	2.7	100.0(58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택의 입지에 따른 육아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병원과의 거리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 플라자와의 거리가 3.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주택의 입지에 따른 육아 환경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병원과의 거리가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 플라자와의 거리가 2.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2-7 주택의 입지에 따른 육아 환경 필요성/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조부모 댁과의 거리	병원 과의 거리	부모의 직장 과의 거리	대중 교통의 접근성	공원 과의 거리	대규모 상업시 설과의 거리	문화 센터 와의 거리	어린이 도서관 과의 거리	영유아 플라자 와의 거리	기피 시설 과의 거리	전반적 인 주택 입지	수
필요성	3.8	4.2	4.0	4.1	4.1	4.0	3.8	3.8	3.5	4.0	4.0	100.0(582)
만족도	3.2	3.4	2.9	3.2	3.3	3.2	2.9	2.7	2.4	3.1	3.2	100.0(58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추가 출산의 영향 요인 분석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을 기준 범주로 하여,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 대비 없는 사람 및 생각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III-2-8 ■ 추가 출산의 영향 요인(여성)

구분	기준: 추가 출산 계획 있음			
	없음		생각중	
	β	Exp(β)	β	Exp(β)
절편	-9.319		-12.195	
연령	.016	1.016	.015	1.016
자녀 수	1.774***	5.895	.780	2.181
맞벌이 여부	-.767	.464	-1.388*	.250
ln(가구 소득)	1.736**	5.676	2.074**	7.958
양육효능감	-.624	.536	-.538	.584
양육스트레스	.229	1.258	.545	1.725
사회적 관계망				
지속적 관계	.047	1.048	.054	1.056
자녀 맡길 대상	-.186*	.830	-.140	.869
육아 정보 제공	.010	1.010	.006	1.006
육아 정서적 지원	-.074	.928	-.002	.998
육아인프라				
충분성	.046	1.047	.076*	1.079
만족도	-.284	.753	-.467	.627
입지환경만족도	-.182	.834	-.078	.925
χ^2	63.100(df=26)***			
-2LL	417.697			
N	24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보다 추가 출산 계획을 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자녀 수, 가구소득,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반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만한 사회적 관계망의 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으며($\beta=1.774$, Exp(β)=5.895 $p<.001$), 가구소득이 더 많을수록 추가 출산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5.676배). 반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만한 사회적 관계망의 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86$, $\text{Exp}(\beta)=.830$ $p<.05$).

다음으로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 출산에 대해 아직 생각중인 경우는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육아인프라의 충분한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추가 출산에 대해 생각중이기보다는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beta=-1.388$, $\text{Exp}(\beta)=.250$ $p<.05$). 한편, 가구 소득이 더 많을수록($\beta=2.070$, $\text{Exp}(\beta)=7.958$ $p<.01$), 거주지 주변에 육아인프라의 수가 많을수록($\beta=.076$, $\text{Exp}(\beta)=1.079$ $p<.05$) 추가출산을 계획하기보다는 생각중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을 기준 범주로 하여,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 대비 없는 사람 및 생각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III-2-9 ■ 추가 출산의 영향 요인(남성)

구분	기준: 추가 출산 계획 있음			
	없음		생각중	
	β	$\text{Exp}(\beta)$	β	$\text{Exp}(\beta)$
절편	-.811		1.696	
연령	.054+	1.056	.009	1.010
자녀 수	1.319***	3.738	.066	1.069
맞벌이 여부	-.267	.766	-.063	.939
ln(가구 소득)	.174	1.190	.110	1.116
양육효능감	-.864*	.422	-.989**	.373
양육스트레스	-.101	.904	-.032	.969
사회적 관계망				
지속적 관계	.043	1.044	.053	1.054
자녀 말길 대상	.112	1.118	.117	1.125
육아 정보 제공	-.119*	.888	-.138*	.871
육아 정서적 지원	-.068	.934	.006	1.006
육아인프라				
충분성	.018	1.018	.026	1.026
만족도	-.276	.301	-.120	.887
입지환경만족도	.145	.526	.204	1.226
χ^2	72.150(df=26)***			
-2LL	565.875			
N	31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보다 추가 출산 계획을 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남성의 연령, 자녀 수, 양육효능감, 그리고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 사회관계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연령이 많을수록($\beta=.054$, $\text{Exp}(\beta)=1.056$ $p<.01$), 현재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beta=1.319$, $\text{Exp}(\beta)=3.738$ $p<.001$) 추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beta=-.864$, $\text{Exp}(\beta)=.422$ $p<.05$) 그리고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관계망의 수가 많을수록($\beta=-.119$, $\text{Exp}(\beta)=.888$ $p<.05$)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추가 출산을 계획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 출산에 대해 아직 생각중인 경우는 양육효능감과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 사회관계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것과 비교해서 자녀 수와 연령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beta=-.989$, $\text{Exp}(\beta)=.373$ $p<.01$),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 사회관계망이 많을수록($\beta=-.138$, $\text{Exp}(\beta)=.871$ $p<.05$) 추가 출산 계획을 망설이기보다는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육아정책 인지 및 의견

가. 비용지원 정책

정부의 보육·교육 비용 지원 정책 중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략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33.5%)였으며, 10대 이하가 13.8%로 가장 낮았다. 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와 맞벌이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1 ■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1) 0-2세 보육료 지원

단위: %(명)

구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수
전체	23.2	49.5	27.3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3.8	22.4	63.8	100.0(58)
20대	17.4	39.7	42.9	100.0(632)
30대	33.5	43.4	23.1	100.0(519)
40대	25.7	50.3	24.0	100.0(630)
50대	19.5	57.6	22.9	100.0(625)
60대 이상	22.2	59.7	18.1	100.0(536)
X ² (df)		196.72(1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1.4	48.0	30.6	100.0(588)
광역시	20.3	53.3	26.4	100.0(779)
중소도시	25.4	48.0	26.6	100.0(1,490)
군(읍면지역)	23.1	51.7	25.2	100.0(143)
X ² (df)		13.08(6)*		
영유아자녀유무				
유	44.8	45.4	9.8	100.0(582)
무	22.3	57.6	20.1	100.0(1,534)
X ² (df)		112.87(2)*		
취업 여부				
취업	24.5	49.9	25.6	100.0(2,139)
미취업	21.1	49.0	29.8	100.0(785)
X ² (df)		6.52(2)*		
맞벌이 유무				
맞벌이	28.4	50.9	20.7	100.0(1,350)
맞벌이 아님	24.5	54.9	20.6	100.0(962)
X ² (df)		4.92(2)		
가구소득 ¹⁾				
60% 미만	15.0	45.4	39.6	100.0(919)
60 - 80% 미만	25.6	49.9	24.5	100.0(441)
80 - 100% 미만	24.6	51.4	23.9	100.0(418)
100 - 120% 미만	26.2	51.2	22.6	100.0(363)
120 - 140% 미만	29.6	51.0	19.4	100.0(351)
140 - 160% 미만	31.6	51.1	17.4	100.0(190)
160% 이상	25.8	54.1	20.1	100.0(318)
X ² (df)		125.60(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3-5세 누리과정비 지원의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략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0%,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로 나타났다.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

은 30대가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7%로 나타났다. 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 지역규모,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2 ■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2) 3-5세 누리과정비 지원

단위: %(명)

구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수
전체	22.1	54.0	23.9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8.6	39.7	51.7	100.0(58)
20대	14.9	44.1	41.0	100.0(632)
30대	29.3	48.6	22.2	100.0(519)
40대	27.0	54.9	18.1	100.0(630)
50대	19.8	59.7	20.5	100.0(625)
60대 이상	21.8	64.7	13.4	100.0(536)
X2(df)		204.78(10)*		
영유아자녀유무				
유	37.1	50.0	12.9	100.0(582)
무	23.5	60.7	15.8	100.0(1,534)
X2(df)		39.66(2)*		
취업 여부				
취업	23.4	54.6	22.0	100.0(2,139)
미취업	19.7	53.0	27.3	100.0(785)
X2(df)		10.46(2)*		
맞벌이 유무				
맞벌이	25.5	55.6	18.9	100.0(1,350)
맞벌이 아님	25.1	57.2	17.8	100.0(962)
X2(df)		0.657(2)		
가구소득1)				
60% 미만	15.0	50.6	34.4	100.0(919)
60 - 80% 미만	23.4	53.3	23.4	100.0(441)
80 - 100% 미만	23.2	57.4	19.4	100.0(418)
100 - 120% 미만	22.9	57.3	19.8	100.0(363)
120 - 140% 미만	30.8	49.6	19.7	100.0(351)
140 - 160% 미만	29.5	54.2	16.3	100.0(190)
160% 이상	24.2	61.3	14.5	100.0(318)
X2(df)		114.28(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략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

로 나타났다.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3) 양육수당 지원

단위: %(명)

구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수
전체	25.0	49.4	25.6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0.3	27.6	62.1	100.0(58)
20대	19.9	37.3	42.7	100.0(632)
30대	38.3	42.4	19.3	100.0(519)
40대	26.7	51.7	21.6	100.0(630)
50대	19.7	58.2	22.1	100.0(625)
60대 이상	23.7	59.9	16.4	100.0(536)
X ² (df)		243.75(10)*		
영유아자녀유무				
유	49.0	42.8	8.2	100.0(582)
무	23.6	57.4	19.0	100.0(1,534)
X ² (df)		136.05(2)*		
취업 여부				
취업	26.6	50.5	22.9	100.0(2,139)
미취업	22.2	46.9	31.0	100.0(785)
X ² (df)		20.75(2)*		
맞벌이 유무				
맞벌이	29.3	52.1	18.6	100.0(1,350)
맞벌이 아님	28.0	52.7	19.3	100.0(962)
X ² (df)		0.57(2)		
가구소득 ¹⁾				
60% 미만	17.6	42.9	39.5	100.0(919)
60 - 80% 미만	25.4	51.9	22.7	100.0(441)
80 - 100% 미만	27.3	53.3	19.4	100.0(418)
100 - 120% 미만	26.4	52.6	20.9	100.0(363)
120 - 140% 미만	33.0	47.6	19.4	100.0(351)
140 - 160% 미만	31.1	52.6	16.3	100.0(190)
160% 이상	28.3	56.3	15.4	100.0(318)
X ² (df)		153.59(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50.1%로,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로 나타났다.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16%)였으며, 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와 맞벌이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 지역규모,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4 ■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4)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단위: %(명)

구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수
전체	10.8	39.1	50.1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2.1	24.1	63.8	100.0(58)
20대	10.8	31.6	57.6	100.0(632)
30대	16.0	38.3	45.7	100.0(519)
40대	11.6	41.6	46.8	100.0(630)
50대	8.0	39.7	52.3	100.0(625)
60대 이상	7.8	46.6	45.5	100.0(536)
$X^2(df)$		59.08(10)*		
영유아자녀유무				
유	24.1	45.9	30.1	100.0(582)
무	8.8	42.8	48.4	100.0(1,534)
$X^2(df)$		109.05(2)*		
취업 여부				
취업	11.8	39.4	48.8	100.0(2,139)
미취업	8.7	38.7	52.6	100.0(785)
$X^2(df)$		7.02(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4.2	42.8	43.0	100.0(1,350)
맞벌이 아님	10.0	40.4	49.6	100.0(962)
$X^2(df)$		14.26(2)*		
가구소득 ¹⁾				
60% 미만	7.7	33.6	58.7	100.0(919)
60 - 80% 미만	9.5	40.8	49.7	100.0(441)
80 - 100% 미만	10.3	40.0	49.8	100.0(418)
100 - 120% 미만	12.1	42.1	45.7	100.0(363)
120 - 140% 미만	13.4	42.7	43.9	100.0(351)
140 - 160% 미만	17.4	42.1	40.5	100.0(190)
160% 이상	13.5	42.1	44.3	100.0(318)
$X^2(df)$		55.21(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시간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51.1%,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은 30대(15.6%)였으며, 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5 ■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5) 시간제 보육료 지원

단위: %(명)

구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수
전체	10.3	38.6	51.1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5.5	31.0	53.4	100.0(58)
20대	10.3	31.0	58.7	100.0(632)
30대	15.6	36.8	47.6	100.0(519)
40대	10.5	39.4	50.2	100.0(630)
50대	7.2	40.2	52.6	100.0(625)
60대 이상	8.2	47.2	44.6	100.0(536)
X ² (df)		58.58(10)*		
영유아자녀유무				
유	22.0	44.5	33.5	100.0(582)
무	8.3	42.8	49.0	100.0(1,534)
X ² (df)		88.68(2)*		
취업 여부				
취업	11.0	39.1	49.9	100.0(2,139)
미취업	9.0	38.0	53.0	100.0(785)
X ² (df)		3.45(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2.7	41.6	45.6	100.0(1,350)
맞벌이 아님	10.1	40.3	49.6	100.0(962)
X ² (df)		5.50(2)		
가구소득 ¹⁾				
60% 미만	8.1	33.4	58.5	100.0(919)
60 - 80% 미만	8.4	39.5	52.2	100.0(441)
80 - 100% 미만	9.1	40.4	50.5	100.0(418)
100 - 120% 미만	12.4	41.0	46.6	100.0(363)
120 - 140% 미만	12.5	39.6	47.9	100.0(351)
140 - 160% 미만	15.3	45.8	38.9	100.0(190)
160% 이상	13.5	41.5	45.0	100.0(318)
X ² (df)		48.48(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9.2%,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로 나타났다.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40대(14.4%)였으며, 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와 맞벌이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표 III-3-6 ■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6)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단위: %(명)

구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수
전체	11.4	39.4	49.2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3.8	34.5	51.7	100.0(58)
20대	10.9	32.9	56.2	100.0(632)
30대	11.6	37.0	51.4	100.0(519)
40대	14.4	40.8	44.8	100.0(630)
50대	9.1	43.4	47.5	100.0(625)
60대 이상	10.4	43.8	45.7	100.0(536)
$X^2(df)$		33.25(10)*		
영유아자녀유무				
유	18.0	43.8	38.1	100.0(582)
무	11.2	43.7	45.0	100.0(1,534)
$X^2(df)$		19.69(2)*		
취업 여부				
취업	12.2	40.3	47.5	100.0(2,139)
미취업	9.9	36.9	53.1	100.0(785)
$X^2(df)$		7.78(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4.2	41.4	44.4	100.0(1,350)
맞벌이 아님	10.2	42.5	47.3	100.0(962)
$X^2(df)$		8.51(2)*		
가구소득 ¹⁾				
60% 미만	8.3	34.5	57.2	100.0(919)
60 - 80% 미만	9.1	40.6	50.3	100.0(441)
80 - 100% 미만	10.0	40.7	49.3	100.0(418)
100 - 120% 미만	12.4	42.7	44.9	100.0(363)
120 - 140% 미만	16.5	39.3	44.2	100.0(351)
140 - 160% 미만	17.9	41.6	40.5	100.0(190)
160% 이상	14.5	45.6	39.9	100.0(318)
$X^2(df)$		62.87(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2018년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략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1%,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7) 아동수당 지급

단위: %(명)

구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수
전체	30.8	49.1	20.2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7.2	44.8	37.9	100.0(58)
20대	28.6	44.5	26.9	100.0(632)
30대	42.4	43.7	13.9	100.0(519)
40대	28.9	51.7	19.4	100.0(630)
50대	24.6	55.7	19.7	100.0(625)
60대 이상	32.8	49.3	17.9	100.0(536)
X ² (df)		83.80(10)*		
영유아자녀유무				
유	54.6	39.2	6.2	100.0(582)
무	27.8	53.5	18.6	100.0(1,534)
X ² (df)		146.64(2)*		
취업 여부				
취업	32.6	49.4	18.0	100.0(2,139)
미취업	27.9	47.9	24.2	100.0(785)
X ² (df)		15.34(2)*		
맞벌이 유무				
맞벌이	35.0	49.3	15.7	100.0(1,350)
맞벌이 아님	33.6	48.8	17.7	100.0(962)
X ² (df)		1.69(2)		
가구소득 ¹⁾				
60% 미만	23.5	49.4	27.1	100.0(919)
60 - 80% 미만	32.4	42.9	24.7	100.0(441)
80 - 100% 미만	33.3	52.4	14.4	100.0(418)
100 - 120% 미만	31.4	52.1	16.5	100.0(363)
120 - 140% 미만	37.3	45.6	17.1	100.0(351)
140 - 160% 미만	37.4	48.9	13.7	100.0(190)
160% 이상	34.3	52.8	12.9	100.0(318)
X ² (df)		82.52(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5%로 가장 높았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8 ■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바람직	약간 바람직	보통	별로 바람직하 지 않음	전혀 바람직하 지 않음	수	평균
전체	15.9	34.5	24.7	18.3	6.5	100.0(3,000)	3.35
연령							
10대 이하	19.0	34.5	36.2	10.3	0.0	100.0(58)	3.62
20대	15.0	37.3	25.6	16.0	6.0	100.0(632)	3.39
30대	25.4	33.3	22.5	13.5	5.2	100.0(519)	3.60
40대	14.0	34.3	25.9	18.1	7.8	100.0(630)	3.29
50대	9.9	30.9	26.7	24.3	8.2	100.0(625)	3.10
60대 이상	16.6	36.8	20.9	20.0	5.8	100.0(536)	3.38
X ² (df)	93.22(20)***						
영유아자녀유무							
유	29.9	33.8	23.2	8.2	4.8	100.0(582)	3.76
무	12.3	34.3	24.5	21.5	7.4	100.0(1,534)	3.23
X ² (df)	122.00(4)***						
취업 여부							
취업	17.1	33.9	24.1	18.5	6.4	100.0(2,139)	3.37
미취업	13.4	36.3	25.2	18.1	7.0	100.0(785)	3.31
X ² (df)	6.50(4)						
맞벌이 유무							
맞벌이	17.6	34.7	24.1	17.2	6.4	100.0(1,350)	3.40
맞벌이 아님	15.6	34.3	24.7	18.1	7.3	100.0(962)	3.33
X ² (df)	2.35(4)						
가구소득 ¹⁾							
60% 미만	15.1	34.4	25.8	18.6	6.1	100.0(919)	3.34
60 - 80% 미만	19.7	32.2	25.9	16.1	6.1	100.0(441)	3.43
80 - 100% 미만	15.8	34.7	23.4	20.6	5.5	100.0(418)	3.35
100 - 120% 미만	14.9	37.2	25.6	15.7	6.6	100.0(363)	3.38
120 - 140% 미만	17.1	34.8	22.5	19.1	6.6	100.0(351)	3.37
140 - 160% 미만	15.8	35.3	17.9	20.5	10.5	100.0(190)	3.25
160% 이상	12.9	34.0	27.4	18.6	7.2	100.0(318)	3.27
X ² (df)	24.82(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1$.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7%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면 재정 지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4.7%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수
전체	63.7	20.1	9.0	4.7	2.5	100.0(746)
연령						
10대 이하	66.7	33.3	0.0	0.0	0.0	100.0(6)
20대	61.2	22.3	10.1	5.0	1.4	100.0(139)
30대	66.0	14.4	15.5	3.1	1.0	100.0(97)
40대	63.2	17.8	11.7	3.1	4.3	100.0(163)
50대	63.1	24.6	4.9	3.4	3.9	100.0(203)
60대 이상	65.9	17.4	6.5	9.4	0.7	100.0(138)
X ² (df)			33.00(20)*			
영유아자녀유무						
유	53.9	21.1	18.4	2.6	3.9	100.0(76)
무	63.2	21.2	7.4	5.2	2.9	100.0(443)
X ² (df)			10.62(4)*			
취업 여부						
취업	63.5	20.1	8.3	4.5	3.6	100.0(532)
미취업	64.5	20.8	10.2	4.6	0.0	100.0(197)
X ² (df)			7.67(4)			
맞벌이 유무						
맞벌이	62.7	18.2	9.4	5.3	4.4	100.0(319)
맞벌이 아님	63.5	21.7	9.4	3.7	1.6	100.0(244)
X ² (df)			4.97(4)			
가구소득 ¹⁾						
60% 미만	65.2	18.9	8.4	6.6	0.9	100.0(227)
60 - 80% 미만	65.3	18.4	11.2	3.1	2.0	100.0(98)
80 - 100% 미만	64.2	17.4	10.1	5.5	2.8	100.0(109)
100 - 120% 미만	61.7	22.2	12.3	2.5	1.2	100.0(81)
120 - 140% 미만	65.6	16.7	7.8	5.6	4.4	100.0(90)
140 - 160% 미만	54.2	27.1	8.5	3.4	6.8	100.0(59)
160% 이상	63.4	25.6	4.9	2.4	3.7	100.0(82)
X ² (df)			22.18(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로 가장 높았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3%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10 ■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바람직	약간 바람직	보통	별로 바람직하 지 않음	전혀 바람직하 지 않음	수	평균
전체	16.1	31.1	24.6	19.8	8.3	100.0(3,000)	3.27
연령							
10대 이하	19.0	37.9	36.2	5.2	1.7	100.0(58)	3.67
20대	16.1	32.1	28.2	16.8	6.8	100.0(632)	3.34
30대	24.7	30.8	22.4	16.0	6.2	100.0(519)	3.52
40대	14.3	31.9	24.9	18.6	10.3	100.0(630)	3.21
50대	10.6	28.5	23.2	26.9	10.9	100.0(625)	3.01
60대 이상	16.0	31.7	22.8	22.0	7.5	100.0(536)	3.27
X ² (df)			95.26(20)***				
영유아자녀유무							
유	30.4	32.1	21.8	10.5	5.2	100.0(582)	3.72
무	12.3	30.3	23.7	24.1	9.6	100.0(1,534)	3.11
X ² (df)			130.13(4)***				
취업 여부							
취업	17.3	30.4	24.5	19.6	8.3	100.0(2,139)	3.29
미취업	13.2	32.9	24.2	21.5	8.2	100.0(785)	3.22
X ² (df)			8.04(4)				
맞벌이 유무							
맞벌이	18.7	30.1	24.1	18.9	8.1	100.0(1,350)	3.32
맞벌이 아님	14.9	32.2	23.3	20.9	8.7	100.0(962)	3.24
X ² (df)			7.23(4)				
가구소득 ¹⁾							
60% 미만	14.6	31.2	27.4	18.8	7.9	100.0(919)	3.26
60 - 80% 미만	19.3	29.9	25.6	17.7	7.5	100.0(441)	3.36
80 - 100% 미만	15.3	30.4	22.0	24.4	7.9	100.0(418)	3.21
100 - 120% 미만	16.5	33.1	23.7	18.5	8.3	100.0(363)	3.31
120 - 140% 미만	17.4	31.6	22.8	21.1	7.1	100.0(351)	3.31
140 - 160% 미만	20.5	28.4	16.8	22.1	12.1	100.0(190)	3.23
160% 이상	12.6	32.4	26.4	18.6	10.1	100.0(318)	3.19
X ² (df)			33.64(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1$.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에 따

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2%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면 재정 지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로 가장 낮았다.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1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수
전체	66.2	19.5	8.1	5.0	1.2	100.0(844)
연령						
10대 이하	75.0	25.0	0.0	0.0	0.0	100.0(4)
20대	64.4	19.5	7.4	6.0	2.7	100.0(149)
30대	67.8	16.5	12.2	1.7	1.7	100.0(115)
40대	69.2	18.7	8.8	2.7	0.5	100.0(182)
50대	64.4	22.9	7.2	4.2	1.3	100.0(236)
60대 이상	65.8	17.7	6.3	10.1	0.0	100.0(158)
X ² (df)		25.70(20)				
영유아자녀유무						
유	63.7	14.3	16.5	3.3	2.2	100.0(91)
무	66.3	20.1	7.2	5.6	0.8	100.0(517)
X ² (df)		11.69(4)*				
취업 여부						
취업	68.5	19.1	7.7	3.5	1.2	100.0(596)
미취업	60.9	21.5	8.2	8.2	1.3	100.0(233)
X ² (df)		9.39(4)				
맞벌이 유무						
맞벌이	70.4	16.7	6.8	4.4	1.6	100.0(365)
맞벌이 아님	61.8	22.1	9.8	5.6	0.7	100.0(285)
X ² (df)		7.62(4)				
가구소득 ¹⁾						
60% 미만	64.6	17.1	10.2	6.9	1.2	100.0(246)
60 - 80% 미만	65.8	19.8	6.3	7.2	0.9	100.0(111)
80 - 100% 미만	72.6	17.0	7.4	2.2	0.7	100.0(135)
100 - 120% 미만	60.8	22.7	12.4	3.1	1.0	100.0(97)
120 - 140% 미만	72.7	16.2	8.1	3.0	0.0	100.0(99)
140 - 160% 미만	49.2	35.4	6.2	6.2	3.1	100.0(65)
160% 이상	72.5	18.7	2.2	4.4	2.2	100.0(91)
X ² (df)		35.22(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연령이 높고,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자, 비맞벌이,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2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수
전체	29.7	46.2	24.1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25.9	32.8	41.4	100.0(58)
20대	28.2	39.1	32.8	100.0(632)
30대	35.6	39.9	24.5	100.0(519)
40대	27.5	51.0	21.6	100.0(630)
50대	26.1	53.0	21.0	100.0(625)
60대 이상	32.8	48.7	18.5	100.0(536)
X ² (df)		74.29(10)*		
영유아자녀유무				
유	41.6	36.1	22.3	100.0(582)
무	26.9	51.8	21.3	100.0(1,534)
X ² (df)		51.34(2)*		
취업 여부				
취업	32.5	47.4	20.1	100.0(2,139)
미취업	23.2	43.6	33.2	100.0(785)
X ² (df)		60.40(2)*		
맞벌이 유무				
맞벌이	33.7	46.4	19.9	100.0(1,350)
맞벌이 아님	26.1	48.3	25.6	100.0(962)
X ² (df)		19.35(2)*		
가구소득 ¹⁾				
60% 미만	24.8	44.4	30.8	100.0(919)
60 - 80% 미만	27.9	45.1	27.0	100.0(441)
80 - 100% 미만	31.3	47.1	21.5	100.0(418)
100 - 120% 미만	30.9	44.9	24.2	100.0(363)
120 - 140% 미만	32.5	46.7	20.8	100.0(351)
140 - 160% 미만	36.3	52.1	11.6	100.0(190)
160% 이상	35.5	49.1	15.4	100.0(318)
X ² (df)		62.40(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면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3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기타	수
전체	28.5	10.0	35.3	18.3	5.4	2.5	100.0(1,386)
연령							
10대 이하	63.2	10.5	15.8	5.3	5.3	0.0	100.0(19)
20대	37.7	10.1	28.7	15.0	4.5	4.0	100.0(247)
30대	32.4	11.1	32.4	17.4	4.8	1.9	100.0(207)
40대	27.7	11.2	31.8	21.5	6.5	1.2	100.0(321)
50대	23.6	8.2	38.1	22.1	4.8	3.3	100.0(331)
60대 이상	21.5	10.0	46.0	14.6	6.1	1.9	100.0(261)
$X^2(df)$			59.42(25)*				
영유아자녀유무							
유	33.3	7.1	33.8	19.0	4.3	2.4	100.0(210)
무	23.2	9.9	39.4	19.0	6.0	2.4	100.0(794)
$X^2(df)$			10.45(5)				
취업 여부							
취업	27.1	9.9	36.3	18.0	6.4	2.3	100.0(1,014)
미취업	30.4	10.5	33.3	19.9	2.6	3.2	100.0(342)
$X^2(df)$			9.81(5)				
맞벌이 유무							
맞벌이	27.4	9.4	34.8	19.5	6.5	2.4	100.0(627)
맞벌이 아님	24.3	9.5	39.4	20.2	4.1	2.6	100.0(465)
$X^2(df)$			5.57(5)				
가구소득 ¹⁾							
60% 미만	30.4	10.8	33.6	17.6	5.4	2.2	100.0(408)
60 - 80% 미만	31.2	12.1	35.7	13.6	4.0	3.5	100.0(199)
80 - 100% 미만	28.9	10.2	35.5	18.3	5.6	1.5	100.0(197)

구분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기타	수
100 - 120% 미만	27.0	6.7	36.2	23.3	4.9	1.8	100.0(163)
120 - 140% 미만	26.8	9.1	35.4	18.3	6.7	3.7	100.0(164)
140 - 160% 미만	25.3	8.1	35.4	20.2	8.1	3.0	100.0(99)
160% 이상	25.0	10.9	37.8	19.9	4.5	1.9	100.0(156)
X ² (df)	17.72(3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보육료·유아학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하도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7.3%로 가장 높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표 III-3-14 ■ 보육료·유아학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지금 그대로 유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정부는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	기타	수
전체	26.6	24.1	47.3	2.0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29.3	25.9	44.8	0.0	100.0(58)
20대	31.8	27.8	38.9	1.4	100.0(632)
30대	24.7	25.4	48.6	1.3	100.0(519)
40대	25.7	25.4	47.0	1.9	100.0(630)
50대	25.1	23.4	48.3	3.2	100.0(625)
60대 이상	24.8	17.4	55.4	2.4	100.0(536)
X ² (df)	48.94(15)*				
영유아자녀유무					
유	25.8	28.0	45.2	1.0	100.0(582)
무	25.1	21.3	51.1	2.5	100.0(1,534)
X ² (df)	15.93(3)*				

구분	지금 그대로 유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정부는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	기타	수
취업 여부					
취업	26.0	25.2	46.6	2.2	100.0(2,139)
미취업	28.0	20.8	49.6	1.7	100.0(785)
X ² (df)		7.51(3)			
맞벌이 유무					
맞벌이	25.1	25.7	47.0	2.2	100.0(1,350)
맞벌이 아님	25.6	20.5	51.9	2.1	100.0(962)
X ² (df)		9.38(3)*			
가구소득 ¹⁾					
60% 미만	28.3	23.5	46.1	2.1	100.0(919)
60 - 80% 미만	24.3	20.4	53.1	2.3	100.0(441)
80 - 100% 미만	28.7	23.7	45.2	2.4	100.0(418)
100 - 120% 미만	28.7	24.0	45.7	1.7	100.0(363)
120 - 140% 미만	25.1	27.4	46.7	0.9	100.0(351)
140 - 160% 미만	22.6	25.8	47.9	3.7	100.0(190)
160% 이상	23.9	26.7	47.5	1.9	100.0(318)
X ² (df)		20.41(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나. 서비스지원 정책

1)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유치원에서 강조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②인성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다.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5 유치원에서 강조해야 할 점 -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11.8	40.8	28.8	5.2	6.1	0.9	5.4	0.2	0.3	0.1	0.3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2.1	39.7	31.0	6.9	5.2	0.0	5.2	0.0	0.0	0.0	0.0	100.0(58)
20대	11.7	38.0	30.7	4.7	6.3	1.4	5.7	0.5	0.5	0.2	0.3	100.0(632)
30대	11.2	35.3	34.9	5.4	6.2	1.0	5.8	0.0	0.2	0.2	0.0	100.0(519)
40대	14.0	37.6	29.0	4.6	8.1	1.1	4.4	0.2	0.2	0.2	0.6	100.0(630)
50대	9.6	47.8	24.5	6.2	4.2	0.8	5.6	0.3	0.5	0.0	0.5	100.0(625)
60대 이상	12.7	45.3	25.0	4.9	5.6	0.4	5.6	0.0	0.2	0.2	0.2	100.0(536)
X ² (df)	66.52(50)											
영유아자녀유무												
유	14.9	34.4	30.8	6.0	7.0	1.0	4.6	0.2	0.5	0.3	0.2	100.0(582)
무	11.6	44.9	25.4	5.0	6.1	0.7	5.5	0.2	0.2	0.1	0.3	100.0(1,534)
X ² (df)	25.78(10)*											
취업 여부												
취업	12.5	40.9	27.7	5.6	5.6	1.0	5.8	0.1	0.4	0.1	0.3	100.0(2,139)
미취업	10.4	41.1	31.1	4.6	7.1	0.8	4.1	0.5	0.0	0.0	0.3	100.0(785)
X ² (df)	20.05(1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2.3	40.2	28.4	5.5	6.1	1.0	5.6	0.1	0.5	0.1	0.1	100.0(1,350)
맞벌이 아님	12.6	41.7	27.2	5.2	7.0	0.5	5.0	0.2	0.1	0.1	0.4	100.0(962)
X ² (df)	8.77(10)											
가구소득 ¹⁾												
60% 미만	10.8	40.8	30.1	5.1	5.3	1.0	5.4	0.4	0.2	0.0	0.8	100.0(919)
60 - 80% 미만	13.6	40.1	27.0	4.3	8.2	1.1	5.0	0.0	0.0	0.5	0.2	100.0(441)
80 - 100% 미만	10.8	43.3	27.8	5.3	7.4	0.5	4.3	0.2	0.0	0.5	0.0	100.0(418)
100 - 120% 미만	12.4	36.1	31.4	6.1	5.8	1.9	6.1	0.0	0.3	0.0	0.0	100.0(363)
120 - 140% 미만	13.1	41.0	28.2	4.6	7.4	0.9	4.6	0.0	0.3	0.0	0.0	100.0(351)
140 - 160% 미만	10.5	38.9	29.5	7.9	3.7	0.5	7.9	0.0	0.0	0.0	1.1	100.0(190)
160% 이상	12.6	45.0	25.8	4.7	3.8	0.3	6.0	0.3	1.6	0.0	0.0	100.0(318)
X ² (df)	85.80(60)*											

①균형있는 발달, ②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안전한 보호, ④자유놀이 중심 활동, ⑤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쓰가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⑦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특별활동, ⑨충분한 휴식, ⑩기타, ⑪없음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유치원에서 강조해야 할 점, 1+2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 ②인성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64.9%로 가장 높았고 기타, 없음을 제외하고 ⑧특별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로 가장 낮았다.

표 III-3-16 유치원에서 강조해야 할 점 - 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1순위	11.8	40.8	28.8	5.2	6.1	0.9	5.4	0.2	0.3	0.1	0.3	100.0(3,000)
2순위	18.0	24.1	18.0	10.9	15.2	2.8	7.7	1.1	2.0	0.1	-	100.0(2,990)
1+2순위	29.8	64.9	46.7	16.1	21.2	3.8	13.0	1.3	2.3	0.2	0.3	(3000)

①균형있는 발달, ②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안전한 보호, ④자유놀이 중심 활동, ⑤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쓰개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⑦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특별활동, ⑨충분한 휴식, ⑩기타, ⑪없음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③안전한 보호라고 응답한 비율은 36.6%로 가장 높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점 -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12.0	32.6	36.6	5.4	5.8	1.1	4.9	0.4	0.7	0.1	0.3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0.3	32.8	34.5	3.4	6.9	3.4	6.9	1.7	0.0	0.0	0.0	100.0(58)
20대	9.3	30.4	40.2	7.1	5.7	1.1	5.2	0.5	0.5	0.0	0.0	100.0(632)
30대	12.9	25.4	43.4	5.0	5.8	1.0	6.2	0.2	0.0	0.2	0.0	100.0(519)
40대	12.7	32.1	35.6	4.6	8.1	1.3	4.0	0.2	0.6	0.2	0.8	100.0(630)
50대	11.8	36.2	33.3	5.3	4.8	0.6	5.9	0.3	1.3	0.0	0.5	100.0(625)
60대 이상	13.8	38.8	31.3	5.2	4.5	1.3	3.2	0.6	0.9	0.2	0.2	100.0(536)
X ² (df)							89.74(50)*					
영유아자녀유무												
유	11.7	26.5	41.8	7.4	6.2	1.4	4.1	0.5	0.2	0.3	0.0	100.0(582)
무	13.2	35.8	32.2	5.3	6.1	0.9	5.0	0.3	0.9	0.1	0.3	100.0(1,534)
X ² (df)							35.39(10)*					
취업 여부												
취업	12.2	32.7	35.8	5.9	5.8	1.1	5.1	0.3	0.8	0.1	0.3	100.0(2,139)
미취업	11.7	33.1	38.7	3.9	6.1	1.0	4.2	0.5	0.4	0.0	0.3	100.0(785)
X ² (df)							10.16(1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2.4	31.3	37.3	5.9	6.1	0.9	4.7	0.4	0.7	0.1	0.1	100.0(1,350)
맞벌이 아님	12.6	34.1	34.7	5.5	5.5	1.1	4.8	0.4	0.7	0.1	0.4	100.0(962)
X ² (df)							4.92(1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가구소득 ¹⁾												
60% 미만	12.3	30.7	38.0	5.5	5.9	1.4	4.5	0.7	0.4	0.0	0.7	100.0(919)
60 - 80% 미만	11.3	36.5	34.9	4.3	5.7	0.7	5.4	0.0	0.7	0.5	0.0	100.0(441)
80 - 100% 미만	12.9	38.5	30.1	5.0	6.5	1.2	4.1	0.7	0.5	0.2	0.2	100.0(418)
100 - 120% 미만	9.9	30.0	43.8	4.1	4.7	0.8	5.2	0.3	1.1	0.0	0.0	100.0(363)
120 - 140% 미만	13.7	28.8	40.5	5.1	7.7	0.9	3.1	0.0	0.3	0.0	0.0	100.0(351)
140 - 160% 미만	14.2	28.9	32.6	8.4	5.8	0.5	6.8	0.0	1.6	0.0	1.1	100.0(190)
160% 이상	10.1	34.6	33.6	7.2	4.4	1.6	7.2	0.3	0.9	0.0	0.0	100.0(318)
X ² (df)	85.57(60)*											

①균형있는 발달, ②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안전한 보호, ④자유놀이 중심 활동, ⑤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쓰가읽기를 강조한 인지도육, ⑦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특별활동, ⑨충분한 휴식, ⑩기타, ⑪없음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1+2순위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한 결과 ③안전한 보호라고 응답한 비율은 55.4%로 가장 높았고 인성 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55.3%였다. 기타, 없음을 제외하고 ⑧특별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가장 낮았다.

표 III-3-18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점 - 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1순위	12.0	32.6	36.6	5.4	5.8	1.1	4.9	0.4	0.7	0.1	0.3	100.0(3,000)
2순위	17.6	22.7	18.8	11.9	15.4	2.7	7.3	1.6	1.8	0.1	-	100.0(2,991)
1+2순위	29.5	55.3	55.4	17.3	21.2	3.8	12.2	2.0	2.5	0.2	0.3	(3,000)

①균형있는 발달, ②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안전한 보호, ④자유놀이 중심 활동, ⑤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쓰가읽기를 강조한 인지도육, ⑦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특별활동, ⑨충분한 휴식, ⑩기타, ⑪없음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치원 선택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집과의 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23.6%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형제 재원 여부,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0.2%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9 유치원 선택 시 고려할 점 - 1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학부 비용 부담	집과 의 거리	국공 립 등 여부	주변 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 그램	기타	모르 겠음	수
전체	12.3	9.3	23.6	19.4	9.1	1.5	0.2	13.9	8.3	0.2	2.2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2.1	15.5	15.5	5.2	12.1	6.9	0.0	17.2	8.6	1.7	5.2	100.0(58)
20대	13.3	8.9	23.3	16.1	13.4	1.7	0.6	15.5	4.0	0.0	3.2	100.0(632)
30대	16.8	7.3	26.2	15.8	9.4	1.3	0.2	13.1	7.9	0.4	1.5	100.0(519)
40대	12.9	8.9	22.1	19.4	9.2	0.8	0.3	16.7	7.5	0.2	2.2	100.0(630)
50대	9.6	10.6	25.1	20.5	8.0	0.8	0.0	12.5	11.4	0.0	1.6	100.0(625)
60대 이상	9.3	9.9	22.4	27.2	4.5	2.2	0.0	10.8	11.2	0.6	1.9	100.0(536)
X ² (df)												166.74(50)*
영유아자녀유무												
유	14.1	9.5	26.6	16.3	11.2	1.4	0.5	12.7	6.7	0.3	0.7	100.0(582)
무	10.4	10.0	23.7	22.3	7.0	1.3	0.1	13.3	10.2	0.2	1.6	100.0(1,534)
X ² (df)												34.245(10)*
취업 여부												
취업	13.6	9.4	23.0	19.3	9.2	1.4	0.3	13.6	8.6	0.2	1.6	100.0(2,139)
미취업	8.8	8.9	25.6	20.1	9.0	1.4	0.0	15.2	7.8	0.3	2.9	100.0(785)
X ² (df)												22.042(1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5.0	8.7	23.0	19.4	9.2	1.1	0.3	13.3	8.4	0.2	1.4	100.0(1,350)
맞벌이 아님	8.7	10.3	26.1	21.8	7.6	1.7	0.1	12.0	9.5	0.3	2.0	100.0(962)
X ² (df)												29.736(10)*
가구소득 ¹⁾												
60% 미만	10.0	10.0	23.1	19.3	9.6	2.2	0.1	15.1	6.3	0.3	4.0	100.0(919)
60 - 80% 미만	12.0	11.1	24.9	20.4	6.1	1.4	0.2	11.6	9.3	0.5	2.5	100.0(441)
80 - 100% 미만	12.4	9.1	23.7	19.1	9.1	1.2	0.5	15.3	8.9	0.0	0.7	100.0(418)
100 - 120% 미만	15.4	8.8	21.8	19.6	10.7	0.6	0.0	14.3	7.4	0.3	1.1	100.0(363)
120 - 140% 미만	14.0	8.0	23.6	17.4	10.5	0.9	0.3	12.5	11.1	0.3	1.4	100.0(351)
140 - 160% 미만	12.1	6.3	23.7	23.7	8.9	0.5	0.5	11.6	11.1	0.0	1.6	100.0(190)
160% 이상	13.8	8.5	25.2	18.6	8.5	2.2	0.3	14.2	8.2	0.0	0.6	100.0(318)
X ² (df)												79.955(6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1+2순위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한 결과, 집과의 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38.3%로 가장 높았고, 기타, 모르겠다는 대답을 제외하고 형제 재원 여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가장 낮았다.

표 III-3-20 유치원 선택 시 고려할 점 - 1순위+2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학부 모 비용 부담	집과 의 거리	국공 립 등 여부	주변 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 그램	기타	모르 겠음	수
1순위	12.3	9.3	23.6	19.4	9.1	1.5	0.2	13.9	8.3	0.2	2.2	100.0(3,000)
2순위	12.1	13.9	15.0	10.6	12.7	3.9	0.9	16.0	14.7	0.2	-	100.0(2,936)
1+2순위	24.1	22.9	38.3	29.8	21.6	5.3	1.1	29.6	22.6	0.4	2.2	(3,00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집과의 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1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할 점 - 1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학부 모 비용 부담	집과 의 거리	국공 립 등 여부	주변 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 그램	기타	모르 겠음	수
전체	13.9	9.2	26.2	14.9	10.1	1.5	0.3	15.4	6.2	0.3	2.0	100.0(3,000)
연령												
10대 이하	12.1	12.1	17.2	6.9	15.5	3.4	0.0	17.2	6.9	1.7	6.9	100.0(58)
20대	15.3	10.1	23.6	11.1	14.1	1.7	0.5	17.1	4.0	0.0	2.5	100.0(632)
30대	18.1	7.1	29.5	12.7	10.6	1.2	0.4	14.3	5.0	0.4	0.8	100.0(519)
40대	13.2	9.4	24.4	15.4	10.5	1.1	0.2	17.3	6.3	0.2	2.1	100.0(630)
50대	11.2	10.4	28.0	15.5	8.6	2.1	0.5	14.4	7.4	0.2	1.8	100.0(625)
60대 이상	12.5	8.2	26.9	21.1	5.6	1.3	0.2	13.1	8.2	0.6	2.4	100.0(536)
X ² (df)						116.53(50)*						
영유아자녀유무												
유	15.6	9.5	29.0	11.5	12.7	1.4	0.3	13.9	5.3	0.3	0.3	100.0(582)
무	12.2	9.5	26.9	17.5	8.0	1.6	0.3	15.3	6.8	0.3	1.7	100.0(1,534)
X ² (df)						32.46(10)*						
취업 여부												
취업	15.7	9.6	25.5	14.6	9.8	1.4	0.4	14.7	6.4	0.3	1.6	100.0(2,139)
미취업	8.9	8.3	28.8	15.3	11.2	1.8	0.1	17.5	5.5	0.3	2.4	100.0(785)
X ² (df)						30.74(1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7.2	8.4	25.3	15.0	10.5	1.0	0.4	15.0	5.9	0.2	1.0	100.0(1,350)

구분	운영 시간	학부모 비용 부담	집과 의 거리	국공립 등 여부	주변 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 그램	기타	모르 겠음	수
맞벌이 아님	8.7	10.6	30.0	16.4	8.9	2.1	0.2	13.8	6.7	0.4	2.1	100.0(962)
$\chi^2(df)$												49.95(10)*
가구소득 ¹⁾												
60% 미만	11.4	11.1	25.5	13.8	10.4	2.1	0.3	16.4	4.8	0.4	3.7	100.0(919)
60 - 80% 미만	13.8	10.0	26.1	16.6	9.1	1.6	0.2	12.9	7.0	0.5	2.3	100.0(441)
80 - 100% 미만	11.7	8.9	25.4	16.7	9.8	2.2	0.2	15.6	8.6	0.0	1.0	100.0(418)
100 - 120% 미만	15.4	9.6	25.3	14.0	11.0	0.6	0.3	16.5	5.8	0.3	1.1	100.0(363)
120 - 140% 미만	17.7	6.3	27.4	14.5	10.8	0.9	0.3	14.2	6.8	0.3	0.9	100.0(351)
140 - 160% 미만	16.3	6.8	28.4	19.5	6.8	1.1	0.0	14.2	5.3	0.0	1.6	100.0(190)
160% 이상	17.0	7.2	27.7	11.9	11.0	1.3	0.9	16.0	6.0	0.0	0.9	100.0(318)
$\chi^2(df)$												81.60(6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1+2순위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한 결과, 집과의 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43.0%로 가장 높았고 기타, 모르겠다는 대답을 제외하고 형제 재원 여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1.2%로 가장 낮았다.

■ 표 III-3-22 ■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할 점 - 1+2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학부모 비용 부담	집과 의 거리	국공립 등 여부	주변 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 그램	기타	모르 겠음	수
1순위	13.9	9.2	26.2	14.9	10.1	1.5	0.3	15.4	6.2	0.3	2.0	100.0(3,000)
2순위	12.4	12.1	17.2	10.6	15.0	3.9	0.9	16.0	11.8	0.1	-	100.0(2,939)
1+2순위	26.1	21.0	43.0	25.3	24.8	5.4	1.2	31.0	17.7	0.4	2.0	(3,00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치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6%로 가장 높았고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3 유치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신뢰함	약간 신뢰함	보통	별로 신뢰하지 못함	전혀 신뢰하지 못함	수	평균
전체	1.4	31.1	49.6	14.9	3.0	100.0(3,000)	3.13
연령							
10대 이하	1.7	32.8	48.3	13.8	3.4	100.0(58)	3.16
20대	1.7	24.7	50.6	17.4	5.5	100.0(632)	3.00
30대	2.7	31.0	49.1	15.0	2.1	100.0(519)	3.17
40대	0.6	31.9	51.1	13.3	3.0	100.0(630)	3.14
50대	1.1	33.3	49.6	14.1	1.9	100.0(625)	3.18
60대 이상	0.7	35.1	47.4	14.9	1.9	100.0(536)	3.18
X ² (df)/F			48.82(20)***				4.83***
영유아자녀유무							
유	2.7	32.8	45.2	15.1	4.1	100.0(582)	3.15
무	1.0	34.0	49.5	13.9	1.7	100.0(1,534)	3.19
X ² (df)/t			21.79(4)***				0.98
취업 여부							
취업	1.4	30.2	49.9	15.7	2.9	100.0(2,139)	3.12
미취업	1.3	34.4	47.8	13.6	2.9	100.0(785)	3.17
X ² (df)/t			5.54(4)				1.8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3	30.8	50.4	15.0	2.4	100.0(1,350)	3.13
맞벌이 아님	1.4	35.3	46.9	13.6	2.8	100.0(962)	3.19
X ² (df)/t			6.09(4)				1.65
가구소득 ¹⁾							
60% 미만	1.4	29.9	49.6	15.2	3.8	100.0(919)	3.10
60 - 80% 미만	1.4	30.4	48.5	16.3	3.4	100.0(441)	3.10
80 - 100% 미만	1.4	29.9	50.2	16.0	2.4	100.0(418)	3.12
100 - 120% 미만	1.4	32.5	51.0	13.8	1.4	100.0(363)	3.19
120 - 140% 미만	0.6	36.8	50.4	10.3	2.0	100.0(351)	3.24
140 - 160% 미만	1.1	31.1	46.3	17.4	4.2	100.0(190)	3.07
160% 이상	2.2	29.2	50.0	15.7	2.8	100.0(318)	3.12
X ² (df)/F			24.51(24)				1.93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1$.

어린이집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0%로 가장 높았고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24 어린이집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신뢰함	약간 신뢰함	보통	별로 신뢰하지 못함	전혀 신뢰하지 못함	수	평균
전체	1.5	23.1	50.0	21.3	4.1	100.0(3,000)	2.97
연령							
10대 이하	0.0	25.9	55.2	15.5	3.4	100.0(58)	3.03
20대	1.3	19.1	48.4	24.8	6.3	100.0(632)	2.84
30대	2.5	23.5	49.3	20.6	4.0	100.0(519)	3.00
40대	1.1	22.2	52.5	20.0	4.1	100.0(630)	2.96
50대	1.9	24.0	50.9	20.5	2.7	100.0(625)	3.02
60대 이상	0.7	27.2	47.8	20.9	3.4	100.0(536)	3.01
X ² (df)/F			35.90(20)*				4.05**
영유아자녀유무							
유	2.9	28.9	47.1	16.3	4.8	100.0(582)	3.09
무	1.4	24.1	51.0	20.7	2.8	100.0(1,534)	3.01
X ² (df)/t			19.95(4)**				-2.09*
취업 여부							
취업	1.6	22.6	49.6	22.0	4.2	100.0(2,139)	2.95
미취업	1.1	25.1	50.6	19.5	3.7	100.0(785)	3.01
X ² (df)/t			4.69(4)				1.49
맞벌이 유무							
맞벌이	1.7	24.0	49.7	21.2	3.4	100.0(1,350)	2.99
맞벌이 아님	1.4	24.4	50.3	20.1	3.8	100.0(962)	2.99
X ² (df)/t			1.18(4)				-0.01
가구소득 ¹⁾							
60% 미만	1.6	22.5	49.8	20.7	5.3	100.0(919)	2.94
60 - 80% 미만	1.6	24.7	47.6	22.7	3.4	100.0(441)	2.98
80 - 100% 미만	1.0	22.2	50.7	21.8	4.3	100.0(418)	2.94
100 - 120% 미만	1.4	21.5	51.5	22.6	3.0	100.0(363)	2.96
120 - 140% 미만	0.6	26.8	51.0	17.9	3.7	100.0(351)	3.03
140 - 160% 미만	2.1	21.1	46.3	24.7	5.8	100.0(190)	2.89
160% 이상	2.2	23.0	51.9	20.8	2.2	100.0(318)	3.02
X ² (df)/F			22.69(24)				1.07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유치원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 중 유치원에 대해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인성이 좋은 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83.4%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면 학력이 높은 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낮았다.

■ 표 III-3-25 ■ 유치원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단위: %(명)

구분	학력이 높은 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교육보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	인성이 좋은 교사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기타	수
전체	1.4	7.4	22.8	83.4	11.7	73.2	0.1	(3,000)
연령								
10대 이하	3.4	17.2	25.9	84.5	10.3	58.6	0.0	(58)
20대	3.6	9.2	25.9	77.4	17.2	66.5	0.2	(632)
30대	0.6	7.7	24.3	81.5	12.7	73.0	0.2	(519)
40대	1.1	6.5	19.5	86.3	12.5	74.0	0.0	(630)
50대	0.6	6.2	18.6	88.3	8.0	78.2	0.0	(625)
60대 이상	0.4	6.5	25.9	83.0	7.8	76.1	0.2	(536)
영유아자녀유무								
유	1.5	8.4	23.2	83.3	15.1	68.4	0.0	(582)
무	0.6	6.5	20.7	85.5	9.2	77.4	0.1	(1,534)
취업 여부								
취업	1.4	7.2	23.0	83.5	12.4	72.5	0.1	(2,139)
미취업	1.1	7.9	20.9	83.8	9.4	76.7	0.1	(785)
맞벌이 유무								
맞벌이	1.1	7.0	23.7	84.0	11.9	72.3	0.0	(1,350)
맞벌이 아님	1.0	7.2	19.5	84.4	9.5	78.3	0.1	(962)
가구소득 ¹⁾								
60% 미만	1.7	8.1	21.2	81.9	13.1	73.7	0.3	(919)
60 - 80% 미만	0.9	7.9	23.8	82.8	11.1	73.5	0.0	(441)
80 - 100% 미만	1.0	6.5	23.9	83.0	12.2	73.4	0.0	(418)
100 - 120% 미만	1.4	7.2	19.0	85.4	12.4	74.7	0.0	(363)
120 - 140% 미만	1.1	6.8	26.2	85.2	9.4	71.2	0.0	(351)
140 - 160% 미만	2.6	6.3	23.7	84.7	10.0	72.6	0.0	(190)
160% 이상	0.9	7.9	24.2	84.0	11.0	72.0	0.0	(3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어린이집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 중 어린이집에 대해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인성이 좋은 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83.9%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면 학력이 높은 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1.3%로 가장 낮았다.

표 Ⅲ-3-26 어린이집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단위: %(명)

구분	학력이 높은 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교육보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	인성이 좋은 교사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기타	수
전체	1.3	7.8	19.7	83.9	12.3	74.9	0.1	(3,000)
연령								
10대 이하	1.7	13.8	27.6	89.7	19.0	48.3	0.0	(58)
20대	3.2	8.9	24.7	77.4	18.0	67.7	0.2	(632)
30대	1.2	6.2	15.2	83.4	14.6	79.0	0.4	(519)
40대	0.8	7.6	16.2	86.2	11.6	77.6	0.0	(630)
50대	0.5	7.7	18.4	87.7	8.2	77.6	0.0	(625)
60대 이상	0.7	7.6	23.1	84.5	8.2	75.7	0.0	(536)
영유아자녀유무								
유	1.7	9.6	16.3	83.5	13.6	75.1	0.2	(582)
무	0.6	7.4	18.5	86.2	9.8	77.4	0.0	(1,534)
취업 여부								
취업	1.3	7.8	19.4	83.5	12.5	75.3	0.1	(2,139)
미취업	0.9	7.8	19.6	85.4	11.7	74.6	0.0	(785)
맞벌이 유무								
맞벌이	1.3	8.1	19.3	83.9	12.0	75.3	0.1	(1,350)
맞벌이 아님	0.6	7.7	16.7	85.8	10.7	78.5	0.0	(962)
가구소득 ¹⁾								
60% 미만	1.4	7.9	21.7	82.7	13.9	72.1	0.2	(919)
60 - 80% 미만	0.5	7.5	19.7	84.6	11.8	76.0	0.0	(441)
80 - 100% 미만	1.2	8.1	20.3	83.3	11.0	76.1	0.0	(418)
100 - 120% 미만	1.1	6.6	14.6	86.8	11.8	79.1	0.0	(363)
120 - 140% 미만	0.9	8.0	19.9	83.8	9.7	77.5	0.3	(351)
140 - 160% 미만	2.1	4.2	19.5	85.8	15.3	73.2	0.0	(190)
160% 이상	2.5	10.4	19.2	83.3	11.6	73.0	0.0	(3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기대효과

육아지원 정책 중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2%로 나타났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39.5%)였으며, 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3-27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1)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29.6	49.2	17.3	3.0	0.9	100.0(3,000)	4.04
연령							
10대 이하	17.2	48.3	32.8	1.7	0.0	100.0(58)	3.81
20대	24.2	47.0	23.7	4.0	1.1	100.0(632)	3.89
30대	39.5	39.7	17.0	2.7	1.2	100.0(519)	4.14
40대	28.6	53.3	15.7	1.9	0.5	100.0(630)	4.08
50대	25.6	55.4	15.0	3.0	1.0	100.0(625)	4.02
60대 이상	33.8	49.3	12.9	3.4	0.7	100.0(536)	4.12
X ² (df)/F			90.15(20)***				7.99***
영유아자녀유무							
유	41.6	34.7	17.9	4.6	1.2	100.0(582)	4.07
무	28.4	53.2	15.1	2.5	0.8	100.0(1,534)	3.96
X ² (df)/t			62.02(4)***				-1.27
취업 여부							
취업	30.2	49.1	16.6	3.1	1.0	100.0(2,139)	4.04
미취업	28.8	49.4	18.9	2.5	0.4	100.0(785)	4.04
X ² (df)/t			5.47(4)				-0.19
맞벌이 유무							
맞벌이	32.0	48.3	16.0	2.7	1.0	100.0(1,350)	4.08
맞벌이 아님	30.9	50.5	14.8	2.9	0.9	100.0(962)	4.07
X ² (df)/t			1.41(4)				-.04
가구소득 ¹⁾							
60% 미만	25.7	51.0	19.8	2.7	0.8	100.0(919)	3.98
60 - 80% 미만	31.3	46.5	17.9	2.7	1.6	100.0(441)	4.03
80 - 100% 미만	31.1	48.6	15.3	4.1	1.0	100.0(418)	4.05
100 - 120% 미만	31.7	49.6	14.3	3.6	0.8	100.0(363)	4.08
120 - 140% 미만	30.8	50.1	16.8	2.0	0.3	100.0(351)	4.09
140 - 160% 미만	31.6	50.5	14.7	2.6	0.5	100.0(190)	4.10
160% 이상	32.1	46.5	17.3	3.1	0.9	100.0(318)	4.06
X ² (df)/F			24.16(24)				1.35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1$.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도입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5%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8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2)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11.6	37.3	39.5	9.1	2.5	100.0(3,000)	3.46
연령							
10대 이하	13.8	19.0	53.4	13.8	0.0	100.0(58)	3.33
20대	10.6	31.3	44.8	10.3	3.0	100.0(632)	3.36
30대	16.2	38.2	36.2	7.1	2.3	100.0(519)	3.59
40대	12.2	35.1	41.4	8.1	3.2	100.0(630)	3.45
50대	7.8	41.4	37.9	11.0	1.8	100.0(625)	3.43
60대 이상	11.6	43.5	34.3	8.2	2.4	100.0(536)	3.54
X ² (df)/F			64.96(20)***				4.78***
영유아자녀유무							
유	18.7	35.2	35.6	7.2	3.3	100.0(582)	3.59
무	9.6	41.2	38.2	8.9	2.1	100.0(1,534)	3.47
X ² (df)/t			37.66(4)***				-2.67**
취업 여부							
취업	12.1	38.1	38.4	8.6	2.8	100.0(2,139)	3.48
미취업	10.6	35.5	42.2	10.1	1.7	100.0(785)	3.43
X ² (df)/t			8.62(4)				-1.26
맞벌이 유무							
맞벌이	12.5	38.4	38.7	7.9	2.4	100.0(1,350)	3.51
맞벌이 아님	11.6	40.3	36.9	9.0	2.1	100.0(962)	3.50
X ² (df)/t			2.65(4)				-0.09
가구소득 ¹⁾							
60% 미만	11.3	34.1	41.6	10.0	3.0	100.0(919)	3.41
60 - 80% 미만	10.9	35.6	41.3	9.8	2.5	100.0(441)	3.43
80 - 100% 미만	11.5	40.7	39.2	6.2	2.4	100.0(418)	3.53
100 - 120% 미만	10.2	38.6	40.2	8.3	2.8	100.0(363)	3.45
120 - 140% 미만	12.5	41.0	37.6	7.4	1.4	100.0(351)	3.56
140 - 160% 미만	13.7	38.9	36.8	8.4	2.1	100.0(190)	3.54
160% 이상	12.6	38.4	34.0	12.9	2.2	100.0(318)	3.46
X ² (df)/F			26.93(24)				1.96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확대하는 것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3%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9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23.8	51.3	20.4	3.4	1.1	100.0(3,000)	3.93
연령							
10대 이하	19.0	53.4	22.4	3.4	1.7	100.0(58)	3.84
20대	22.6	44.5	27.4	4.6	0.9	100.0(632)	3.83
30대	31.0	44.7	20.0	2.1	2.1	100.0(519)	4.00
40대	24.3	55.2	17.5	2.4	0.6	100.0(630)	4.00
50대	18.2	56.0	20.6	3.8	1.3	100.0(625)	3.86
60대 이상	24.8	55.2	15.7	3.7	0.6	100.0(536)	4.00
X ² (df)/F			76.59(20)***				5.42***
영유아자녀유무							
유	35.2	40.7	19.2	3.6	1.2	100.0(582)	4.05
무	20.8	56.4	18.6	3.3	1.0	100.0(1,534)	3.93
X ² (df)/t			55.81(4)***				-3.14**
취업 여부							
취업	24.4	51.3	19.9	3.2	1.2	100.0(2,139)	3.94
미취업	23.2	51.0	21.3	3.7	0.9	100.0(785)	3.92
X ² (df)/t			1.65(4)				-0.77
맞벌이 유무							
맞벌이	25.9	51.1	18.5	3.3	1.3	100.0(1,350)	3.97
맞벌이 아님	24.0	53.1	18.7	3.4	0.7	100.0(962)	3.96
X ² (df)/t			2.78(4)				-0.23
가구소득 ¹⁾							
60% 미만	21.3	49.6	24.4	3.3	1.4	100.0(919)	3.86
60 - 80% 미만	26.3	47.4	22.7	2.7	0.9	100.0(441)	3.95
80 - 100% 미만	26.3	52.9	17.2	2.4	1.2	100.0(418)	4.01
100 - 120% 미만	22.3	56.5	16.5	4.1	0.6	100.0(363)	3.96
120 - 140% 미만	25.9	48.7	20.8	4.0	0.6	100.0(351)	3.95
140 - 160% 미만	24.7	56.3	14.2	3.2	1.6	100.0(190)	3.99
160% 이상	23.3	53.1	17.9	4.4	1.3	100.0(318)	3.93
X ² (df)/F			35.94(24)				2.06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0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36.9	42.5	16.8	2.9	0.8	100.0(3,000)	4.12
연령							
10대 이하	41.4	29.3	27.6	1.7	0.0	100.0(58)	4.10
20대	37.7	35.8	21.2	4.3	1.1	100.0(632)	4.05
30대	42.2	36.0	17.1	2.9	1.7	100.0(519)	4.14
40대	32.2	46.8	17.0	3.3	0.6	100.0(630)	4.07
50대	34.7	45.8	16.6	2.2	0.6	100.0(625)	4.12
60대 이상	38.6	49.3	10.3	1.7	0.2	100.0(536)	4.24
X ² (df)/F			76.47(20)***				3.88**
영유아자녀유무							
유	40.7	33.3	20.1	4.3	1.5	100.0(582)	4.07
무	34.9	47.5	14.8	2.2	0.6	100.0(1,534)	4.14
X ² (df)/t			41.59(4)***				1.61
취업 여부							
취업	36.7	42.2	17.1	3.0	1.0	100.0(2,139)	4.10
미취업	38.2	43.4	15.9	2.2	0.3	100.0(785)	4.17
X ² (df)/t			6.78(4)				1.93
맞벌이 유무							
맞벌이	37.7	40.7	17.4	3.1	1.1	100.0(1,350)	4.11
맞벌이 아님	36.0	45.7	15.5	2.3	0.5	100.0(962)	4.14
X ² (df)/t			8.73(4)				1.01
가구소득 ¹⁾							
60% 미만	35.7	42.8	18.4	2.5	0.7	100.0(919)	4.10
60 - 80% 미만	34.2	45.6	17.5	2.0	0.7	100.0(441)	4.11
80 - 100% 미만	40.2	39.5	15.6	3.3	1.4	100.0(418)	4.14
100 - 120% 미만	37.7	41.6	17.9	2.5	0.3	100.0(363)	4.14
120 - 140% 미만	36.2	43.3	14.2	5.4	0.9	100.0(351)	4.09
140 - 160% 미만	39.5	41.1	16.8	2.6	0.0	100.0(190)	4.17
160% 이상	38.4	42.5	14.8	2.5	1.9	100.0(318)	4.13
X ² (df)/F			28.94(24)				0.37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0%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1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5)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34.2	46.0	16.9	2.1	0.8	100.0(3,000)	4.11
연령							
10대 이하	37.9	31.0	29.3	1.7	0.0	100.0(58)	4.05
20대	34.2	39.4	22.5	3.3	0.6	100.0(632)	4.03
30대	41.8	39.3	15.4	2.1	1.3	100.0(519)	4.18
40대	32.4	49.0	16.3	1.6	0.6	100.0(630)	4.11
50대	28.8	53.4	14.4	2.4	1.0	100.0(625)	4.07
60대 이상	34.9	49.4	13.8	1.1	0.7	100.0(536)	4.17
X ² (df)/F			72.98(20)***				2.88*
영유아자녀유무							
유	43.6	34.5	17.9	2.9	1.0	100.0(582)	4.17
무	30.4	52.0	14.7	2.0	0.9	100.0(1,534)	4.09
X ² (df)/t			53.63(4)***				-1.99
취업 여부							
취업	35.0	45.2	16.6	2.3	0.8	100.0(2,139)	4.11
미취업	32.6	48.2	16.9	1.5	0.8	100.0(785)	4.10
X ² (df)/t			3.72(4)				-0.28
맞벌이 유무							
맞벌이	35.9	44.6	16.0	2.6	1.0	100.0(1,350)	4.12
맞벌이 아님	33.0	50.1	15.1	1.1	0.7	100.0(962)	4.13
X ² (df)/t			11.60(4)*				0.48
가구소득 ¹⁾							
60% 미만	32.3	44.7	20.1	2.0	0.9	100.0(919)	4.06
60 - 80% 미만	36.1	44.0	16.8	2.3	0.9	100.0(441)	4.12
80 - 100% 미만	35.6	48.6	12.9	1.9	1.0	100.0(418)	4.16
100 - 120% 미만	33.9	46.6	17.1	1.9	0.6	100.0(363)	4.11
120 - 140% 미만	33.9	46.2	16.8	2.8	0.3	100.0(351)	4.11
140 - 160% 미만	37.4	44.2	15.3	1.6	1.6	100.0(190)	4.14
160% 이상	34.0	49.1	13.5	2.5	0.9	100.0(318)	4.13
X ² (df)/F			21.15(24)				1.0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시간제 보육 지원 개선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9%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9%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2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6) 시간제 보육 지원 기준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18.8	46.9	30.5	2.9	0.9	100.0(3,000)	3.80
연령							
10대 이하	20.7	31.0	44.8	3.4	0.0	100.0(58)	3.69
20대	23.3	38.0	34.8	3.3	0.6	100.0(632)	3.80
30대	26.6	42.8	26.2	2.1	2.3	100.0(519)	3.89
40대	18.1	47.9	30.3	2.9	0.8	100.0(630)	3.80
50대	11.2	53.4	31.7	2.9	0.8	100.0(625)	3.71
60대 이상	15.7	54.1	27.1	3.2	0.0	100.0(536)	3.82
X ² (df)/F			106.22(20)***				3.12**
영유아자녀유무							
유	28.2	40.7	27.0	2.7	1.4	100.0(582)	3.92
무	13.3	53.4	29.4	3.2	0.7	100.0(1,534)	3.75
X ² (df)/t			70.45(4)***				-4.23***
취업 여부							
취업	19.7	46.8	29.5	3.0	1.0	100.0(2,139)	3.81
미취업	16.6	47.5	33.0	2.5	0.4	100.0(785)	3.77
X ² (df)/t			8.33(4)				-1.19
맞벌이 유무							
맞벌이	20.8	46.7	28.2	3.0	1.2	100.0(1,350)	3.83
맞벌이 아님	15.6	51.1	29.8	2.9	0.5	100.0(962)	3.78
X ² (df)/t			13.73(4)**				-1.36
가구소득 ¹⁾							
60% 미만	17.8	44.3	34.2	3.0	0.7	100.0(919)	3.76
60 - 80% 미만	19.5	48.1	29.0	2.3	1.1	100.0(441)	3.83
80 - 100% 미만	17.9	49.5	29.4	2.2	1.0	100.0(418)	3.81
100 - 120% 미만	23.7	46.6	25.3	3.3	1.1	100.0(363)	3.88
120 - 140% 미만	19.4	48.4	28.2	3.7	0.3	100.0(351)	3.83
140 - 160% 미만	17.4	45.8	33.7	2.1	1.1	100.0(190)	3.76
160% 이상	16.7	48.4	30.2	3.5	1.3	100.0(318)	3.76
X ² (df)/F			24.12(24)				1.5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3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7)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24.6	45.3	25.3	3.4	1.3	100.0(3,000)	3.88
연령							
10대 이하	25.9	37.9	34.5	1.7	0.0	100.0(58)	3.88
20대	24.5	37.3	32.3	4.1	1.7	100.0(632)	3.79
30대	29.3	41.4	22.5	4.2	2.5	100.0(519)	3.91
40대	21.9	48.7	24.1	4.0	1.3	100.0(630)	3.86
50대	20.0	49.8	26.4	2.7	1.1	100.0(625)	3.85
60대 이상	28.4	50.2	19.0	2.2	0.2	100.0(536)	4.04
X ² (df)/F			76.47(20)***				5.65***
영유아자녀유무							
유	31.4	38.8	23.7	3.8	2.2	100.0(582)	3.93
무	22.3	50.1	23.8	2.9	0.8	100.0(1,534)	3.90
X ² (df)/t			33.24(4)***				-0.82
취업 여부							
취업	26.1	45.1	23.9	3.5	1.4	100.0(2,139)	3.91
미취업	21.7	46.0	28.0	3.2	1.1	100.0(785)	3.84
X ² (df)/t			8.83(4)				-2.05*
맞벌이 유무							
맞벌이	27.0	44.1	24.0	3.6	1.4	100.0(1,350)	3.92
맞벌이 아님	23.4	48.6	24.0	2.8	1.1	100.0(962)	3.90
X ² (df)/t			6.65(4)				-0.36
가구소득 ¹⁾							
60% 미만	24.2	43.3	28.0	3.3	1.3	100.0(919)	3.86
60 - 80% 미만	22.9	46.0	26.1	2.7	2.3	100.0(441)	3.85
80 - 100% 미만	25.4	45.7	24.9	2.9	1.2	100.0(418)	3.91
100 - 120% 미만	25.3	50.4	19.8	3.3	1.1	100.0(363)	3.96
120 - 140% 미만	26.8	42.7	25.6	4.3	0.6	100.0(351)	3.91
140 - 160% 미만	25.3	45.3	23.7	5.3	0.5	100.0(190)	3.89
160% 이상	23.3	46.9	24.2	3.8	1.9	100.0(318)	3.86
X ² (df)/F			22.81(24)				0.8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Ⅲ-3-34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 8) 아이돌보미 대기수요 해소/서비스 다양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22.6	46.8	26.7	2.8	1.1	100.0(3,000)	3.87
연령							
10대 이하	31.0	32.8	34.5	1.7	0.0	100.0(58)	3.93
20대	22.0	38.1	36.1	2.4	1.4	100.0(632)	3.77
30대	32.2	40.7	22.4	2.7	2.1	100.0(519)	3.98
40대	20.8	50.0	25.1	3.5	0.6	100.0(630)	3.87
50대	16.3	53.1	26.7	3.0	0.8	100.0(625)	3.81
60대 이상	22.4	53.5	21.1	2.4	0.6	100.0(536)	3.95
X ² (df)/F			107.98(20)***				5.43***
영유아자녀유무							
유	33.5	38.0	22.9	3.4	2.2	100.0(582)	3.97
무	18.1	53.6	24.6	2.9	0.7	100.0(1,534)	3.85
X ² (df)/t			74.99(4)***				-2.90**
취업 여부							
취업	23.1	47.3	25.5	2.9	1.1	100.0(2,139)	3.88
미취업	22.2	45.2	29.6	2.2	0.9	100.0(785)	3.86
X ² (df)/t			5.82(4)				-0.80
맞벌이 유무							
맞벌이	24.1	47.1	24.1	3.4	1.2	100.0(1,350)	3.90
맞벌이 아님	21.1	49.7	26.2	2.1	0.9	100.0(962)	3.88
X ² (df)/t			7.79(4)				-0.49
가구소득 ¹⁾							
60% 미만	21.4	44.3	31.4	1.7	1.1	100.0(919)	3.83
60 - 80% 미만	22.0	47.6	25.9	3.2	1.4	100.0(441)	3.86
80 - 100% 미만	21.8	47.6	26.8	2.9	1.0	100.0(418)	3.86
100 - 120% 미만	24.5	51.2	20.7	3.0	0.6	100.0(363)	3.96
120 - 140% 미만	23.6	47.9	24.8	2.8	0.9	100.0(351)	3.91
140 - 160% 미만	24.7	44.2	25.3	5.8	0.0	100.0(190)	3.88
160% 이상	23.0	47.5	24.2	3.1	2.2	100.0(318)	3.86
X ² (df)/F			36.88(24)*				1.2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의 정책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로 가장 높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3-35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1)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12.0	44.8	33.6	7.2	2.4	100.0(3,000)	3.57
연령							
10대 이하	5.2	41.4	51.7	1.7	0.0	100.0(58)	3.50
20대	7.1	36.9	44.3	8.5	3.2	100.0(632)	3.36
30대	12.9	37.4	38.0	8.1	3.7	100.0(519)	3.48
40대	11.9	47.9	31.6	6.5	2.1	100.0(630)	3.61
50대	11.2	50.7	29.4	6.6	2.1	100.0(625)	3.62
60대 이상	18.7	51.1	21.8	6.9	1.5	100.0(536)	3.79
X ² (df)/F			132.09(20)***				15.77***
영유아자녀유무							
유	16.8	35.2	37.1	7.6	3.3	100.0(582)	3.55
무	13.3	50.5	27.8	6.7	1.8	100.0(1,534)	3.67
X ² (df)/t			41.83(4)***				2.79**
취업 여부							
취업	13.0	44.3	32.1	7.8	2.8	100.0(2,139)	3.57
미취업	9.7	46.2	36.9	5.4	1.8	100.0(785)	3.57
X ² (df)/t			16.88(4)**				-0.09
맞벌이 유무							
맞벌이	13.6	45.0	31.3	7.9	2.3	100.0(1,350)	3.60
맞벌이 아님	12.6	50.1	29.1	5.9	2.3	100.0(962)	3.65
X ² (df)/t			7.28(4)				1.36
가구소득 ¹⁾							
60% 미만	9.1	43.4	37.4	7.4	2.6	100.0(919)	3.49
60 - 80% 미만	12.9	39.5	37.4	6.8	3.4	100.0(441)	3.52
80 - 100% 미만	13.4	45.9	30.4	7.9	2.4	100.0(418)	3.60
100 - 120% 미만	13.5	47.4	30.0	7.2	1.9	100.0(363)	3.63
120 - 140% 미만	12.8	48.4	32.5	5.1	1.1	100.0(351)	3.67
140 - 160% 미만	12.6	47.9	27.9	10.0	1.6	100.0(190)	3.60
160% 이상	14.2	45.9	29.9	6.9	3.1	100.0(318)	3.61
X ² (df)/F			37.18(24)*				2.76*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의 정책 효과에 대해 질 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가장 높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6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2)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4.8	28.1	49.1	13.7	4.4	100.0(3,000)	3.15
연령							
10대 이하	3.4	19.0	56.9	19.0	1.7	100.0(58)	3.03
20대	3.3	17.9	57.4	15.3	6.0	100.0(632)	2.97
30대	6.6	25.0	47.2	15.2	6.0	100.0(519)	3.11
40대	4.4	28.1	50.5	12.4	4.6	100.0(630)	3.15
50대	3.4	31.0	48.6	14.1	2.9	100.0(625)	3.18
60대 이상	7.1	40.5	39.2	10.6	2.6	100.0(536)	3.39
X ² (df)/F			117.17(20)***				14.14***
영유아자녀유무							
유	7.6	24.4	47.9	14.8	5.3	100.0(582)	3.14
무	4.7	34.2	45.8	12.3	3.1	100.0(1,534)	3.25
X ² (df)/t			27.34(4)***				2.59*
취업 여부							
취업	5.1	29.0	47.4	13.7	4.7	100.0(2,139)	3.16
미취업	4.1	26.2	52.9	13.5	3.3	100.0(785)	3.14
X ² (df)/t			9.14(4)				-0.51
맞벌이 유무							
맞벌이	5.9	28.7	47.8	13.9	3.8	100.0(1,350)	3.19
맞벌이 아님	3.8	33.8	45.8	12.6	4.0	100.0(962)	3.21
X ² (df)/t			10.31(4)*				0.53
가구소득 ¹⁾							
60% 미만	4.5	25.6	50.4	14.4	5.2	100.0(919)	3.10
60 - 80% 미만	4.3	24.9	53.1	12.0	5.7	100.0(441)	3.10
80 - 100% 미만	4.3	29.2	47.6	15.3	3.6	100.0(418)	3.15
100 - 120% 미만	4.7	29.8	49.0	13.5	3.0	100.0(363)	3.20
120 - 140% 미만	4.8	31.6	47.9	12.8	2.8	100.0(351)	3.23
140 - 160% 미만	5.8	31.6	44.7	13.7	4.2	100.0(190)	3.21
160% 이상	6.6	30.2	45.9	12.9	4.4	100.0(318)	3.22
X ² (df)/F			23.22(24)				1.89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 40% 확대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로 가장 높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3-37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11.3	44.2	34.4	7.4	2.6	100.0(3,000)	3.54
연령							
10대 이하	13.8	36.2	39.7	10.3	0.0	100.0(58)	3.53
20대	9.5	34.5	44.1	8.1	3.8	100.0(632)	3.38
30대	12.1	36.0	38.2	9.4	4.2	100.0(519)	3.42
40대	11.7	47.6	32.2	6.5	1.9	100.0(630)	3.61
50대	9.3	50.2	32.5	5.8	2.2	100.0(625)	3.59
60대 이상	14.4	53.4	23.7	7.3	1.3	100.0(536)	3.72
X ² (df)/F			109.83(20)***				11.86***
영유아자녀유무							
유	15.5	34.7	38.1	8.2	3.4	100.0(582)	3.51
무	10.8	50.9	30.0	6.5	1.8	100.0(1,534)	3.63
X ² (df)/t			47.22(4)***				2.84**
취업 여부							
취업	12.1	44.1	33.3	7.6	2.9	100.0(2,139)	3.55
미취업	9.6	44.8	36.9	6.8	1.9	100.0(785)	3.53
X ² (df)/t			8.31(4)				-3.38
맞벌이 유무							
맞벌이	12.4	44.3	33.5	7.3	2.5	100.0(1,350)	3.57
맞벌이 아님	11.4	49.2	30.7	6.9	1.9	100.0(962)	3.61
X ² (df)/t			5.89(4)				1.30
가구소득 ¹⁾							
60% 미만	8.5	43.2	37.4	7.4	3.5	100.0(919)	3.46
60 - 80% 미만	11.8	40.8	37.4	7.9	2.0	100.0(441)	3.52
80 - 100% 미만	14.4	43.3	31.8	8.1	2.4	100.0(418)	3.59
100 - 120% 미만	12.1	45.7	33.1	7.4	1.7	100.0(363)	3.59
120 - 140% 미만	11.1	46.2	34.2	6.8	1.7	100.0(351)	3.58
140 - 160% 미만	14.2	45.8	28.4	8.4	3.2	100.0(190)	3.59
160% 이상	12.6	48.1	30.5	5.7	3.1	100.0(318)	3.61
X ² (df)/F			31.55(24)				2.4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의 정책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0%로 가장 높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8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25.0	39.0	25.9	7.4	2.6	100.0(3,000)	3.76
연령							
10대 이하	32.8	27.6	36.2	3.4	0.0	100.0(58)	3.90
20대	21.0	31.0	33.9	10.8	3.3	100.0(632)	3.56
30대	26.2	31.6	28.1	8.7	5.4	100.0(519)	3.65
40대	20.5	43.5	25.6	8.1	2.4	100.0(630)	3.72
50대	24.8	44.3	23.5	6.1	1.3	100.0(625)	3.85
60대 이상	33.4	45.3	16.4	3.5	1.3	100.0(536)	4.06
X ² (df)/F			147.93(20)***				18.47***
영유아자녀유무							
유	24.1	30.1	30.4	10.5	5.0	100.0(582)	3.58
무	26.1	45.0	21.8	5.7	1.5	100.0(1,534)	3.88
X ² (df)/t			71.45(4)***				6.51***
취업 여부							
취업	24.6	38.4	25.5	8.3	3.2	100.0(2,139)	3.73
미취업	26.2	40.8	26.5	5.1	1.4	100.0(785)	3.85
X ² (df)/t			16.17(4)**				2.97**
맞벌이 유무							
맞벌이	24.9	38.4	24.9	9.0	2.9	100.0(1,350)	3.73
맞벌이 아님	26.3	42.7	23.7	5.2	2.1	100.0(962)	3.86
X ² (df)/t			15.63(4)**				3.01**
가구소득 ¹⁾							
60% 미만	23.2	39.8	28.4	6.3	2.3	100.0(919)	3.75
60 - 80% 미만	24.5	37.6	27.0	8.4	2.5	100.0(441)	3.73
80 - 100% 미만	25.8	38.8	23.0	8.4	4.1	100.0(418)	3.74
100 - 120% 미만	24.2	38.3	26.2	10.2	1.1	100.0(363)	3.74
120 - 140% 미만	25.6	38.5	27.4	6.3	2.3	100.0(351)	3.79
140 - 160% 미만	28.9	36.8	24.2	6.8	3.2	100.0(190)	3.82
160% 이상	28.0	41.5	20.1	6.6	3.8	100.0(318)	3.83
X ² (df)/F			29.66(24)				0.5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의 정책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로 가장 높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3-39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5)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17.7	41.2	32.0	6.4	2.7	100.0(3,000)	3.65
연령							
10대 이하	27.6	20.7	44.8	6.9	0.0	100.0(58)	3.69
20대	14.6	31.8	41.5	8.7	3.5	100.0(632)	3.45
30대	19.1	35.8	32.2	8.9	4.0	100.0(519)	3.57
40대	15.7	45.7	29.7	6.0	2.9	100.0(630)	3.65
50대	15.2	47.7	30.4	4.8	1.9	100.0(625)	3.69
60대 이상	24.3	46.6	23.9	3.5	1.7	100.0(536)	3.88
X ² (df)/F			123.12(20)***				13.59***
영유아자녀유무							
유	20.8	33.3	33.5	8.2	4.1	100.0(582)	3.58
무	17.1	48.0	28.2	4.8	2.0	100.0(1,534)	3.74
X ² (df)/t			44.50(4)***				3.40**
취업 여부							
취업	17.9	41.2	31.5	6.4	3.1	100.0(2,139)	3.64
미취업	17.5	41.5	33.1	5.9	2.0	100.0(785)	3.66
X ² (df)/t			3.05(4)				0.5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8.1	41.5	30.7	7.0	2.7	100.0(1,350)	3.65
맞벌이 아님	17.7	46.9	28.6	4.6	2.3	100.0(962)	3.73
X ² (df)/t			10.63(4)*				1.98*
가구소득 ¹⁾							
60% 미만	16.5	39.0	35.0	6.5	2.9	100.0(919)	3.60
60 - 80% 미만	17.5	39.7	33.3	6.1	3.4	100.0(441)	3.62
80 - 100% 미만	17.7	43.1	30.1	6.7	2.4	100.0(418)	3.67
100 - 120% 미만	17.6	42.4	32.0	6.9	1.1	100.0(363)	3.69
120 - 140% 미만	17.1	41.3	33.3	5.4	2.8	100.0(351)	3.64
140 - 160% 미만	21.6	41.1	25.3	9.5	2.6	100.0(190)	3.69
160% 이상	19.8	45.6	26.4	4.7	3.5	100.0(318)	3.74
X ² (df)/F			26.12(24)				1.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시간제 보육 지원 기준 개선의 정책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Ⅲ-3-40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6) 시간제 보육 지원 기준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9.2	37.2	43.8	7.5	2.3	100.0(3,000)	3.43
연령							
10대 이하	17.2	20.7	60.3	1.7	0.0	100.0(58)	3.53
20대	9.2	28.6	49.8	9.5	2.8	100.0(632)	3.32
30대	12.9	31.6	42.2	9.1	4.2	100.0(519)	3.40
40대	8.9	37.5	43.5	7.8	2.4	100.0(630)	3.43
50대	4.6	44.2	43.2	6.7	1.3	100.0(625)	3.44
60대 이상	10.4	45.9	37.5	4.9	1.3	100.0(536)	3.59
X ² (df)/F			109.96(20)***				6.56***
영유아자녀유무							
유	13.7	32.8	41.2	8.9	3.3	100.0(582)	3.45
무	7.3	42.8	41.6	6.8	1.5	100.0(1,534)	3.48
X ² (df)/t			38.86(4)***				0.66
취업 여부							
취업	9.7	36.6	43.2	7.9	2.8	100.0(2,139)	3.43
미취업	7.8	39.6	44.6	6.8	1.3	100.0(785)	3.46
X ² (df)/t			10.27(4)*				0.94
맞벌이 유무							
맞벌이	10.0	37.8	41.6	8.1	2.5	100.0(1,350)	3.45
맞벌이 아님	7.6	42.1	42.3	6.2	1.8	100.0(962)	3.48
X ² (df)/t			10.59(4)*				0.82
가구소득 ¹⁾							
60% 미만	8.4	35.6	46.7	6.5	2.8	100.0(919)	3.40
60 - 80% 미만	9.3	36.1	44.9	7.3	2.5	100.0(441)	3.42
80 - 100% 미만	9.8	37.6	42.3	7.9	2.4	100.0(418)	3.44
100 - 120% 미만	11.0	40.8	39.4	7.4	1.4	100.0(363)	3.53
120 - 140% 미만	9.7	35.6	44.2	9.7	0.9	100.0(351)	3.44
140 - 160% 미만	7.9	42.6	41.1	5.8	2.6	100.0(190)	3.47
160% 이상	8.8	37.1	42.1	8.8	3.1	100.0(318)	3.40
X ² (df)/F			22.35(24)				1.1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의 정책 효과에 대해 질 문한 결과,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로 가장 높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 부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1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7)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14.5	37.3	36.7	8.4	3.1	100.0(3,000)	3.52
연령							
10대 이하	27.6	29.3	36.2	6.9	0.0	100.0(58)	3.78
20대	11.9	27.5	48.4	7.9	4.3	100.0(632)	3.35
30대	14.8	32.0	36.0	11.9	5.2	100.0(519)	3.39
40대	11.6	40.5	35.9	9.0	3.0	100.0(630)	3.49
50대	11.8	43.4	35.0	7.4	2.4	100.0(625)	3.55
60대 이상	22.2	44.2	26.3	6.3	0.9	100.0(536)	3.80
X ² (df)/F			147.56(20)***				17.31***
영유아자녀유무							
유	16.5	31.4	38.0	10.0	4.1	100.0(582)	3.46
무	14.5	43.1	32.6	8.0	1.8	100.0(1,534)	3.61
X ² (df)/t			30.08(4)***				3.17**
취업 여부							
취업	15.0	37.1	36.2	8.0	3.7	100.0(2,139)	3.52
미취업	13.5	38.2	37.2	9.6	1.5	100.0(785)	3.53
X ² (df)/t			11.54(4)*				0.2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5.7	36.7	35.5	9.0	3.2	100.0(1,350)	3.53
맞벌이 아님	14.7	41.3	34.1	7.8	2.2	100.0(962)	3.58
X ² (df)/t			6.74(4)				1.43
가구소득 ¹⁾							
60% 미만	14.3	35.3	39.1	8.3	3.2	100.0(919)	3.49
60 - 80% 미만	12.7	36.7	39.2	7.5	3.9	100.0(441)	3.47
80 - 100% 미만	14.4	39.2	34.9	8.6	2.9	100.0(418)	3.54
100 - 120% 미만	14.9	40.2	33.6	9.1	2.2	100.0(363)	3.56
120 - 140% 미만	15.1	34.2	40.5	8.0	2.3	100.0(351)	3.52
140 - 160% 미만	16.3	43.7	27.9	8.9	3.2	100.0(190)	3.61
160% 이상	15.4	38.1	33.0	9.4	4.1	100.0(318)	3.51
X ² (df)/F			21.96(24)				0.79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중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의 정책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가장 높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2 육아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8) 아이돌보미 대기수요 해소/서비스 다양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효과있음	약간 효과있음	보통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수	평균
전체	11.8	36.8	41.3	7.3	2.7	100.0(3,000)	3.48
연령							
10대 이하	29.3	24.1	39.7	5.2	1.7	100.0(58)	3.74
20대	10.0	27.2	50.8	8.5	3.5	100.0(632)	3.32
30대	14.8	30.3	40.8	8.9	5.2	100.0(519)	3.41
40대	10.5	37.9	40.2	8.9	2.5	100.0(630)	3.45
50대	8.5	43.2	40.8	5.8	1.8	100.0(625)	3.51
60대 이상	14.6	47.0	32.8	4.7	0.9	100.0(536)	3.70
X ² (df)/F			135.61(20)***				12.73***
영유아자녀유무							
유	16.3	30.6	39.5	8.9	4.6	100.0(582)	3.45
무	10.3	43.7	38.4	6.3	1.4	100.0(1,534)	3.55
X ² (df)/t			55.20(4)***				2.41*
취업 여부							
취업	12.0	36.9	40.4	7.4	3.2	100.0(2,139)	3.47
미취업	11.8	36.4	43.1	7.1	1.5	100.0(785)	3.50
X ² (df)/t			7.04(4)				0.8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2.7	38.1	38.6	7.7	2.8	100.0(1,350)	3.50
맞벌이 아님	11.3	40.1	40.3	6.2	2.0	100.0(962)	3.53
X ² (df)/t			5.23(4)				0.62
가구소득 ¹⁾							
60% 미만	11.3	34.5	44.2	6.9	3.2	100.0(919)	3.44
60 - 80% 미만	10.2	37.0	42.6	7.3	2.9	100.0(441)	3.44
80 - 100% 미만	11.5	35.9	42.3	7.4	2.9	100.0(418)	3.46
100 - 120% 미만	12.9	40.5	38.3	7.2	1.1	100.0(363)	3.57
120 - 140% 미만	11.7	38.5	39.9	7.7	2.3	100.0(351)	3.50
140 - 160% 미만	13.2	35.8	38.9	9.5	2.6	100.0(190)	3.47
160% 이상	13.8	39.0	36.5	7.2	3.5	100.0(318)	3.53
X ² (df)/F			18.33(24)				1.26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중요도(5점 척도)가 가장 높은 육아지원 정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4.12 점),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4.11점), 국공립유치원의 단계적 확대(4.04점) 순으로 나타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대효과(5점 척도)가 가장 높은 육아지원 정책 역시 중요도보다 낮은 점수이긴 하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3.76점),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3.65점), 국공립유치원의 단계적 확대(3.57점) 순이었다.

표 III-3-42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기대효과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수	평균
중 요 도	1) 국공립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29.6	49.2	17.3	3.0	0.9	100.0(3,000)	4.04
	2)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11.6	37.3	39.5	9.1	2.5	100.0(3,000)	3.46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23.8	51.3	20.4	3.4	1.1	100.0(3,000)	3.93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36.9	42.5	16.8	2.9	0.8	100.0(3,000)	4.12
	5)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34.2	46.0	16.9	2.1	0.8	100.0(3,000)	4.11
	6) 시간제 보육 지원 기준 개선	18.8	46.9	30.5	2.9	0.9	100.0(3,000)	3.80
	7)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24.6	45.3	25.3	3.4	1.3	100.0(3,000)	3.88
	8)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	22.6	46.8	26.7	2.8	1.1	100.0(3,000)	3.87
기 대 효 과	1) 국공립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12.0	44.8	33.6	7.2	2.4	100.0(3,000)	3.57
	2)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4.8	28.1	49.1	13.7	4.4	100.0(3,000)	3.15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11.3	44.2	34.4	7.4	2.6	100.0(3,000)	3.54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25.0	39.0	25.9	7.4	2.6	100.0(3,000)	3.76
	5)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17.7	41.2	32.0	6.4	2.7	100.0(3,000)	3.65
	6) 시간제 보육 지원 기준 개선	9.2	37.2	43.8	7.5	2.3	100.0(3,000)	3.43
	7)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14.5	37.3	36.7	8.4	3.1	100.0(3,000)	3.52
	8)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	11.8	36.8	41.3	7.3	2.7	100.0(3,000)	3.48

다. 시간지원 정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중 출산전후 휴가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0%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9.0%였다. 성별, 혼인 여부,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는 여성, 유자녀, 취업자, 맞벌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출산전후 휴가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

율이 44.8%로 가장 높았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가장 낮았다.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43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1) 출산전후 휴가

단위: %(명), 점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전체	91.0	9.0	100.0(3,000)	44.8	36.7	12.0	4.7	1.7	100.0(2,655)	4.18
성별 구분										
남자	89.8	10.2	100.0(1,522)	43.3	37.8	12.0	5.1	1.9	100.0(1,334)	4.15
여자	92.3	7.7	100.0(1,478)	46.4	35.7	12.0	4.3	1.6	100.0(1,321)	4.21
$X^2(df)/t$	5.61(1)*						3.46(4)			0.15
연령										
10대 이하	87.9	12.1	100.0(58)	52.1	33.3	14.6	0.0	0.0	100.0(48)	4.38
20대	91.1	8.9	100.0(632)	42.4	31.4	16.3	7.4	2.5	100.0(557)	4.04
30대	91.9	8.1	100.0(519)	42.7	34.1	13.1	6.5	3.7	100.0(464)	4.06
40대	88.7	11.3	100.0(630)	38.6	41.0	13.8	5.4	1.3	100.0(542)	4.10
50대	90.6	9.4	100.0(625)	43.1	43.6	9.0	3.2	1.1	100.0(555)	4.24
60대 이상	93.7	6.3	100.0(536)	57.9	33.1	7.2	1.4	0.4	100.0(489)	4.47
$X^2(df)/F$	9.96(5)						114.51(20)***			8.32***
혼인 여부										
미혼	87.7	12.3	100.0(579)	43.7	36.0	12.6	5.5	2.2	100.0(494)	4.14
배우자 있음	91.9	8.1	100.0(2,312)	45.0	36.8	12.0	4.6	1.6	100.0(2,063)	4.19
배우자 없음	90.8	9.2	100.0(109)	46.9	38.8	9.2	4.1	1.0	100.0(98)	4.27
$X^2(df)/F$	9.69(2)*						3.05(8)			1.22
영유아자녀유무										
유	91.4	8.6	100.0(582)	41.5	32.0	16.0	7.1	3.3	100.0(518)	4.01
무	92.2	7.8	100.0(1,534)	46.7	38.9	10.4	3.0	0.9	100.0(1,378)	4.27
$X^2(df)/t$	0.34(1)						44.91(4)*			3.81***
취업 여부										
취업	91.8	8.2	100.0(2,139)	43.5	37.2	12.2	5.2	2.0	100.0(1,917)	4.15
미취업	89.3	10.7	100.0(785)	48.4	36.1	11.3	3.6	0.7	100.0(674)	4.28
$X^2(df)/t$	4.51(1)*						10.80(4)*			0.57
맞벌이 유무										
맞벌이	93.1	6.9	100.0(1,350)	43.4	36.5	13.5	4.7	2.0	100.0(1,226)	4.15
맞벌이 아님	90.1	9.9	100.0(962)	47.3	37.3	9.9	4.3	1.2	100.0(837)	4.25
$X^2(df)/t$	6.71(1)*						8.94(4)			0.68
가구소득 ¹⁾										
60% 미만	87.5	12.5	100.0(919)	45.4	36.3	12.2	3.9	2.2	100.0(777)	4.19
60 - 80% 미만	90.2	9.8	100.0(441)	42.0	38.6	10.9	7.0	1.6	100.0(386)	4.12
80 - 100% 미만	91.6	8.4	100.0(418)	45.7	37.8	10.9	4.1	1.6	100.0(368)	4.22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100 - 120% 미만	91.7	8.3	100.0(363)	44.3	33.9	14.7	5.5	1.5	100.0(327)	4.14
120 - 140% 미만	92.9	7.1	100.0(351)	47.8	32.8	13.8	4.1	1.6	100.0(320)	4.21
140 - 160% 미만	94.7	5.3	100.0(190)	43.8	40.3	8.0	6.8	1.1	100.0(176)	4.19
160% 이상	96.5	3.5	100.0(318)	43.9	39.2	12.0	3.3	1.7	100.0(301)	4.20
X ² (df)/F	31.37(6)*			22.17(24)						0.67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육아휴직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8%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였다. 성별, 혼인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자녀, 소득이 증가할 수록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육아휴직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44 ■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2) 육아휴직

단위: %(명), 점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전체	95.8	4.2	100.0(3,000)	52.1	30.1	10.3	4.8	2.8	100.0(2,787)	4.24
성별 구분										
남자	94.8	5.2	100.0(1,522)	50.1	31.7	10.3	4.4	3.5	100.0(1,404)	4.21
여자	96.8	3.2	100.0(1,478)	54.1	28.5	10.3	5.1	2.0	100.0(1,383)	4.27
X ² (df)/t	7.53(1)*			10.63(4)*						0.48
연령										
10대 이하	94.8	5.2	100.0(58)	51.9	32.7	15.4	0.0	0.0	100.0(52)	4.37
20대	95.4	4.6	100.0(632)	47.2	26.8	14.2	7.1	4.8	100.0(579)	4.04
30대	96.7	3.3	100.0(519)	49.9	25.4	12.6	6.6	5.6	100.0(485)	4.07
40대	95.2	4.8	100.0(630)	47.9	32.4	11.1	6.7	1.9	100.0(583)	4.18
50대	96.0	4.0	100.0(625)	51.0	36.7	8.5	2.4	1.4	100.0(588)	4.34
60대 이상	95.9	4.1	100.0(536)	66.2	27.8	4.0	1.4	0.6	100.0(500)	4.58
X ² (df)/F	2.05(5)			148.87(20)***						12.72***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혼인 여부										
미혼	94.0	6.0	100.0(579)	48.6	30.6	12.5	4.7	3.6	100.0(529)	4.16
배우자 있음	96.2	3.8	100.0(2,312)	53.1	29.8	9.7	4.8	2.6	100.0(2,154)	4.26
배우자 없음	96.3	3.7	100.0(109)	50.0	34.6	9.6	3.8	1.9	100.0(104)	4.27
X ² (df)/F	6.07(2)*					7.68(8)				1.15
영유아자녀유무										
유	96.0	4.0	100.0(582)	45.1	26.9	15.1	7.3	5.6	100.0(536)	3.99
무	96.4	3.6	100.0(1,534)	55.8	31.8	7.6	3.5	1.4	100.0(1,443)	4.37
X ² (df)/t	0.16(1)					74.80(4)***				6.79***
취업 여부										
취업	96.3	3.7	100.0(2,139)	50.3	30.8	10.3	5.2	3.3	100.0(2,002)	4.20
미취업	95.0	5.0	100.0(785)	57.2	28.1	9.9	3.5	1.3	100.0(718)	4.37
X ² (df)/t	2.22(1)					17.70(4)**				1.63
맞벌이 유무										
맞벌이	96.9	3.1	100.0(1,350)	50.8	30.7	10.5	5.3	2.8	100.0(1,271)	4.22
맞벌이 아님	95.3	4.7	100.0(962)	56.3	28.4	8.7	4.2	2.4	100.0(883)	4.32
X ² (df)/t	3.81(1)					6.99(4)				0.73
가구소득 ¹⁾										
60% 미만	93.0	7.0	100.0(919)	51.6	30.5	11.4	3.5	3.0	100.0(826)	4.24
60 - 80% 미만	95.0	5.0	100.0(441)	48.0	31.7	10.6	6.2	3.5	100.0(404)	4.15
80 - 100% 미만	97.1	2.9	100.0(418)	52.6	30.3	9.7	4.6	2.8	100.0(390)	4.25
100 - 120% 미만	96.1	3.9	100.0(363)	52.9	28.1	10.2	6.1	2.6	100.0(342)	4.23
120 - 140% 미만	97.2	2.8	100.0(351)	55.3	29.7	9.0	3.6	2.4	100.0(333)	4.32
140 - 160% 미만	97.9	2.1	100.0(190)	51.7	31.7	8.9	5.6	2.2	100.0(180)	4.25
160% 이상	100.0	0.0	100.0(318)	54.2	28.5	9.6	5.8	1.9	100.0(312)	4.27
X ² (df)/F	37.68(6)*					15.45(24)				1.33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6%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였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자녀, 취업자, 맞벌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로 가장 높았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5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명), 점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전체	59.6	40.4	100.0(3,000)	38.2	36.4	14.4	7.3	3.7	100.0(1,728)	3.98
성별 구분										
남자	53.8	46.2	100.0(1,522)	35.1	39.5	15.4	6.4	3.5	100.0(794)	3.96
여자	65.6	34.4	100.0(1,478)	40.8	33.7	13.6	8.0	3.9	100.0(934)	4.00
X ² (df)/t	43.00(1)*						10.16(4)*			-0.03
연령										
10대 이하	48.3	51.7	100.0(58)	34.6	30.8	34.6	0.0	0.0	100.0(26)	4.00
20대	56.5	43.5	100.0(632)	37.5	31.4	16.6	9.6	4.9	100.0(344)	3.87
30대	64.4	35.6	100.0(519)	34.4	30.5	13.2	12.9	9.0	100.0(311)	3.68
40대	58.7	41.3	100.0(630)	34.4	36.3	18.7	7.3	3.4	100.0(358)	3.91
50대	56.5	43.5	100.0(625)	37.5	44.7	12.0	4.3	1.4	100.0(349)	4.13
60대 이상	64.6	35.4	100.0(536)	47.4	38.8	9.7	3.5	0.6	100.0(340)	4.29
X ² (df)/F	18.69(5)*						111.23(20)***			15.51***
혼인 여부										
미혼	42.8	57.2	100.0(579)	37.3	33.6	20.5	5.3	3.3	100.0(244)	3.96
배우자 있음	64.3	35.7	100.0(2,312)	38.8	36.3	13.6	7.6	3.7	100.0(1,432)	3.99
배우자 없음	48.6	51.4	100.0(109)	26.9	51.9	7.7	7.7	5.8	100.0(52)	3.87
X ² (df)/F	94.42(2)*						16.61(8)*			0.48
영유아자녀유무										
유	71.8	28.2	100.0(582)	31.3	32.1	14.6	13.6	8.5	100.0(390)	3.64
무	61.2	38.8	100.0(1,534)	40.3	40.1	12.9	5.1	1.5	100.0(920)	4.13
X ² (df)/t	20.64(1)*						73.82(4)***			8.51***
취업 여부										
취업	61.9	38.1	100.0(2,139)	36.8	35.9	15.0	8.1	4.1	100.0(1,277)	3.93
미취업	54.1	45.9	100.0(785)	42.6	38.0	11.7	5.1	2.7	100.0(411)	4.13
X ² (df)/t	14.20(1)*						11.01(4)*			2.35*
맞벌이 유무										
맞벌이	67.7	32.3	100.0(1,350)	37.9	35.4	13.3	8.6	4.8	100.0(879)	3.93
맞벌이 아님	59.6	40.4	100.0(962)	40.1	37.8	14.1	6.0	2.0	100.0(553)	4.08
X ² (df)/t	16.22(1)*						11.48(4)*			2.02*
가구소득 ¹⁾										
60% 미만	48.2	51.8	100.0(919)	39.1	34.9	17.0	5.1	4.0	100.0(430)	4.00
60 - 80% 미만	62.4	37.6	100.0(441)	39.6	33.6	13.6	9.8	3.4	100.0(265)	3.96
80 - 100% 미만	60.0	40.0	100.0(418)	36.9	35.7	15.2	9.0	3.3	100.0(244)	3.94
100 - 120% 미만	62.3	37.7	100.0(363)	34.4	39.4	14.2	8.7	3.2	100.0(218)	3.93
120 - 140% 미만	64.4	35.6	100.0(351)	42.3	37.7	13.0	4.2	2.8	100.0(215)	4.13
140 - 160% 미만	70.5	29.5	100.0(190)	35.2	39.8	10.9	8.6	5.5	100.0(128)	3.91
160% 이상	73.3	26.7	100.0(318)	37.7	37.3	13.2	7.5	4.4	100.0(228)	3.96
X ² (df)/F	89.50(6)*						20.34(24)			0.4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1%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였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자녀, 취업자, 맞벌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유연근무제의 도움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로 가장 높았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6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4) 유연근무제

단위: %(명), 점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전체	66.1	33.9	100.0(3,000)	34.6	37.8	16.6	7.2	3.8	100.0(1,918)	3.92
성별 구분										
남자	63.7	36.3	100.0(1,522)	31.3	40.0	18.7	6.4	3.6	100.0(941)	3.89
여자	68.6	31.4	100.0(1,478)	37.8	35.7	14.6	8.0	3.9	100.0(977)	3.95
X ² (df)/t	8.17(1)*						14.57(4)**			0.26
연령										
10대 이하	37.9	62.1	100.0(58)	35.0	30.0	30.0	5.0	0.0	100.0(20)	3.95
20대	60.3	39.7	100.0(632)	36.9	31.7	16.8	9.2	5.4	100.0(369)	3.85
30대	67.2	32.8	100.0(519)	32.1	29.1	17.1	12.8	8.9	100.0(327)	3.63
40대	68.9	31.1	100.0(630)	32.8	35.9	21.4	6.9	3.1	100.0(421)	3.88
50대	67.8	32.2	100.0(625)	32.3	45.2	15.6	5.0	1.9	100.0(418)	4.01
60대 이상	69.6	30.4	100.0(536)	39.4	46.0	11.0	3.0	0.6	100.0(363)	4.21
X ² (df)/F	36.32(5)*						111.91(20)***			12.00**
혼인 여부										
미혼	51.5	48.5	100.0(579)	37.2	36.5	17.7	5.1	3.4	100.0(293)	3.99
배우자 있음	70.2	29.8	100.0(2,312)	34.3	37.9	16.4	7.7	3.8	100.0(1,563)	3.91
배우자 없음	57.8	42.2	100.0(109)	30.6	41.9	17.7	4.8	4.8	100.0(62)	3.89
X ² (df)/F	75.64(2)*						4.66(8)			2.16
영유아자녀유무										
유	73.2	26.8	100.0(582)	29.7	29.2	19.2	13.0	9.0	100.0(401)	3.58
무	69.4	30.6	100.0(1,534)	34.5	43.2	15.5	5.1	1.7	100.0(1,039)	4.04
X ² (df)/t	2.88(1)						83.96(4)***			7.61***
취업 여부										
취업	68.6	31.4	100.0(2,139)	33.6	36.4	18.0	7.8	4.2	100.0(1,419)	3.88
미취업	60.6	39.4	100.0(785)	37.5	42.5	12.0	5.7	2.4	100.0(459)	4.07
X ² (df)/t	16.27(1)*						17.48(4)**			2.16*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맞벌이 유무										
맞벌이	72.3	27.7	100.0(1,350)	33.2	36.1	17.6	8.8	4.3	100.0(943)	3.85
맞벌이 아님	67.2	32.8	100.0(962)	36.0	40.6	14.5	6.0	2.9	100.0(620)	4.01
X ² (df)/t	7.10(1)*						11.08(4)*			1.48
가구소득1)										
60% 미만	56.9	43.1	100.0(919)	36.6	38.3	16.2	4.5	4.3	100.0(506)	3.98
60 - 80% 미만	64.2	35.8	100.0(441)	33.5	37.8	16.4	8.7	3.6	100.0(275)	3.89
80 - 100% 미만	64.6	35.4	100.0(418)	33.6	40.2	14.3	7.3	4.6	100.0(259)	3.91
100 - 120% 미만	69.4	30.6	100.0(363)	32.7	36.7	18.4	9.8	2.4	100.0(245)	3.87
120 - 140% 미만	70.9	29.1	100.0(351)	37.9	35.4	13.8	9.2	3.8	100.0(240)	3.95
140 - 160% 미만	80.5	19.5	100.0(190)	30.3	40.0	15.9	9.0	4.8	100.0(145)	3.82
160% 이상	79.6	20.4	100.0(318)	34.3	36.3	21.8	5.2	2.4	100.0(248)	3.95
X ² (df)/F	84.61(6)*						25.43(24)			0.9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직장어린이집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1%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였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자녀, 소득이 증가할수록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6%로 가장 높았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7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 여부/도움 정도 - 5) 직장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전체	80.1	19.9	100.0(3,000)	48.6	31.7	13.2	4.0	2.5	100.0(2,294)	4.20
성별 구분										
남자	76.9	23.1	100.0(1,522)	45.5	33.5	14.8	3.6	2.7	100.0(1,126)	4.16
여자	83.4	16.6	100.0(1,478)	51.7	30.0	11.6	4.4	2.3	100.0(1,168)	4.24
X ² (df)/t	19.810(1)*						12.481(4)*			-0.06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수	평균
연령										
10대 이하	67.2	32.8	100.0(58)	41.7	36.1	19.4	2.8	0.0	100.0(36)	4.17
20대	72.5	27.5	100.0(632)	44.4	32.4	14.9	5.4	2.8	100.0(423)	4.10
30대	78.0	22.0	100.0(519)	43.0	26.1	18.3	5.6	7.0	100.0(372)	3.92
40대	82.1	17.9	100.0(630)	46.5	29.8	16.3	5.2	2.2	100.0(503)	4.13
50대	84.0	16.0	100.0(625)	47.0	39.0	10.5	2.1	1.4	100.0(513)	4.28
60대 이상	85.8	14.2	100.0(536)	62.2	29.1	6.5	2.0	0.2	100.0(447)	4.51
X ² (df)/F	49.05(5)*					125.96(20)***				18.64***
혼인 여부										
미혼	70.5	29.5	100.0(579)	47.2	33.6	13.1	3.8	2.3	100.0(396)	4.20
배우자 있음	82.6	17.4	100.0(2,312)	48.7	31.5	13.3	4.0	2.5	100.0(1,814)	4.20
배우자 없음	78.9	21.1	100.0(109)	53.6	27.4	11.9	4.8	2.4	100.0(84)	4.25
X ² (df)/F	43.02(2)*					1.93(8)				1.66
영유아자녀유무										
유	82.6	17.4	100.0(582)	38.2	28.6	19.3	7.7	6.1	100.0(440)	3.85
무	84.0	16.0	100.0(1,534)	52.3	33.3	10.6	2.6	1.2	100.0(1,255)	4.33
X ² (df)/t	0.59(1)					88.30(4)***				9.89***
취업 여부										
취업	80.6	19.4	100.0(2,139)	47.1	31.1	14.3	4.5	3.0	100.0(1,639)	4.15
미취업	79.5	20.5	100.0(785)	53.4	33.1	9.7	2.7	1.2	100.0(599)	4.35
X ² (df)/t	0.41(1)					20.93(4)***				3.27**
맞벌이 유무										
맞벌이	82.4	17.6	100.0(1,350)	46.8	30.3	15.0	4.7	3.2	100.0(1,050)	4.13
맞벌이 아님	82.8	17.2	100.0(962)	51.4	33.1	10.9	3.0	1.6	100.0(764)	4.30
X ² (df)/t	0.06(1)					16.84(4)**				3.36**
가구소득¹⁾										
60% 미만	74.1	25.9	100.0(919)	49.2	32.3	12.7	3.1	2.8	100.0(654)	4.22
60 - 80% 미만	79.4	20.6	100.0(441)	45.6	34.0	14.9	3.6	1.8	100.0(329)	4.18
80 - 100% 미만	78.2	21.8	100.0(418)	48.5	31.9	13.0	3.9	2.6	100.0(307)	4.20
100 - 120% 미만	80.2	19.8	100.0(363)	48.0	30.5	14.0	5.4	2.2	100.0(279)	4.17
120 - 140% 미만	86.0	14.0	100.0(351)	49.5	30.7	12.5	4.5	2.8	100.0(287)	4.20
140 - 160% 미만	88.9	11.1	100.0(190)	50.3	29.2	13.0	5.6	1.9	100.0(161)	4.20
160% 이상	89.3	10.7	100.0(318)	49.8	31.0	12.6	3.6	2.9	100.0(277)	4.21
X ² (df)/F	55.89(6)*					8.96(24)				1.0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4 육아정책 현안 및 방향에 대한 의견

가. 육아정책 현안

육아를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5%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육아를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수	평균
전체	1.4	14.1	37.5	36.0	11.0	100.0(3,000)	2.59
성별 구분							
남자	1.6	17.6	38.7	32.1	9.9	100.0(1,522)	2.69
여자	1.2	10.6	36.2	40.0	12.0	100.0(1,478)	2.49
X ² (df)/t			44.53(4)***				-6.05***
연령							
10대 이하	0.0	17.2	44.8	31.0	6.9	100.0(58)	2.72
20대	1.1	12.8	30.5	39.1	16.5	100.0(632)	2.43
30대	1.5	11.2	30.8	40.5	16.0	100.0(519)	2.42
40대	1.6	11.3	43.7	34.1	9.4	100.0(630)	2.62
50대	1.8	17.3	40.3	33.4	7.2	100.0(625)	2.73
60대 이상	1.3	17.9	40.7	33.8	6.3	100.0(536)	2.74
X ² (df)/F			101.73(20)***				14.10***
혼인 여부							
미혼	0.9	16.2	33.9	35.1	14.0	100.0(579)	2.55
배우자 있음	1.5	13.8	37.8	36.5	10.4	100.0(2,312)	2.59
배우자 없음	3.7	11.0	49.5	29.4	6.4	100.0(109)	2.76
X ² (df)/F			23.44(8)**				2.53
영유아자녀유무							
유	2.2	10.1	33.2	39.0	15.5	100.0(582)	2.45
무	1.5	16.4	41.2	33.8	7.1	100.0(1,534)	2.71
X ² (df)/t			54.32(4)***				6.15***
취업 여부							
취업	1.6	13.3	36.8	36.5	11.7	100.0(2,139)	2.57
미취업	1.0	16.3	38.9	35.2	8.7	100.0(785)	2.66
X ² (df)/t			10.80(4)*				2.46*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수	평균
맞벌이 유무							
맞벌이	1.4	12.4	36.3	37.5	12.4	100.0(1,350)	2.53
맞벌이 아님	1.6	15.6	39.9	35.2	7.7	100.0(962)	2.68
$X^2(df)/t$			18.65(4)**				3.97***
가구소득 ¹⁾							
60% 미만	1.4	15.9	36.8	34.2	11.8	100.0(919)	2.61
60 - 80% 미만	1.8	10.7	37.2	39.0	11.3	100.0(441)	2.53
80 - 100% 미만	1.0	12.4	40.4	37.1	9.1	100.0(418)	2.59
100 - 120% 미만	1.7	16.0	35.0	37.7	9.6	100.0(363)	2.62
120 - 140% 미만	1.4	13.7	38.5	35.9	10.5	100.0(351)	2.60
140 - 160% 미만	2.1	11.1	35.3	36.8	14.7	100.0(190)	2.49
160% 이상	0.9	16.4	39.0	33.3	10.4	100.0(318)	2.64
$X^2(df)/F$			22.71(24)				1.07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중 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범죄 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1%로 가장 높았고 자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가장 큰 불안 요인(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자원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빈부 격차	기타	수
전체	3.7	0.2	9.4	7.4	13.3	0.1	23.1	0.3	34.1	7.9	0.5	100.0(1,409)
성별 구분												
남자	5.6	0.3	7.8	7.7	17.5	0.2	27.5	0.0	22.7	10.2	0.6	100.0(640)
여자	2.1	0.1	10.7	7.2	9.9	0.1	19.4	0.5	43.7	6.0	0.4	100.0(769)
$X^2(df)$							97.51(10)*					
연령												
10대 이하	0.0	0.0	4.5	0.0	27.3	0.0	22.7	0.0	45.5	0.0	0.0	100.0(22)
20대	2.3	0.3	10.5	4.0	14.8	0.3	16.2	0.3	45.6	4.8	0.9	100.0(351)
30대	1.7	0.0	9.9	6.1	9.9	0.0	19.8	0.3	45.1	6.5	0.7	100.0(293)
40대	1.5	0.4	9.1	8.8	13.5	0.0	25.2	0.4	33.9	7.3	0.0	100.0(274)
50대	3.9	0.0	5.9	11.4	14.6	0.4	28.3	0.0	22.4	12.2	0.8	100.0(254)
60대 이상	11.6	0.5	11.6	8.8	12.6	0.0	29.8	0.5	13.5	11.2	0.0	100.0(215)
$X^2(df)$							176.94(50)*					

구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자원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빈부 격차	기타	수
혼인 여부												
미혼	1.8	0.0	6.7	7.0	19.0	0.4	18.3	0.4	38.4	7.0	1.1	100.0(284)
배우자 있음	4.1	0.3	10.2	7.7	12.0	0.1	23.6	0.3	33.3	8.0	0.4	100.0(1,086)
배우자 없음	5.1	0.0	5.1	0.0	10.3	0.0	43.6	0.0	25.6	10.3	0.0	100.0(39)
X ² (df)	36.86(20)*											
영유아자녀유무												
유	2.2	0.6	11.0	6.6	10.1	0.0	19.6	0.6	43.5	5.0	0.6	100.0(317)
무	5.7	0.2	9.7	9.1	13.2	0.2	27.8	0.2	23.9	9.7	0.3	100.0(627)
X ² (df)	51.17(10)*											
취업 여부												
취업	3.7	0.3	8.7	7.7	13.2	0.1	24.2	0.2	34.0	7.5	0.5	100.0(1,032)
미취업	3.8	0.0	11.6	6.4	14.2	0.3	20.1	0.6	34.9	7.8	0.3	100.0(344)
X ² (df)	8.35(10)											
맞벌이 유무												
맞벌이	2.5	0.1	10.4	7.3	11.3	0.0	22.7	0.3	37.6	7.6	0.1	100.0(673)
맞벌이 아님	6.8	0.5	9.9	8.5	13.1	0.2	24.9	0.2	26.4	8.7	0.7	100.0(413)
X ² (df)	27.98(10)*											
가구소득 ¹⁾												
60% 미만	3.8	0.0	8.3	6.6	16.4	0.0	23.0	0.2	32.7	8.5	0.5	100.0(422)
60 - 80% 미만	5.0	0.5	6.8	5.9	13.1	0.0	24.8	0.5	34.2	8.6	0.9	100.0(222)
80 - 100% 미만	4.7	1.0	11.9	7.8	13.0	1.0	24.9	0.5	26.9	7.8	0.5	100.0(193)
100 - 120% 미만	3.5	0.0	9.3	6.4	11.6	0.0	25.0	0.0	39.0	5.2	0.0	100.0(172)
120 - 140% 미만	2.5	0.0	13.5	8.0	12.3	0.0	19.6	0.0	41.7	2.5	0.0	100.0(163)
140 - 160% 미만	2.0	0.0	10.2	12.2	7.1	0.0	22.4	0.0	35.7	10.2	0.0	100.0(98)
160% 이상	2.9	0.0	7.9	8.6	12.9	0.0	20.1	0.7	32.4	12.9	1.4	100.0(139)
X ² (df)	73.30(6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영유아 부모들 대상으로 한 수시조사 문항인 ‘출근 시간 지하철 환승 게이트 앞에 한 살 아이를 아기 띠에 메고 세 살 아이손을 잡은 엄마가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정기조사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0.1%로 가장 높았고,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 타는 것 자체가 짜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로 가장 낮아 수시조사 응답 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표 III-4-3 대중교통에서 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각

단위: %(명)

구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출퇴근 시간에는 안 다녔으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편할텐데	아이동반 지하철 타는 것 자체가 짜증	별다른 생각 없음	기타	수
전체	59.0	10.4	14.7	0.9	11.9	3.1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61.0	10.4	12.8	1.1	12.2	2.5	100.0(1,522)
여자	57.0	10.3	16.7	0.7	11.6	3.7	100.0(1,478)
X ² (df)			14.35(5)*				
연령							
10대 이하	43.1	5.2	15.5	6.9	25.9	3.4	100.0(58)
20대	42.4	5.5	21.2	1.4	24.5	4.9	100.0(632)
30대	56.6	9.4	19.1	1.0	9.1	4.8	100.0(519)
40대	61.9	9.2	14.6	0.5	10.8	3.0	100.0(630)
50대	63.0	14.7	11.7	0.6	8.0	1.9	100.0(625)
60대 이상	74.4	13.8	6.5	0.6	4.1	0.6	100.0(536)
X ² (df)			330.40(25)*				
혼인 여부							
미혼	38.5	8.6	19.0	1.9	27.5	4.5	100.0(579)
배우자 있음	64.0	10.6	13.7	0.7	8.0	2.9	100.0(2,312)
배우자 없음	61.5	13.8	13.8	0.0	11.0	0.0	100.0(109)
X ² (df)			225.11(10)*				
영유아자녀유무							
유	66.3	8.8	14.8	0.7	6.7	2.7	100.0(582)
무	67.3	12.4	10.6	0.7	6.8	2.3	100.0(1,534)
X ² (df)			11.49(5)*				
취업 여부							
취업	59.7	10.4	15.3	1.0	10.8	2.9	100.0(2,139)
미취업	58.0	10.3	13.6	0.5	14.3	3.3	100.0(785)
X ² (df)			9.25(5)				
맞벌이 유무							
맞벌이	62.0	10.0	15.8	1.0	8.2	3.0	100.0(1,350)
맞벌이 아님	66.8	11.5	10.8	0.4	7.8	2.6	100.0(962)
X ² (df)			16.204(5)*				
가구소득 ¹⁾							
60% 미만	52.4	10.9	14.1	1.2	18.4	2.9	100.0(919)
60 - 80% 미만	61.2	9.1	13.6	0.5	12.2	3.4	100.0(441)
80 - 100% 미만	62.4	9.1	13.6	1.7	10.8	2.4	100.0(418)
100 - 120% 미만	60.3	9.4	17.1	0.6	8.8	3.9	100.0(363)
120 - 140% 미만	64.1	10.0	16.8	0.0	6.0	3.1	100.0(351)
140 - 160% 미만	60.5	12.6	15.3	2.1	7.9	1.6	100.0(190)
160% 이상	62.3	12.6	14.2	0.6	6.6	3.8	100.0(318)
X ² (df)			89.04(3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다자녀 가구 이용 편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로 가장 높았고 없어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맞벌이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20대, 미혼, 무자녀, 맞벌이의 경우,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 표 III-4-4 ■ 다자녀 가구 이용 편의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꼭 필요한 정책임	있으면 좋음	없어도 괜찮음	역차별	수
전체	27.4	48.8	11.5	12.3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30.3	48.9	10.9	9.9	100.0(1,522)
여자	24.4	48.8	12.0	14.8	100.0(1,478)
X ² (df)		25.06(3)*			
연령					
10대 이하	34.5	51.7	5.2	8.6	100.0(58)
20대	27.2	45.3	15.2	12.3	100.0(632)
30대	27.4	43.9	13.9	14.8	100.0(519)
40대	24.1	50.8	9.8	15.2	100.0(630)
50대	25.4	52.6	10.6	11.4	100.0(625)
60대 이상	32.8	50.7	8.4	8.0	100.0(536)
X ² (df)		51.99(15)*			
혼인 여부					
미혼	23.1	48.5	14.5	13.8	100.0(579)
배우자 있음	28.2	49.1	10.9	11.9	100.0(2,312)
배우자 없음	33.0	45.0	8.3	13.8	100.0(109)
X ² (df)		13.93(6)*			
영유아자녀유무					
유	35.6	44.0	10.7	9.8	100.0(582)
무	26.6	51.3	10.1	12.0	100.0(1,534)
X ² (df)		18.18(3)*			
취업 여부					
취업	28.4	47.4	11.8	12.3	100.0(2,139)
미취업	25.2	51.5	10.6	12.7	100.0(785)
X ² (df)		4.946(3)			
맞벌이 유무					
맞벌이	29.0	46.7	11.5	12.8	100.0(1,350)
맞벌이 아님	27.0	52.4	10.0	10.6	100.0(962)
X ² (df)		7.88(3)*			

구분	꼭 필요한 정책임	있으면 좋음	없어도 괜찮음	역차별	수
가구소득 ¹⁾					
60% 미만	26.7	49.6	10.8	12.9	100.0(919)
60 - 80% 미만	27.9	49.0	12.0	11.1	100.0(441)
80 - 100% 미만	28.7	48.3	11.7	11.2	100.0(418)
100 - 120% 미만	23.1	54.3	11.3	11.3	100.0(363)
120 - 140% 미만	27.1	46.4	13.4	13.1	100.0(351)
140 - 160% 미만	29.5	45.3	11.6	13.7	100.0(190)
160% 이상	30.8	45.6	10.4	13.2	100.0(318)
X ² (df)		12.67(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나. 육아정책 방향

국가 차원의 육아정책 설계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2%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고 아이의 행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4%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지역규모,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의 우선 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수
전체	26.5	34.2	27.4	11.4	0.5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22.5	35.9	30.2	10.9	0.5	100.0(1,522)
여자	30.6	32.4	24.6	12.0	0.5	100.0(1,478)
X ² (df)			30.38(4)*			
연령						
10대 이하	10.3	43.1	24.1	22.4	0.0	100.0(58)
20대	31.0	30.5	26.9	11.1	0.5	100.0(632)
30대	31.6	29.3	28.9	9.8	0.4	100.0(519)
40대	25.2	31.9	30.0	12.4	0.5	100.0(630)
50대	25.9	37.6	24.5	11.2	0.8	100.0(625)
60대 이상	20.1	41.0	27.2	11.4	0.2	100.0(536)
X ² (df)			57.02(20)*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수
혼인 여부						
미혼	25.0	34.2	27.5	12.6	0.7	100.0(579)
배우자 있음	26.9	34.1	27.5	11.0	0.4	100.0(2,312)
배우자 없음	24.8	36.7	24.8	13.8	0.0	100.0(109)
X ² (df)			3.99(8)			
영유아자녀유무						
유	27.8	30.9	30.2	10.7	0.3	100.0(582)
무	24.6	37.3	26.1	11.6	0.4	100.0(1,534)
X ² (df)			9.54(4)*			
취업 여부						
취업	27.2	33.2	28.6	10.5	0.6	100.0(2,139)
미취업	24.6	36.3	24.3	14.5	0.3	100.0(785)
X ² (df)			16.152(4)*			
맞벌이 유무						
맞벌이	30.4	32.5	27.7	9.0	0.4	100.0(1,350)
맞벌이 아님	22.1	36.3	27.2	13.8	0.5	100.0(962)
X ² (df)			28.46(4)*			
가구소득 ¹⁾						
60% 미만	23.5	33.4	28.5	14.0	0.5	100.0(919)
60 - 80% 미만	20.0	36.5	29.7	13.6	0.2	100.0(441)
80 - 100% 미만	23.0	37.3	27.8	11.7	0.2	100.0(418)
100 - 120% 미만	31.7	33.3	27.0	7.7	0.3	100.0(363)
120 - 140% 미만	35.0	30.2	25.1	8.5	1.1	100.0(351)
140 - 160% 미만	32.6	31.6	25.3	10.0	0.5	100.0(190)
160% 이상	29.9	36.2	24.8	8.8	0.3	100.0(318)
X ² (df)			58.71(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에서의 우선 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0%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무자녀의 경우,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에, 취업, 맞벌이 경우는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III-4-6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의 우선 순위

단위: %(명)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수
전체	51.0	39.1	8.5	1.4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48.8	42.7	7.1	1.4	100.0(1,522)
여자	53.2	35.5	9.9	1.4	100.0(1,478)
X ² (df)		19.83(3)*			
연령					
10대 이하	37.9	46.6	15.5	0.0	100.0(58)
20대	49.7	38.6	10.3	1.4	100.0(632)
30대	44.1	48.6	5.6	1.7	100.0(519)
40대	51.7	37.8	9.2	1.3	100.0(630)
50대	56.2	32.5	9.4	1.9	100.0(625)
60대 이상	53.7	39.2	6.3	0.7	100.0(536)
X ² (df)		50.15(15)*			
혼인 여부					
미혼	52.8	32.0	14.2	1.0	100.0(579)
배우자 있음	50.2	41.3	7.0	1.5	100.0(2,312)
배우자 없음	57.8	31.2	10.1	0.9	100.0(109)
X ² (df)		43.47(6)*			
영유아자녀유무					
유	35.7	59.1	4.1	1.0	100.0(582)
무	56.4	34.2	7.9	1.6	100.0(1,534)
X ² (df)		109.07(3)*			
취업 여부					
취업	51.1	40.8	6.6	1.5	100.0(2,139)
미취업	51.1	35.5	12.1	1.3	100.0(785)
X ² (df)		25.78(3)*			
맞벌이 유무					
맞벌이	50.9	42.4	5.3	1.3	100.0(1,350)
맞벌이 아님	49.3	39.7	9.3	1.8	100.0(962)
X ² (df)		14.39(3)*			
가구소득 ¹⁾					
60% 미만	51.0	34.4	13.2	1.4	100.0(919)
60 - 80% 미만	44.9	45.6	8.4	1.1	100.0(441)
80 - 100% 미만	51.9	41.6	5.7	0.7	100.0(418)
100 - 120% 미만	49.0	42.4	6.6	1.9	100.0(363)
120 - 140% 미만	53.8	38.5	6.3	1.4	100.0(351)
140 - 160% 미만	57.9	35.3	5.3	1.6	100.0(190)
160% 이상	53.1	39.9	5.0	1.9	100.0(318)
X ² (df)		59.42(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중 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①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한 ⑧육아정보·상담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40.4	4.8	6.5	15.9	4.8	3.4	15.8	0.9	4.5	0.9	2.2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44.4	6.6	7.0	14.4	3.7	3.5	13.1	1.1	2.8	1.0	2.5	100.0(1,522)
여자	36.3	3.0	6.0	17.4	5.9	3.3	18.5	0.6	6.2	0.8	2.0	100.0(1,478)
X ² (df)												82.07(10)*
연령												
10대 이하	24.1	19.0	10.3	15.5	3.4	3.4	17.2	1.7	5.2	0.0	0.0	100.0(58)
20대	28.0	7.0	8.2	12.3	5.2	3.3	24.4	2.2	5.9	0.8	2.7	100.0(632)
30대	36.6	6.9	6.9	16.4	5.0	2.5	18.9	0.6	3.9	1.2	1.2	100.0(519)
40대	43.3	3.5	6.3	16.5	5.2	3.0	13.3	0.5	5.1	0.6	2.5	100.0(630)
50대	45.0	3.2	5.0	17.1	4.5	4.0	11.8	0.6	4.8	1.3	2.7	100.0(625)
60대 이상	51.7	2.2	5.4	17.4	4.1	4.1	9.9	0.2	2.2	0.7	2.1	100.0(536)
X ² (df)												207.46(50)*
혼인 여부												
미혼	29.7	5.5	6.9	14.5	3.8	2.9	23.8	2.1	5.2	1.0	4.5	100.0(579)
배우자 있음	42.9	4.8	6.3	16.2	5.0	3.5	13.9	0.6	4.4	0.9	1.6	100.0(2,312)
배우자 없음	43.1	1.8	8.3	16.5	6.4	3.7	11.9	0.0	2.8	0.9	4.6	100.0(109)
X ² (df)												91.61(20)*
영유아자녀유무												
유	39.5	9.1	8.9	14.4	5.8	2.6	14.3	1.0	3.4	0.3	0.5	100.0(582)
무	45.6	3.1	5.5	17.4	4.5	4.0	11.9	0.4	4.4	1.1	2.1	100.0(1,534)
X ² (df)												64.05(10)*
취업 여부												
취업	40.7	5.5	6.2	15.5	5.2	3.4	16.2	0.6	4.0	1.1	1.7	100.0(2,139)
미취업	40.4	3.1	7.4	17.3	3.7	3.4	14.8	1.1	5.4	0.5	2.9	100.0(785)
X ² (df)												23.77(10)*
맞벌이 유무												
맞벌이	40.4	4.8	5.6	16.7	5.6	3.8	15.6	0.6	5.0	1.0	1.0	100.0(1,350)
맞벌이 아님	46.6	4.8	7.3	15.4	4.2	3.1	11.5	0.6	3.5	0.7	2.3	100.0(962)
X ² (df)												26.60(1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가구소득 ¹⁾												
60% 미만	37.1	5.8	6.9	14.9	3.3	2.7	17.7	1.3	4.9	0.9	4.6	100.0(919)
60 - 80% 미만	44.9	5.9	8.2	12.7	4.1	4.1	11.8	0.7	4.8	0.9	2.0	100.0(441)
80 - 100% 미만	43.8	3.8	4.8	18.7	5.0	4.1	13.4	0.7	4.3	1.0	0.5	100.0(418)
100 - 120% 미만	42.7	4.7	6.9	13.8	6.3	2.8	17.1	1.1	3.6	0.6	0.6	100.0(363)
120 - 140% 미만	37.6	2.8	7.1	18.8	6.0	3.4	17.7	0.3	4.6	0.3	1.4	100.0(351)
140 - 160% 미만	42.1	2.6	4.2	15.8	7.9	2.1	16.3	0.5	6.3	0.0	2.1	100.0(190)
160% 이상	38.7	5.7	5.3	18.6	5.0	5.0	14.8	0.6	2.8	2.5	0.9	100.0(318)
X ² (df)						118.04(60)*						

①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②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 ③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④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⑤ 시간연장형(시간연장보육,야간보육) 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⑥ 아이돌봄비 지원 확대,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⑧ 육아정보·상담 제공, ⑨ 유연근무제 확대(시차출근제, 단시간근로 등), ⑩ 기타, ⑪ 잘 모르겠음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중 1+2+3순위에 질문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①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와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⑧육아정보·상담 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로 가장 낮았다.

■ 표 III-4-8 ■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 1+2+3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1순위	40.4	4.8	6.5	15.9	4.8	3.4	15.8	0.9	4.5	0.9	2.2	100.0(3,000)
2순위	10.9	6.9	10.0	20.2	12.3	8.6	16.7	2.2	11.7	0.4	-	100.0(2,933)
3순위	9.8	4.3	6.4	14.9	12.7	10.4	18.2	5.2	17.6	0.5	-	100.0(2,933)
1+2+3순위	60.7	15.7	22.5	50.2	29.3	21.9	49.9	8.1	33.1	1.9	2.2	(3,000)

①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②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 ③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④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⑤ 시간연장형(시간연장보육,야간보육) 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⑥ 아이돌봄비 지원 확대,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⑧ 육아정보·상담 제공, ⑨ 유연근무제 확대(시차출근제, 단시간근로 등), ⑩ 기타, ⑪ 잘 모르겠음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정부의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1.0%로 가장 높았고,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자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4-9 정부의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없음	모르 겠음	수
전체	31.1	61.0	4.4	1.6	1.9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35.5	57.4	3.8	2.0	1.2	100.0(1,522)
여자	26.7	64.7	4.9	1.2	2.5	100.0(1,478)
X ² (df)			37.53(4)*			
연령						
10대 이하	37.9	51.7	5.2	0.0	5.2	100.0(58)
20대	33.4	60.4	2.7	1.7	1.7	100.0(632)
30대	36.6	58.4	3.3	0.6	1.2	100.0(519)
40대	29.7	60.0	5.2	2.5	2.5	100.0(630)
50대	22.7	68.2	5.4	1.8	1.9	100.0(625)
60대 이상	34.0	58.2	5.0	1.3	1.5	100.0(536)
X ² (df)			54.29(20)*			
혼인 여부						
미혼	27.5	63.2	4.1	1.6	3.6	100.0(579)
배우자 있음	32.2	60.5	4.3	1.6	1.4	100.0(2,312)
배우자 없음	28.4	60.6	6.4	2.8	1.8	100.0(109)
X ² (df)			18.20(8)*			
영유아자녀유무						
유	43.1	52.7	2.2	1.7	0.2	100.0(582)
무	27.4	63.7	5.5	1.6	1.8	100.0(1,534)
X ² (df)			59.43(4)*			
취업 여부						
취업	32.0	60.9	4.2	1.8	1.2	100.0(2,139)
미취업	29.0	61.1	5.1	1.1	3.6	100.0(785)
X ² (df)			22.36(4)*			
맞벌이 유무						
맞벌이	33.1	60.2	4.0	1.6	1.1	100.0(1,350)
맞벌이 아님	30.9	60.9	4.8	1.6	1.9	100.0(962)
X ² (df)			3.99(4)			
가구소득 ¹⁾						
60% 미만	31.7	59.3	4.0	1.4	3.6	100.0(919)
60 - 80% 미만	35.1	58.0	3.2	2.0	1.6	100.0(441)
80 - 100% 미만	30.6	62.7	3.8	2.2	0.7	100.0(418)
100 - 120% 미만	28.9	65.8	4.1	0.6	0.6	100.0(363)
120 - 140% 미만	28.2	63.5	6.0	0.9	1.4	100.0(351)
140 - 160% 미만	29.5	59.5	8.4	2.1	0.5	100.0(190)
160% 이상	31.4	60.7	3.8	2.5	1.6	100.0(318)
X ² (df)			49.42(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3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25.4%,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18.2% 순이었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자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4-10 ■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
전체	33.6	3.5	25.4	18.2	3.7	5.6	7.8	0.9	1.2	0.3	100.0(2,765)
성별 구분											
남자	29.4	3.3	28.8	21.7	2.8	4.8	7.1	0.7	1.0	0.4	100.0(1,414)
여자	38.0	3.7	21.8	14.5	4.5	6.4	8.4	1.1	1.4	0.1	100.0(1,351)
X ² (df)	62.13(9)*										
연령											
10대 이하	30.8	15.4	19.2	21.2	1.9	11.5	0.0	0.0	0.0	0.0	100.0(52)
20대	41.8	3.7	14.8	21.9	3.2	3.0	8.3	0.8	1.7	0.7	100.0(593)
30대	30.8	3.4	20.7	21.5	5.1	4.9	11.0	0.8	1.8	0.0	100.0(493)
40대	28.8	3.2	28.7	18.2	3.4	6.5	8.3	1.6	1.1	0.2	100.0(565)
50대	31.0	3.0	31.9	14.6	3.3	6.2	7.7	1.1	1.1	0.2	100.0(568)
60대 이상	35.2	2.8	32.0	14.2	3.6	7.1	4.3	0.2	0.4	0.2	100.0(494)
X ² (df)	163.25(45)*										
혼인 여부											
미혼	36.2	5.3	20.8	19.6	3.4	3.8	8.4	0.6	1.1	0.8	100.0(525)
배우자 있음	33.2	3.0	26.2	17.8	3.7	5.8	7.8	1.0	1.3	0.1	100.0(2,143)
배우자 없음	28.9	4.1	30.9	19.6	3.1	10.3	3.1	0.0	0.0	0.0	100.0(97)
X ² (df)	35.77(18)*										
영유아자녀유무											
유	28.3	4.5	23.3	25.1	3.9	4.3	7.7	1.4	1.4	0.0	100.0(558)
무	32.2	2.7	29.5	15.2	3.5	7.4	7.7	0.8	0.8	0.1	100.0(1,397)
X ² (df)	42.75(9)*										
취업 여부											
취업	32.8	3.5	25.8	19.0	4.0	5.1	7.4	1.0	1.4	0.1	100.0(1,987)
미취업	34.9	3.1	25.0	16.4	2.7	7.3	8.6	0.7	0.7	0.6	100.0(708)
X ² (df)	18.66(9)*										
맞벌이 유무											
맞벌이	35.1	3.4	23.6	16.8	4.5	6.0	8.2	1.0	1.4	0.1	100.0(1,260)
맞벌이 아님	30.5	2.4	30.0	19.1	2.6	5.7	7.4	1.1	1.0	0.2	100.0(883)
X ² (df)	22.26(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
가구소득 ¹⁾											
60% 미만	34.9	3.9	22.6	21.9	3.3	4.8	6.6	0.4	1.0	0.6	100.0(836)
60 - 80% 미만	29.0	3.4	25.3	21.2	3.4	8.0	7.1	1.2	1.2	0.2	100.0(411)
80 - 100% 미만	29.5	3.1	28.2	18.5	4.6	6.4	6.9	1.3	1.3	0.3	100.0(390)
100 - 120% 미만	36.6	4.1	26.2	15.4	4.1	4.1	7.8	0.6	1.2	0.0	100.0(344)
120 - 140% 미만	37.0	2.2	23.6	13.0	4.3	6.2	10.9	0.9	1.9	0.0	100.0(322)
140 - 160% 미만	39.6	1.8	28.4	11.8	1.8	5.3	8.9	1.2	1.2	0.0	100.0(169)
160% 이상	31.1	4.4	28.7	15.7	3.4	4.8	9.2	1.7	1.0	0.0	100.0(293)
X ² (df)	73.07(54)*										

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⑨ 기타, ⑩ 없음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출산·육아지원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정책(1순위+2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 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43.8%,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40.8%로 나타났다.

표 III-4-11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 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
1순위	33.6	3.5	25.4	18.2	3.7	5.6	7.8	0.9	1.2	0.3	100.0(2,765)
2순위	14.4	4.6	18.5	22.6	12.3	10.5	12.9	3.7	0.6	-	100.0(2,758)
1+2순위	47.9	8.0	43.8	40.8	15.9	16.1	20.6	4.6	1.8	0.3	(2,765)

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⑨ 기타, ⑩ 없음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장의 출산 및 양육 적절 지원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1.7%로 가장 높았고,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2 직장의 출산 및 양육 적절 지원 정도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없음	모르 겠음	수
전체	28.5	61.7	5.8	1.7	2.4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29.6	59.9	6.4	2.3	1.8	100.0(1,522)
여자	27.3	63.5	5.1	1.1	3.0	100.0(1,478)
X ² (df)			15.66(4)*			
연령						
10대 이하	34.5	53.4	5.2	1.7	5.2	100.0(58)
20대	32.6	57.3	5.9	1.1	3.2	100.0(632)
30대	34.5	58.0	4.2	1.9	1.3	100.0(519)
40대	25.6	63.8	6.2	2.2	2.2	100.0(630)
50대	22.4	64.6	8.3	2.2	2.4	100.0(625)
60대 이상	27.6	65.3	3.7	0.9	2.4	100.0(536)
X ² (df)			52.01(20)*			
혼인 여부						
미혼	27.8	58.2	7.4	1.9	4.7	100.0(579)
배우자 있음	28.7	62.4	5.5	1.7	1.8	100.0(2,312)
배우자 없음	27.5	65.1	2.8	0.9	3.7	100.0(109)
X ² (df)			23.87(8)*			
영유아자녀유무						
유	36.8	57.2	4.0	1.4	0.7	100.0(582)
무	25.0	64.8	6.1	1.9	2.2	100.0(1,534)
X ² (df)			34.45(4)*			
취업 여부						
취업	29.5	60.9	6.2	1.5	1.9	100.0(2,139)
미취업	25.5	64.1	5.0	2.2	3.3	100.0(785)
X ² (df)			11.86(4)*			
맞벌이 유무						
맞벌이	30.8	61.3	5.1	1.4	1.4	100.0(1,350)
맞벌이 아님	25.7	63.9	6.0	2.1	2.3	100.0(962)
X ² (df)			10.63(4)*			
가구소득 ¹⁾						
60% 미만	28.7	59.7	5.7	1.5	4.4	100.0(919)
60 - 80% 미만	30.6	61.7	3.6	2.0	2.0	100.0(441)
80 - 100% 미만	25.8	64.6	6.5	1.0	2.2	100.0(418)
100 - 120% 미만	27.8	64.2	6.3	1.1	0.6	100.0(363)
120 - 140% 미만	26.8	61.8	6.8	2.3	2.3	100.0(351)
140 - 160% 미만	30.0	60.0	6.8	2.6	0.5	100.0(190)
160% 이상	29.9	61.3	5.7	2.2	0.9	100.0(318)
X ² (df)			39.74(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국가가 세금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4-13 ■ 세금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수
전체	16.2	52.9	19.9	6.3	4.8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21.5	53.4	16.2	5.3	3.5	100.0(1,522)
여자	10.7	52.3	23.6	7.4	6.0	100.0(1,478)
$X^2(df)$			89.42(4)*			
연령						
10대 이하	20.7	53.4	19.0	0.0	6.9	100.0(58)
20대	16.1	54.0	14.9	7.3	7.8	100.0(632)
30대	17.1	52.0	20.4	6.0	4.4	100.0(519)
40대	15.1	48.4	24.0	7.5	5.1	100.0(630)
50대	13.6	55.5	21.8	6.1	3.0	100.0(625)
60대 이상	19.0	54.5	18.3	5.2	3.0	100.0(536)
$X^2(df)$			52.77(20)*			
혼인 여부						
미혼	14.3	52.3	18.1	7.6	7.6	100.0(579)
배우자 있음	16.6	52.8	20.3	6.1	4.2	100.0(2,312)
배우자 없음	17.4	57.8	19.3	3.7	1.8	100.0(109)
$X^2(df)$			19.331(8)*			
영유아자녀유무						
유	22.0	51.2	18.2	5.0	3.6	100.0(582)
무	14.9	53.9	21.4	6.4	3.4	100.0(1,534)
$X^2(df)$			16.58(4)*			
취업 여부						
취업	17.1	52.5	19.4	6.5	4.5	100.0(2,139)
미취업	13.6	53.8	21.3	6.0	5.4	100.0(785)
$X^2(df)$			6.63(4)			
맞벌이 유무						
맞벌이	16.7	52.7	20.6	5.5	4.6	100.0(1,350)
맞벌이 아님	16.4	52.9	20.0	7.1	3.6	100.0(962)
$X^2(df)$			3.661(4)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수
가구소득 ¹⁾						
60% 미만	16.6	53.4	16.9	6.5	6.5	100.0(919)
60 - 80% 미만	17.2	52.8	19.5	5.9	4.5	100.0(441)
80 - 100% 미만	14.6	53.6	20.6	7.2	4.1	100.0(418)
100 - 120% 미만	15.2	54.3	21.8	5.2	3.6	100.0(363)
120 - 140% 미만	12.3	54.4	21.9	6.0	5.4	100.0(351)
140 - 160% 미만	21.6	43.7	25.3	7.9	1.6	100.0(190)
160% 이상	17.6	52.5	20.4	6.0	3.5	100.0(318)
X ² (df)			35.73(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출산율 상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4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출산율 상승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보통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수	평균
전체	2.5	17.1	34.3	33.9	12.2	100.0(3,000)	2.64
성별 구분							
남자	3.5	20.2	33.4	29.6	13.3	100.0(1,522)	2.71
여자	1.5	13.9	35.2	38.3	11.1	100.0(1,478)	2.56
X ² (df)			50.03(4)***				
연령							
10대 이하	5.2	34.5	41.4	13.8	5.2	100.0(58)	3.21
20대	4.0	20.1	32.3	29.6	14.1	100.0(632)	2.70
30대	2.9	13.1	29.7	38.3	16.0	100.0(519)	2.49
40대	1.3	12.5	38.1	36.2	11.9	100.0(630)	2.55
50대	2.1	15.8	37.9	34.1	10.1	100.0(625)	2.66
60대 이상	2.2	22.4	31.7	33.8	9.9	100.0(536)	2.73
X ² (df)			87.30(20)***				
혼인 여부							
미혼	3.5	17.1	34.2	32.0	13.3	100.0(579)	2.65
배우자 있음	2.4	17.0	34.4	34.0	12.2	100.0(2,312)	2.63
배우자 없음	0.9	18.3	32.1	41.3	7.3	100.0(109)	2.64
X ² (df)			8.65(8)				

구분	매우 그렇 것이다	그렇 것이다	보통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수	평균
영유아자녀유무							
유	3.4	17.4	31.8	32.8	14.6	100.0(582)	2.62
무	1.9	17.3	35.1	34.7	11.0	100.0(1,534)	2.65
X ² (df)			10.88(4)*				
취업 여부							
취업	2.8	16.8	33.8	33.5	13.1	100.0(2,139)	2.63
미취업	1.8	18.1	35.3	34.5	10.3	100.0(785)	2.66
X ² (df)			7.19(4)				
맞벌이 유무							
맞벌이	3.0	16.7	34.7	34.1	11.6	100.0(1,350)	2.65
맞벌이 아님	1.6	17.5	34.1	33.9	13.0	100.0(962)	2.61
X ² (df)			5.84(4)				
가구소득 ¹⁾							
60% 미만	3.0	18.8	33.6	33.0	11.5	100.0(919)	2.69
60 - 80% 미만	1.6	15.9	34.7	35.8	12.0	100.0(441)	2.59
80 - 100% 미만	1.2	15.6	35.4	35.4	12.4	100.0(418)	2.58
100 - 120% 미만	3.3	18.2	32.2	34.2	12.1	100.0(363)	2.66
120 - 140% 미만	2.0	15.7	38.7	29.9	13.7	100.0(351)	2.62
140 - 160% 미만	4.2	16.8	31.1	34.2	13.7	100.0(190)	2.64
160% 이상	2.8	16.4	33.6	35.5	11.6	100.0(318)	2.63
X ² (df)			20.02(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 $p < .001$.

아동수당의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2%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면 다자녀 가구 할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유자녀의 경우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4-15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가구 전체 확대	소득수준 하위 90% 유지	소득수준 하위 80%/이하로 축소	다자녀 가구 할증	저소득층 가구 할증	기타	수
전체	26.2	24.7	26.1	8.5	13.1	1.4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27.7	23.9	25.8	10.1	11.2	1.4	100.0(1,522)
여자	24.6	25.5	26.4	7.0	15.1	1.5	100.0(1,478)
X ² (df)			20.72(5)*				

구분	영유아 가구 전체 확대	소득수준 하위 90% 유지	소득수준 하위 80%/이하로 축소	다자녀 가구 할증	저소득층 가구 할증	기타	수
연령							
10대 이하	24.1	27.6	20.7	3.4	22.4	1.7	100.0(58)
20대	27.8	28.2	21.2	8.9	12.3	1.6	100.0(632)
30대	32.4	24.7	22.2	6.9	12.1	1.7	100.0(519)
40대	25.7	23.7	25.6	8.1	16.5	0.5	100.0(630)
50대	21.0	23.2	32.2	9.6	12.3	1.8	100.0(625)
60대 이상	25.0	23.1	29.7	9.5	11.0	1.7	100.0(536)
X ² (df)			63.18(25)*				
혼인 여부							
미혼	22.8	25.9	23.0	8.8	18.5	1.0	100.0(579)
배우자 있음	27.1	24.3	26.7	8.7	11.8	1.5	100.0(2,312)
배우자 없음	24.8	26.6	28.4	4.6	13.8	1.8	100.0(109)
X ² (df)			25.63(10)*				
영유아자녀유무							
유	38.1	23.7	20.1	7.6	9.5	1.0	100.0(582)
무	22.4	23.7	29.9	9.1	13.4	1.6	100.0(1,534)
X ² (df)			61.61(5)*				
취업 여부							
취업	27.5	23.9	25.7	8.8	12.7	1.4	100.0(2,139)
미취업	23.6	26.9	26.1	7.5	14.3	1.7	100.0(785)
X ² (df)			7.95(5)				
맞벌이 유무							
맞벌이	27.8	23.6	27.1	8.4	11.9	1.2	100.0(1,350)
맞벌이 아님	26.1	25.3	26.2	8.9	11.5	2.0	100.0(962)
X ² (df)			3.99(5)				
가구소득¹⁾							
60% 미만	24.3	25.2	25.4	7.7	15.5	2.0	100.0(919)
60 - 80% 미만	28.1	25.6	23.8	8.2	13.2	1.1	100.0(441)
80 - 100% 미만	24.6	26.1	29.2	7.7	10.8	1.7	100.0(418)
100 - 120% 미만	26.4	23.1	28.1	9.4	11.8	1.1	100.0(363)
120 - 140% 미만	28.2	25.1	25.9	8.3	11.7	0.9	100.0(351)
140 - 160% 미만	26.3	20.5	26.8	9.5	14.2	2.6	100.0(190)
160% 이상	28.3	23.6	24.5	11.3	11.9	0.3	100.0(318)
X ² (df)			29.02(3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5$.

5 소결

KICCE 정기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자녀유무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하였다. 본 조사는 출산 및 저출산에 대한 의견, 영유아 부모의 육아 현황,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육아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2차년도 정기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별 중요도와 정책효과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는 평균 4.19점~4.36점이었으며, 정책효과는 2.80~3.02점으로 정책효과를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었으며, 정책효과가 높다고 인식한 정책은 자녀 돌봄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37.8%)을 제외하면, 43%가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인 경우, 그 이유로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36%), 양육비 부담(30.3%)로 나타났다.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 수는 평균 2.1명,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2.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서 심각(매우+다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1.1%로 나타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출산율은 고려하면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면밀한 설계를 통해 간극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 육아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양육 효능감(5점 척도)은 항목별로 평균 3.1점~4.3점, 양육 스트레스(5점 척도)는 항목별로 평균 2.3점~3.7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 또는 주거지 주변의 기관 충분성(5점 척도)과 수를 조사한 결과, 항목별로 평균 1.5개~2.6개이었으며, 필요성(7점 척도)은 3.6점~4.1점, 만족도는 2.5점~3점으로 나타났다. 집 또는 주거지 주변의 기관의 충분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미술관(1.5개)과 박물관(1.6개)이었으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편리한 보행 환경(4.1점)과 보차분리(4점),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커뮤니티 시설(2.5점), 커뮤니티 시설 내 프로그램(2.5점)이었다. 지역별 요구를 파악하고 필수 시설을 확보하고, 육아가 편안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 정책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50.1%), 시간제 보육료 지원(51.1%), 유치원 방과후 과정보 지원(49.2%)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료·유아학비 전제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매우+약간) 50.4%, 바람직하지 않다(별로+전혀) 24.8%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소득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수당 전제층 지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매우+약간) 47.2%, 바람직하지 않다(별로+전혀) 28.1%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역시 소득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2%였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다 46.2%, 있다 29.7%로 나타났으며, 세금 부담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 선행이 35.3%,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이 28.5%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료·유아학비 바우처 지급에 대한 의견으로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하는 방식 47.3%, 현행 유지 26.6%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1순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인성지도가 40.8%,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가 36.6%로 가장 높아 기관별 기대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할 점으로는 모두 집과의 거리(유치원 23.6%, 어린이집 26.2%)로 나타났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신뢰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 3.13점, 어린이집은 평균 2.97점이었으며,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인성이 좋은 교사(유치원 83.4%, 어린이집 83.9%)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5점 척도)와 정책효과(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는 항목별로 평균 3.46점~4.12점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가장 높았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이 가장 낮았다. 정책의 기대효과(5점 척도)는 항목별로 평균 3.15점~3.76점이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가장 높았다.

시간 지원 정책의 인지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0.4%)와 유연근무제(33.9%)에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도움 정도는 항목별로 평균 3.92점~4.24점으로 육아휴직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다.

넷째, 국가 차원의 육아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34.2%로 가장 높았고, 재정 지원 설계의 우선 순위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51%로 나타났다.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1순위)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 40.4%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기 바라는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직장에서 자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의 적정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0.2%가 전적+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부가 세금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매우+어느 정도) 69.1%로 나타났으며, 아동수당 도입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매우+다소) 19.6%, 아니다(약간+전혀) 46.1%로 나타났으며, 아동수당의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해서는 영유아 전체 가구로 확대가 26.2%로 가장 높았다. 정책적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현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V

2차년도 KICCE 수시 여론조사 결과

1. 1차 수시 여론조사 주요 결과
2. 2차 수시 여론조사 주요 결과
3. 소결



IV. 2차년도 KICCE 수시 여론조사 결과

1 1차 수시 여론조사 주요 결과

가. 기초 자료 및 개인 배경

응답 대상자는 총 500명으로, 어머니 250명과 아버지 250명이다. 영유아 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77.8%로 대부분이었으며, 2명 21.4%, 3명인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가구 내 영유아 자녀 수로 초등학교 학령기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가 이보다 많을 것이므로, 다자녀 가구 표본이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응답 가구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234명(46.8%)으로 외벌이 가구(266명, 53.2%)에 비해 약간 작았지만, 영유아 가구 대상 다른 연구들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본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이라는 응답이 358명(71.6%), 미취업 중이라는 응답이 142명(28.4%)이었는데, 이는 아버지(남성) 응답자가 대체로 취업자인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20대가 36명(7.2%), 30대가 341명(68.2%), 40대가 123명(24.6%)이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126명(25.2%), 광역시 139명(27.8%), 중소도시 214명(42.8%), 군(읍면지역) 거주자가 21명(4.2%)이었다. 응답 대상 가구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이 319명(63.8%)으로 가장 많고, 기관 미이용(가정 보육)이 153명(30.6%)으로 다음이었다. 유치원 이용자는 137명(27.4%)이었으며,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와 기타 기관 이용자가 각 3명(0.6%)이었다.

표 IV-1-1 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명

구분	사례 수	비율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500)	100.0	응답자 연령		
응답자			20대	(36)	7.2
어머니	(250)	50.0	30대	(341)	68.2
아버지	(250)	50.0	40대	(123)	24.6
총 영유아 자녀 수			지역규모		
1명	(389)	77.8	서울특별시	(126)	25.2
2명	(107)	21.4	광역시	(139)	27.8
3명	(4)	0.8	중소도시	(214)	42.8
(영유아 있는 경우) 평균	1.53명		군(읍면지역)	(21)	4.2
맞벌이 유무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주)}		
맞벌이	(234)	46.8	어린이집	(319)	63.8
맞벌이 아님	(266)	53.2	유치원	(137)	27.4
본인 취업 여부			반일제 이상 기관	(3)	0.6
취업 중	(358)	71.6	이용안함(가정보육)	(153)	30.6
미취업 중	(142)	28.4	기타	(3)	0.6

주: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500명보다 많음.

나. 육아/육아문화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의 행복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7점 이상인 경우가 66.0%로 2/3가량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하였으며, 4~6점(보통 수준)이 27.4%였다. 반면 0~3점에 응답한 응답자는 6.6%에 그쳐, 평균적으로 6.91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 행복도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아버지는 평균 7.32점, 어머니는 6.49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육아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1-2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의 행복 정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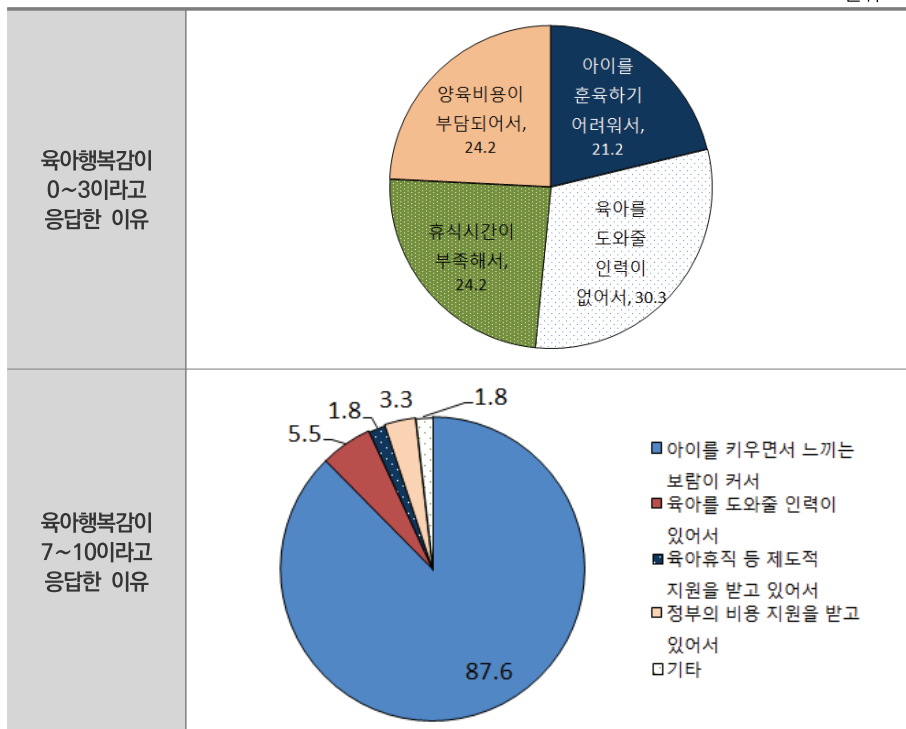
구분	0~3	4~6	7~10	수	평균
전체	6.6	27.4	66.0	(500)	6.91
응답자 구분					
어머니	8.8	32.4	58.8	(250)	6.49
아버지	4.4	22.4	73.2	(250)	7.32
X ² (df)/t		12.16(2)**			-4.67***

주: ** $p < .01$, *** $p < .001$.

육아 행복감이 0~3점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를 도와줄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고, 휴식시간 부족과 양육 비용 부담이 각 24.2%, 아이를 훈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2% 순으로, 다양한 이유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다만, 응답자 수가 33개에 불과하여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반대로, 육아 행복감이 7~10점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7.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 외에 육아를 도와줄 인력이 있기 때문(5.5%),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3.3%), 육아휴직 등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1.8%), 기타(1.8%) 순이었다.

■ 그림 IV-1-1 ■ 육아 행복감 응답 점수별 응답 사유

단위: %



주 : 육아행복감이 0~3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3명, 7~10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30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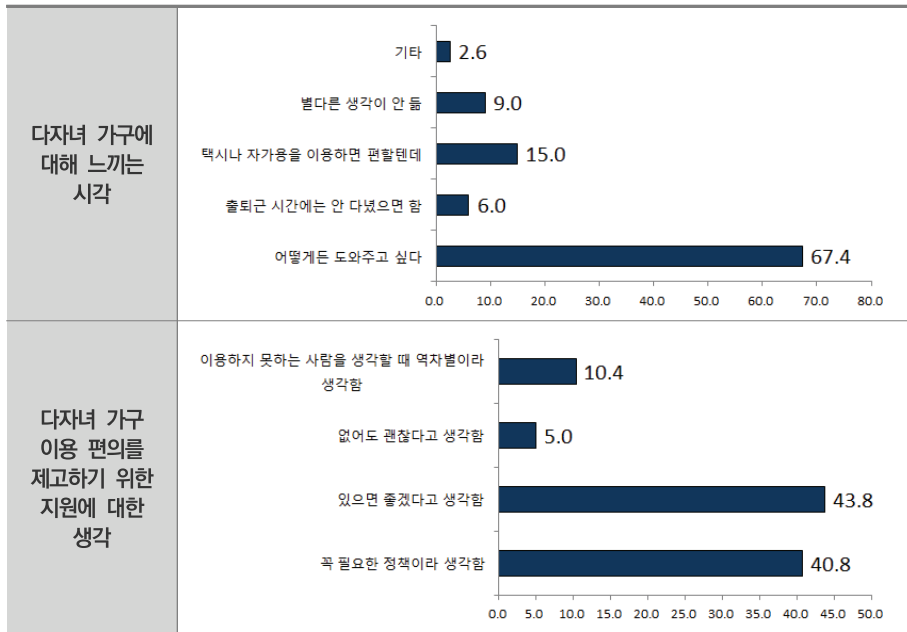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게이트 앞에서 두 명의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다자녀 가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을 질문한 결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응

답이 67.4%로 가장 높았으나,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이 15.0%, 별다른 생각이 안 든다는 응답이 9.0%, 출퇴근 시간에는 안 다녔으면 한다는 응답이 6.0% 등이었다.

이어서, 다자녀 가구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동 도우미, 다자녀 우선 주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40.8%,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3.8%로 80%이상의 응답자가 지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응답 결과에는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 대상자들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림 IV-1-2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주 : 응답자 수는 500명 전체.

다. 영유아 생활환경: 미세먼지 관련 정책

미세먼지('나쁨' 이상)로 인한 결석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책(즉, 결석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0%에 그쳐, 정

책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는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정책 인지도가 9.2% 가량 높았다.

■ 표 IV-1-3 ■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관련 정책 인지

단위: %(명)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수
전체	40.0	60.0	(5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44.9	55.1	(234)
맞벌이 아님	35.7	64.3	(266)
$X^2(df)$	4.35(1)*		

주: * $p < .05$.

한편,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나쁨' 이상) 자녀를 기관에 보낼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등원시키지 않고 싶지만 돌볼 방법이 없어 등원시킬 계획이라는 응답이 51.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등원시키지 않을 계획이라는 응답이 28.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3%, 미세먼지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므로 등원시킬 계획이라는 응답이 9.2%였다. 즉, 80%가량의 영유아 부모들이 미세먼지 발생 시 등원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들은 등원시키고 싶지 않지만 돌볼 방법이 없어서 등원시킬 계획이라는 응답이 68.5%로 외벌이 가구(3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응답을 보였다.

■ 표 IV-1-4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녀 등원 계획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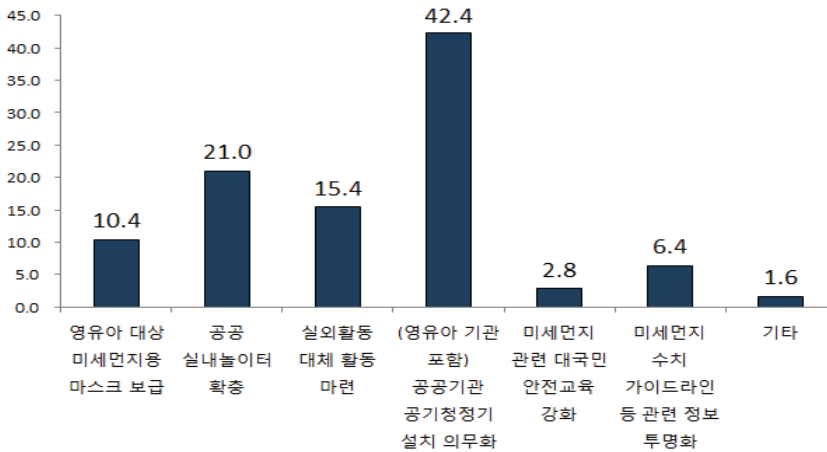
구 분	등원시키지 않을 계획	등원시키지 않고 싶지만 돌볼 방법이 없어 등원시킬 계획	잘 모르겠음	미세먼지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므로 등원시킬 계획	수
전체	28.2	51.3	11.3	9.2	(390)
맞벌이 유무					
맞벌이	20.3	68.5	4.6	6.6	(197)
맞벌이 아님	36.3	33.7	18.1	11.9	(193)
$X^2(df)$	50.79(3)***				

주: *** $p < .001$.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유아 기관을 포함하여 공공 기관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 실내놀이터 확충 21.0%, 실외활동 대체 활동 마련 15.4%, 영유아 대상 미세먼지용 마스크 보급 10.4%, 미세먼지 수치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보 투명화 6.4%, 미세먼지 관련 대 국민 안전 교육 강화 2.8% 순이었다.

■ 그림 IV-1-3 ■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원하는 방안

단위: %



주 : 응답자 수는 500명 전체

라. 유아 영어교육

유치원 방과 후 영어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7.6%,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2.4%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다소 높았다. 한편, 유치원 방과후 영어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에 아버지에 비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12%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V-1-5 유치원 방과후 영어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필요성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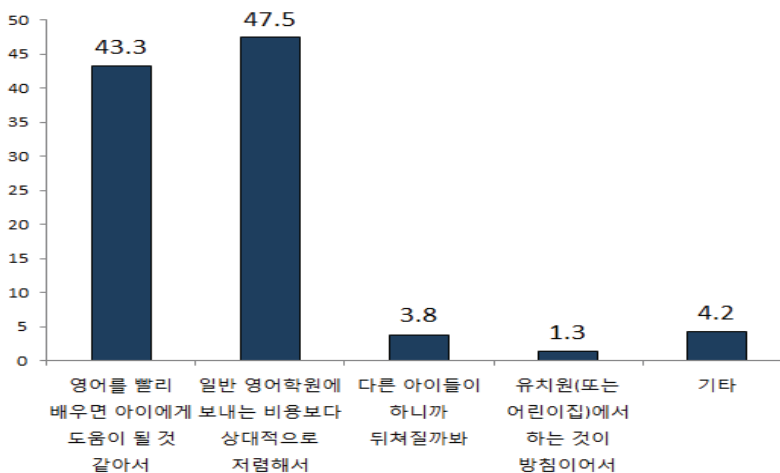
구 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수
전체	47.6	32.4	20.0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53.6	27.6	18.8	(250)
아버지	41.6	37.2	21.2	(250)
X ² (df)		0.02(2)*		

주: * $p < .05$.

유치원 방과 후 영어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일반 영어학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지만, 영어를 빨리 배우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즉, 조기 언어 습득에 대한 기대)는 응답도 43.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IV-1-4 방과후 영어/영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주 : 응답자는 방과후 영어/ 영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로, 238명임.

2 2차 수시 여론조사 주요 결과

가. 기초 자료 및 개인 배경

2차 수시조사의 응답자는 총 500명이며, 어머니 250명, 아버지 250명이다. 총 영유아 수는 1명인 경우가 362명(72.4%)로 1차 수시조사에 비해 약간 적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영유아 자녀수가 2명인 경우 125명(25.0%), 3명인 경우 13명(2.6%)이었다. 맞벌이 가구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구가 58.6%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많이 표집되었으며, 응답자 본인이 취업자인 경우가 417명(83.4%)이었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30대 72.8%, 40대 22.8%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서울특별시 45명(9.0%)에 불과하여, 1차 수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126명(25.2%)였던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1차 수시조사에 비해 2차 수시조사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응답자 비중이 증가한 특징이 있다. 한편, 영유아 자녀의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이용자가 367명(73.4%)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159명(31.8%), 가정보육 123명(24.6%) 순이었다.

표 IV-2-1 KICCE POLL 2차 수시조사 응답자

			단위: %(명), 명		
구분	사례 수	비율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500)	100.0	응답자 연령		
응답자			20대	(22)	4.4
어머니	(250)	50.0	30대	(364)	72.8
아버지	(250)	50.0	40대	(114)	22.8
총 영유아 자녀 수			지역규모		
1명	(362)	72.4	서울특별시	(45)	9.0
2명	(125)	25.0	광역시	(175)	35.0
3명	(13)	2.6	중소도시	(251)	50.2
(영유아 있는 경우) 평균	1.65명		군(읍면지역)	(29)	5.8
맞벌이 유무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주)}		
맞벌이	(293)	58.6	어린이집	(367)	73.4
맞벌이 아님	(207)	41.4	유치원	(159)	31.8
본인 취업 여부			반일제 이상 기관	(1)	0.2
취업 중	(417)	83.4	이용안함(가정보육)	(123)	24.6
미취업 중	(83)	16.6	기타	(1)	0.2

주: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500명보다 많음.

나. 영유아 자녀 돌봄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머니 : 아버지가 7 : 3 정도의 비중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되었다. 그런데 응답 대상자에 따라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에는 어머니 7.3, 아버지 2.7인데 반해,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에는 어머니 6.7, 아버지 3.3으로, 응답 대상자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육아 참여 비중이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사에 있어서 더욱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서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7.4, 아버지가 2.6 정도라고 응답한데 반해 아버지 응답자들은 어머니가 6.6, 아버지가 3.5라고 응답하였다.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가사 분담 비중을 좀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취업자에는 아버지가 더 많이 포함되는 현상에 기인한다.

한편,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6.7, 아버지가 3.3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7.3, 아버지가 2.7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사 분담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 맞벌이 가구는 어머니가 6.8, 아버지가 3.2정도 가사 분담한다고 응답한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7.3, 아버지가 2.7을 분담한다고 응답해 외벌이 가구의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가사에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맞벌이 가구에서조차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 및 가사 분담 비중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표 IV-2-2 ■ 실제적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단위: 비율(명)

구분	자녀 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98	1.66	3.02	1.66	6.99	1.85	3.01	1.85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7.27	1.43	2.73	1.43	7.44	1.71	2.56	1.71	(250)
아버지	6.69	1.82	3.31	1.82	6.55	1.88	3.45	1.88	(250)
t	3.94***		-3.94***		5.50***		-5.50***		

구분	자녀 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취업 여부									
취업	6.84	1.68	3.16	1.68	6.91	1.78	3.09	1.78	(417)
미취업	7.67	1.38	2.33	1.38	7.43	2.11	2.57	2.11	(83)
t	-4.25***		4.25***		-2.38*		2.38*		
맞벌이 유무									
맞벌이	6.74	1.52	3.26	1.52	6.77	1.73	3.23	1.73	(293)
맞벌이 아님	7.32	1.79	2.68	1.79	7.30	1.97	2.70	1.97	(207)
t	-3.90***		3.90***		-3.11**		3.11**		

주: * $p < .05$, ** $p < .01$, *** $p < .001$.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 중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83.0%,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2.4%였다. 그런데 응답자 특성별로 어머니 응답자 중에서는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88.8%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아버지 응답자의 경우에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7.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5.0%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 표 IV-2-3 ■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1)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수
전체	12.4	83.0	4.6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7.2	88.8	4.0	(250)
아버지	17.6	77.2	5.2	(250)
X ² (df)	13.32(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5.0	78.5	6.5	(293)
맞벌이 아님	8.7	89.4	1.9	(207)
X ² (df)	11.10(2)**			

주: ** $p < .01$.

자녀 밥 먹이고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83.0%로 높았고,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수준의 높은 특징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에서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5.0%로 외벌이 가구의 8.7%

에 비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 표 IV-2-4 ■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2)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수
전체	12.4	83.0	4.6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7.2	88.8	4.0	(250)
아버지	17.6	77.2	5.2	(250)
X ² (df)		11.01(2)**		
취업 여부				
취업	13.4	81.5	5.0	(417)
미취업	7.2	90.4	2.4	(83)
X ² (df)		13.08(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5.0	78.5	6.5	(293)
맞벌이 아님	8.7	89.4	1.9	(207)
X ² (df)		4.81(2)		

주: ** $p < .01$.

자녀와 놀아주기, 책읽어주기를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기준 37.4%로 앞서 집안일이나 자녀 밥 먹기와 옷 입기 도와주기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이 응답 비중은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 45.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취업자인 경우에 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표 IV-2-5 ■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3)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수
전체	37.4	58.2	4.4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29.2	66.4	4.4	(250)
아버지	45.6	50.0	4.4	(250)
X ² (df)		14.77(2)**		
취업 여부				
취업	39.6	55.4	5.0	(417)
미취업	26.5	72.3	1.2	(83)
X ² (df)		8.86(2)*		

주: * $p < .05$, ** $p < .01$.

자녀 기관 등·하원을 도와주는 일은 어머니가 69.6%, 아버지가 18.4% 한다고 응답되었는데,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 취업자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서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특기할만한 점은 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의 부모 역할 비중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원을 도와준다는 응답은 서울특별시(24.4%)와 중소도시(21.9%)에서 높았으며, 광역시(12.0%)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IV-2-6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4) 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수
전체	18.4	69.6	12.0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14.0	72.4	13.6	(250)
아버지	22.8	66.8	10.4	(250)
X ² (df)		6.89(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4.4	60.0	15.6	(45)
광역시	12.0	77.7	10.3	(175)
중소도시	21.9	66.9	11.2	(251)
군(읍면지역)	17.2	58.6	24.1	(29)
X ² (df)		14.12(6)*		
취업 여부				
취업	20.9	65.7	13.4	(417)
미취업	6.0	89.2	4.8	(83)
X ² (df)		18.03(2)***		
맞벌이 유무				
맞벌이	25.9	59.4	14.7	(293)
맞벌이 아님	7.7	84.1	8.2	(207)
X ² (df)		36.69(2)***		

주: * $p < .05$, *** $p < .001$.

자녀 물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는 일을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은 13.8%로,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에 23.2%가 아버지가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를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30대의 경우에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0.7%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IV-2-7 자녀 양육 중 역할 담당자: 5)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수
전체	13.8	84.4	1.8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4.4	94.0	1.6	(250)
아버지	23.2	74.8	2.0	(250)
$X^2(df)$		37.59(2)***		
응답자 연령				
20대	22.7	72.7	4.5	(22)
30대	10.7	87.1	2.2	(364)
40대 이상	21.9	78.1	0.0	(114)
$X^2(df)$		13.74(4)**		

주: ** $p < .01$, *** $p < .001$.

자녀 양육 유형별 부모가 담당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를 한다는 응답이 37.4%로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가 18.4%였으며,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이 13.8%였다.

표 IV-2-8 자녀 양육 유형별 역할 담당자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수
집안일(식사준비, 빨래 등)	12.4	83.0	4.6	(500)
자녀 밥먹고, 옷입는 것 도와주기	12.4	83.0	4.6	(500)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37.4	58.2	4.4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18.4	69.6	12.0	(500)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13.8	84.4	1.8	(500)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조부모/친인척이 73.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가 다니는 기관 7.4%, 이웃과 친구 6.4%, 베이비시터/도우미 등이 1.6% 순이었다. 응답자가 취업자인 경우에 조부모/친인척이 도와준다는 응답이 미취업자에 비해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조

부모/친인척 의존도가 더 높아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조부모/친인척이 도와준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다.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없다는 응답이 15.5%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외벌이 가구의 어머니가 독박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 표 IV-2-9 ■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녀 양육 도움받는 사람

단위: %(명)

구 분	조부모/ 친인척	베이비 시터/ 도우미 등	공공 아이 돌보미	이웃, 친구	자녀가 다니는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	없음	수
전체	73.0	1.6	0.6	6.4	7.4	0.6	2.0	8.4	(500)
취업 여부									
취업	75.5	1.9	0.7	6.0	6.7	0.2	2.2	6.7	(417)
미취업	60.2	0.0	0.0	8.4	10.8	2.4	1.2	16.9	(83)
X ² (df)				20.89(7)**					
맞벌이 유무									
맞벌이	80.9	1.7	1.0	4.1	6.1	0.3	2.4	3.4	(293)
맞벌이 아님	61.8	1.4	0.0	9.7	9.2	1.0	1.4	15.5	(207)
X ² (df)				37.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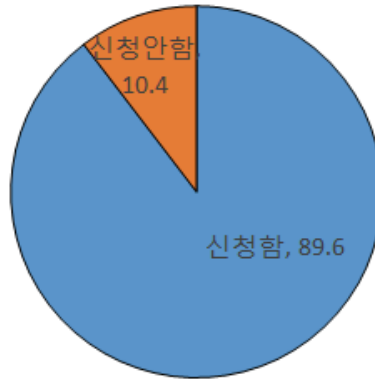
주: ** $p < .01$, *** $p < .001$.

다. 아동수당

수시조사가 실시된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신청했다는 응답이 89.6%,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4%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신청 여부는 응답자 및 가구 특성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이 90%인 가구까지 지원이 되는데, 우연찮게도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신청자 비중이 거의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시조사에서는 가구 소득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 아동수당 신청 여부가 실제 소득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 그림 IV-2-1 ■ 아동수당 신청 여부

단위: %



주 : 응답자 수는 5000명 전체.

아동수당 신청 자격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72.5%로 대부분이었으며, 주민센터 등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이 11.4%, 주변 엄마들이 알려줘서 7.4%, 맘카페 등을 통해 6.5%,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서 1.6%, 기타 0.7% 순이었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 연령이 높아질수록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진 반면, 30대 응답자는 주변 엄마들이 알려줘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20대의 경우에는 맘카페 등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23.8%로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 이는 젊은 엄마들일수록 인터넷이나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표 IV-2-10 ■ 아동수당 신청 자격에 대한 인지 경로

단위: %(명)

구 분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주변 엄마들이 알려줘서	주민센터 등 안내문	어린이집/ 유치원 통해	맘카페 등 통해	기타	수
전체	72.5	7.4	11.4	1.6	6.5	0.7	(448)
응답자 연령							
20대	66.7	4.8	4.8	0.0	23.8	0.0	(21)
30대	70.1	8.5	12.2	2.1	6.4	0.6	(328)
40대 이상	81.8	4.0	10.1	0.0	3.0	1.0	(99)
X ² (df)	19.43(10)*						

주: * $p < .05$.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가 안될 것 같아서 안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 가량이었으며,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경우도 19.2%나 됐다. 이 외에 기타 응답이 17.3% 있었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에 응답자가 안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 비중이 매우 높고, 의외로 30대에서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는 52명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관측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IV-2-11 아동수당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 분	대상자가 안될 것 같아서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절차 어렵고 번거로워서	기타	수
전체	55.8	19.2	7.7	17.3	(52)
응답자 연령					
20대	0.0	0.0	100.0	0.0	(1)
30대	47.2	27.8	5.6	19.4	(36)
40대 이상	80.0	0.0	6.7	13.3	(15)
$X^2(df)$	18.77(6)**				

주: ** $p < .01$.

아동수당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자녀 교육, 교육비에 쓰겠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녀 적금 및 보험료 30.1%, 자녀 생필품 구입 19.9%, 가구 생활비 7.4% 순이었다. 가구 특성별로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 생필품이나 자녀 교육, 교육비에 쓰겠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어머니들은 자녀 적금 및 보험료에 쓰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20대는 자녀 생필품 구입(33.3%)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30대와 40대는 자녀 교육, 교육비(각 33.5%와 45.5%)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표 IV-2-12 아동수당 사용 계획

단위: %(명)

구 분	자녀 생필품 구입	자녀 보육, 교육비	자녀 완구 및 도서	가족 문화 여가비	자녀 의료비	자녀 적금 및 보험료	가구 생활비	기타	수
전체	19.9	35.0	5.4	1.1	0.4	30.1	7.4	0.7	(448)
응답자 구분									
어머니	15.8	32.4	4.5	0.5	0.5	37.4	8.1	0.9	(222)
아버지	23.9	37.6	6.2	1.8	0.4	23.0	6.6	0.4	(226)
X ² (df)				15,29(7)*					
응답자 연령									
20대	33.3	9.5	9.5	0.0	4.8	28.6	9.5	4.8	(21)
30대	20.7	33.5	4.6	1.5	0.3	32.0	7.0	0.3	(328)
40대 이상	14.1	45.5	7.1	0.0	0.0	24.2	8.1	1.0	(99)
X ² (df)				31.50(14)**					

주: * $p < .05$, ** $p < .01$.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4점 기준 2.78점으로 약간 도움이 된다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5%,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2.1%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IV-2-13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도움 예상 정도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약간 도움	매우 도움	4점 평균	수
전체	3.3	27.5	57.1	12.1	2.78	(448)
응답자 구분						
어머니	2.3	33.8	52.7	11.3	2.73	(222)
아버지	4.4	21.2	61.5	12.8	2.83	(226)
X ² (df)/t			9.75(3)*		1.49	

주: * $p < .05$.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고, 현행과 같이 소득수준 하위

90% 유지가 25.4%, 소득 수준 80%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6.0%, 다자녀 가구 할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13.0%, 저소득층 가구 할증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6.0%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아버지들은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44.8%로 어머니 3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들은 현행 수준 유지에 31.6%가 응답하여 아버지와 차이를 보였다.

표 IV-2-14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	소득수준 하위 90% (현행) 유지	소득수준 하위 80% 또는 그 이하로 축소	다자녀 가구 할증	저소득층 가구 할증	기타	수
전체	37.8	25.4	16.0	13.0	6.0	1.8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30.8	31.6	18.8	11.6	5.6	1.6	(250)
아버지	44.8	19.2	13.2	14.4	6.4	2.0	(250)
X ² (df)			17.50(5)**				

주: ** $p < .01$.

라. 자녀와의 놀이

첫 자녀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자녀와의 놀이를 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3시간 24분, 주말에 5시간 29분 가량이었다. 주중에는 주로 0~3시간 놀이한다는 응답이 66.0%로 약 2/3가량을 차지한 반면, 주말에는 4~6시간이 37.8%로 가장 높은 가운데, 0~3시간(32.6%), 7시간 이상(29.6%)에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주중에는 0~3시간 자녀와 놀이한다는 응답이 78.2%로 매우 높은 반면, 주말에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5시간 40분)이 길었다.

표 IV-2-15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 어머니

단위: %(명), 분

구분	주중				주말				수
	0~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평균(분)	0~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평균(분)	
전체	66.0	22.2	11.8	203.56	32.6	37.8	29.6	328.71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72.4	19.2	8.4	179.68	27.6	37.2	35.2	358.32	(250)
아버지	59.6	25.2	15.2	227.44	37.6	38.4	24.0	299.10	(250)
X ² (df)/t		10.03(2)**		-3.14**		9.18(2)*		3.37**	
응답자 연령									
20대	50.0	36.4	13.6	250.91	31.8	36.4	31.8	372.27	(22)
30대	65.9	21.4	12.6	209.45	29.7	38.5	31.9	343.71	(364)
40대 이상	69.3	21.9	8.8	175.61	42.1	36.0	21.9	272.41	(114)
X ² (df)/F		4.30(4)		2.58		7.21(4)		6.29**	
맞벌이 유무									
맞벌이	78.2	16.4	5.5	160.89	30.4	37.9	31.7	340.05	(293)
맞벌이 아님	48.8	30.4	20.8	263.96	35.7	37.7	26.6	312.66	(207)
X ² (df)/t		50.74(2)***		-6.46***		2.17(2)		1.52	

주: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평균 주중 1시간 33분, 주말 4시간 49분이 었다. 아버지의 경우 주중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0~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중 이 92.6%로 매우 높았으며, 주말에도 0~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1.0%였 다. 앞서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과 비교해보면 주중이든 주말이든 어머 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도 길지만, 주중 자녀와의 놀이 시간의 차 이가 주말에 비해서 큰 특징이 있었다. 즉, 아버지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자 녀와 놀이 시간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응답자 특성에 따라 특이한 점은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을 주중 1시간 17분, 주말 4시간 20분이라고 응답한데 반 해,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에는 훨씬 길게 응답했다는 점이다. 즉, 응답자가 아 버지인 경우 본인의 자녀와의 놀이시간을 길게 응답한 반면, 배우자인 어머니는 이를 더 짧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표 IV-2-16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 아버지

단위: %(명), 분

구분	주중				주말				수
	0~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평균(분)	0~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평균(분)	
전체	92.6	6.8	0.6	92.51	41.0	36.2	22.8	288.76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94.0	5.6	0.4	77.30	49.6	32.0	18.4	259.68	(250)
아버지	91.2	8.0	0.8	107.72	32.4	40.4	27.2	317.84	(250)
$\chi^2(df)/t$		1.50(2)		-4.31***		15.70(2)***		-3.37**	

주: ** $p < .01$, *** $p < .001$.

부모 이외의 대리양육자가 자녀와 놀아준다고 응답한 경우는 55명이었다. 이들의 주중 자녀와의 놀이 시간은 0~3시간이 67.3%로 많았다. 다만, 대리양육자가 주중 7시간 이상 자녀와 놀아준다고 응답한 경우도 18.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부모 이외의 대리양육자가 주말동안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43분으로 주중에 비해 짧았으며, 0~3시간 이하로 놀아준다는 응답이 81.8%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주중 대리양육자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주말 놀이시간은 응답자 연령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주말 놀이시간은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지만, 관측치가 작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IV-2-17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 기타

단위: %(명)

구분	주중				주말				수
	0~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평균(분)	0~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평균(분)	
전체	67.3	14.5	18.2	206.73	81.8	12.7	5.5	103.09	(55)
응답자 연령									
20대	0.0	33.3	66.7	460.00	100.0	0.0	0.0	100.00	(3)
30대	68.3	14.6	17.1	208.54	80.5	14.6	4.9	100.98	(41)
40대 이상	81.8	9.1	9.1	130.91	81.8	9.1	9.1	111.82	(11)
$\chi^2(df)/F$		7.73(4)		4.13*		1.20(4)		0.02	
취업 여부									
취업	66.0	14.0	20.0	213.00	86.0	12.0	2.0	78.60	(50)
미취업	80.0	20.0	0.0	144.00	40.0	20.0	40.0	348.00	(5)
$\chi^2(df)/t$		1.25(2)		0.79		13.44(2)**		-2.43	

주: * $p < .05$, ** $p < .01$.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1시간 21분, 주말 1시간 51분으로 짧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에 아버지에 비해서 자녀가 혼자 놀이한다고 응답한 시간이 긴 경향이 있었으며, 응답자가 젊을수록 주중에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 군(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주말에 아이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을 3시간 2분이라고 응답하여, 서울특별시 등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길게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의 경우에 오히려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이 길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다.

■ 표 IV-2-18 ■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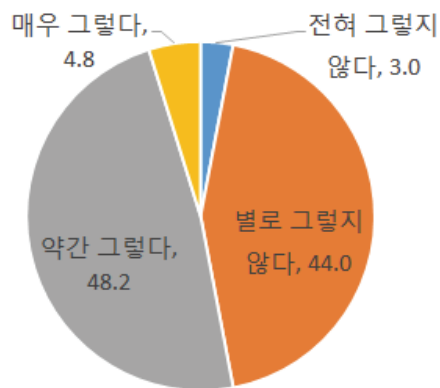
구분	주중				주말				수
	0~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평균(분)	0~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평균(분)	
전체	94.6	5.2	0.2	81.25	88.0	9.4	2.6	111.10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93.2	6.4	0.4	89.38	85.6	11.6	2.8	122.24	(250)
아버지	96.0	4.0	0.0	73.12	90.4	7.2	2.4	99.96	(250)
$\chi^2(df)/t$		2.49(2)		2.57*		2.98(2)		2.37*	
응답자 연령									
20대	81.8	18.2	0.0	115.45	86.4	9.1	4.5	119.55	(22)
30대	95.1	4.7	0.3	82.54	87.4	9.6	3.0	114.62	(364)
40대 이상	95.6	4.4	0.0	70.53	90.4	8.8	.9	98.25	(114)
$\chi^2(df)/F$		8.25(4)		3.96*		2.03(4)		1.1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93.3	6.7	0.0	86.67	86.7	11.1	2.2	104.00	(45)
광역시	94.9	5.1	0.0	76.34	89.7	7.4	2.9	102.63	(175)
중소도시	95.6	4.0	0.4	80.24	89.2	8.4	2.4	110.08	(251)
군(읍면지역)	86.2	13.8	0.0	111.21	69.0	27.6	3.4	182.07	(29)
$\chi^2(df)/F$		6.26(6)		2.12		12.85(6)*		4.93**	
취업 여부									
취업	95.0	4.8	0.2	78.21	88.5	9.6	1.9	106.57	(417)
미취업	92.8	7.2	0.0	96.51	85.5	8.4	6.0	133.86	(83)
$\chi^2(df)/t$		1.02(2)		-2.15*		4.66(2)		-2.16*	

주: * $p < .05$, ** $p < .01$.

현재 자녀가 충분히 놀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5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자녀의 놀이 충분성에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48.2%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4.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IV-2-2 자녀의 놀이 충분성

단위: %



주 : 응답자 수는 500명이며, 4점 평균은 2.55임.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놀이대상(친구, 부모 등)의 부재가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놀이방법(놀잇감 등) 부족이 25.1%로 다음을 이었다. 이 외에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5.3%, 놀이 시간 부족(학원 이용 등)이 13.2%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놀이대상의 부재(48.5%) > 놀이방법 부족(24.2%), 놀이시간 부족(16.7%) > 놀이공간 부족(9.8%) 순이었다.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놀이대상의 부재(37.9%)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긴 했으나, 그 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놀이 공간의 부족(22.3%)을 놀이시간 부족(학원 이용 등)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2-19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놀이시간 부족(학원 이용 등)	놀이공간 부족	놀이대상 (친구, 부모 등) 부재	놀이방법 (놀잇감 등) 부족	기타	수
전체	13.2	15.3	43.8	25.1	2.6	(235)
맞벌이 유무						
맞벌이	16.7	9.8	48.5	24.2	0.8	(132)
맞벌이 아님	8.7	22.3	37.9	26.2	4.9	(103)
X ² (df)			14.02(4)**			

주: ** $p < .01$.

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74.5%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10.9%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응답자가 20대인 경우에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관측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서울특별시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안전에 대해 4점 만점에 2.68이었으나, 군(읍면지역)은 3.07점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 표 IV-2-20 ■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안전 인식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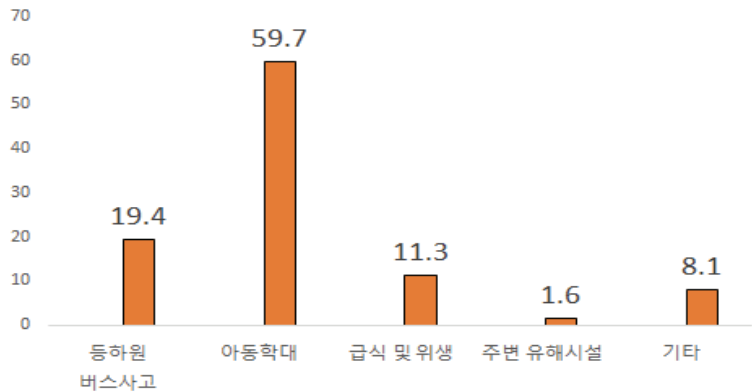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수
전체	0.2	14.4	74.5	10.9	2.96	(423)
응답자 연령						
20대	0.0	25.0	62.5	12.5	2.88	(16)
30대	0.3	16.2	74.2	9.3	2.92	(302)
40대 이상	0.0	7.6	77.1	15.2	3.08	(105)
$X^2(df)/F$			8.70(6)		3.7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0	32.4	67.6	0.0	2.68	(37)
광역시	0.7	14.3	75.5	9.5	2.94	(147)
중소도시	0.0	10.8	77.4	11.8	3.01	(212)
군(읍면지역)	0.0	18.5	55.6	25.9	3.07	(27)
$X^2(df)/F$			24.25(9)**		5.16**	

주: * $p < .05$, ** $p < .01$.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 59.7%, 등·하원 버스 사고 19.4%, 급식 및 위생 11.3%, 기타 8.1%, 주변 유해시설 1.6% 순이었다.

■ 그림 IV-2-3 ■ 자녀의 놀이 충분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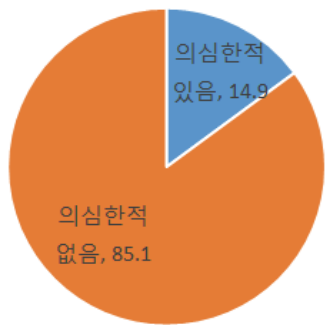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수는 62명임.

한편,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관 이용자 중 14.9%가 의심해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영유아 부모가 기관의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V-2-4 ■ 기관에서의 자녀 아동학대 의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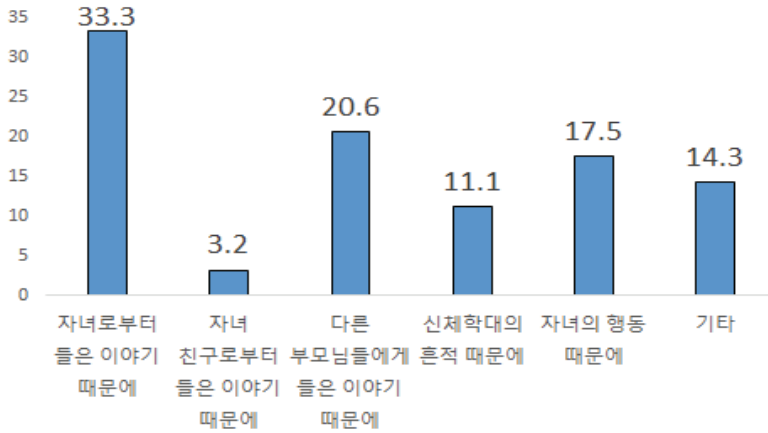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수는 423명 전체

자녀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부모님들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20.6%, 신체학대의 흔적 때문이라는 응답도 11.1%에 달했다.

■ 그림 IV-2-5 ■ 자녀 학대 의심에 대한 이유

단위: %



주 : 응답자 수는 63명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5.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9%로, 훈육을 위한 체벌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응답자에 따라서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다 많이 지지(31.3%)했다.

■ 표 IV-2-21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 여부

단위: %(명)

구 분	네	아니오	수
전체	25.1	74.9	(423)
응답자 구분			
어머니	19.4	80.6	(222)
아버지	31.3	68.7	(201)
$X^2(df)$	8.05(1)**		

주: ** $p < .01$.

3 소결

KICCE 1차 수시 여론조사 응답자는 총 500명으로, 어머니 250명과 아버지 250명이다. 본 조사에서는 육아의 행복 정도, 다자녀 가구, 미세먼지,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해 질문하였다. 1차 수시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의 행복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6.91점으로,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 행복도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육아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육아 행복감이 0~3점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를 도와줄 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육아 행복감이 7~10점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커서라는 응답이 87.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둘째,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게이트 앞에서 두 명의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다자녀 가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을 질문 한 결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자녀 가구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동 도우미, 다자녀 우선 주차 등)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지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응답 결과에는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 대상자들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미세먼지('나쁨' 이상)로 인해 결석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0%에 그쳐,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나쁨' 이상) 자녀를 기관에 보낼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등원시키지 않고 싶지만 돌볼 방법이 없어 등원시킬 계획이라는 응답이 51.3%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맞벌이 가구들은 등원시키고 싶지 않지만 돌볼 방법이 없어서 등원시킬 계획이라는 응답이 68.5%로 외벌이 가구(3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응답을 보여, 영유아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로부터의 보호 대책이 시

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7.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2.4%)에 비해 약간 높았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일반 영어학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지만, 영어를 빨리 배우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즉, 조기 언어 습득에 대한 기대)는 응답도 43.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즉, 유치원 방과후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조기 영어 교육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2차 수시 여론조사 응답자는 총 500명으로, 어머니 250명과 아버지 250명이다. 본 조사에서는 영유아 자녀 돌봄, 돌봄 공백, 아동수당, 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에 대해 질문하였다. 2차 수시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머니 : 아버지가 7 : 3 정도의 비중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되었다. 이때, 맞벌이 가구에서조차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 및 가사 분담 비중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일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체로 어머니였으나,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를 한다는 응답이 37.4%로 높았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많이 담당하는 일은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가 18.4%였으며,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이 13.8%였다.

둘째,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조부모/친인척이 73.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가 다니는 기관 7.4%, 이웃과 친구 6.4%, 베이비시터/도우미 등이 1.6% 순이었다. 응답자가 취업자인 경우에 조부모/친인척이 도와준다는 응답이 미취업자에 비해 높았다. 한편,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외벌이 가구의 어머니가 독박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셋째, 수시조사가 실시된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신

청했다는 응답이 89.6%,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4%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신청 자격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72.5%로 대부분이었으며, 주민센터 등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이 11.4%, 주변 엄마들이 알려줘서 7.4%, 맘카페 등을 통해 6.5%,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서 1.6%, 기타 0.7% 순이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 가량이었으며,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경우도 19.2%나 됐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자녀 교육, 교육비에 쓰겠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녀 적금 및 보험료 30.1%, 자녀 생필품 구입 19.9%, 가구 생활비 7.4% 순이었다. 또한,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완화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4점 기준 2.78점으로 약간 도움이 된다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고, 현행과 같이 소득수준 하위 90% 유지가 25.4%였다.

넷째, 첫 자녀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를 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3시간 24분, 주말에 5시간 29분 가량이었고,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평균 주중 1시간 33분, 주말 4시간 49분이었다. 이때, 아버지의 경우, 주중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0~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아버지가 주중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짧음을 방증하고 있었다. 부모 이외의 대리 양육자가 자녀와 놀아준다고 응답한 경우는 55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주중 자녀와의 놀이시간은 0~3시간이 67.3%로 많았다.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1시간 21분, 주말 1시간 51분으로 아이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혼자 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현재 자녀가 충분히 놀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5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놀이 충분성에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48.2%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4.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놀이대상(친구, 부모 등)의 부재가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놀이방법(놀이감 등) 부족이 25.1%로 다음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

하는 비중은 85.4%로, 지역 규모에 따라서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59.7%)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관 이용자(423명) 중 14.9%가 의심해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5.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9%로, 훈육을 위한 체벌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V

정책제언

1. 육아정책의 방향
2. 정책 과제



V. 정책 제언

1 육아정책의 방향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KICCE 정기 여론조사, 육아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KICCE 1차, 2차 수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아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가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 육아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양육 효능감(5점 척도)은 평균 3.5점, 양육 스트레스(5점 척도)는 평균 3.1점으로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 또는 주거지 주변의 기관의 필요도(7점 척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편리한 보행 환경(4.1점)과 보차분리(4점), 만족도(7점 척도)가 가장 낮은 커뮤니티 시설(2.5점), 커뮤니티 시설 내 프로그램(2.5점)으로 나타나 지역별 요구를 파악하여 필수 시설을 확보하고, 육아가 편안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를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보육료·유아학비 전 계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매우+약간) 50.4%, 바람직하지 않다(별로+전혀) 24.8%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소득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매우+약간) 47.2%, 바람직하지 않다(별로+전혀) 28.1%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역시 소득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영유아에 대한 국

가 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다가 46.2%로 나타났으며, 세금 부담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 선행이 높게 나타나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되, 비용 지원의 실효성을 검토한 차별적 지원,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질 제고를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로 둔다. 서비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1순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인성 지도가,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별 기대 차이를 보였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할 점으로는 모두 집과의 거리(유치원 23.6%, 어린이집 26.2%)로 나타나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정책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요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은 공공성 제고로 나타나 국공립 확충 정책과 더불어 사립/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시간 지원 정책의 인지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0.4%)과유연근무제(33.9%)에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유연근무제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육아정책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육아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전반적인 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적 요구 수준을 고려한 현 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국가 차원의 육아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정 지원 설계의 우선순위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높았다. 또한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1순위)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 가장 높았고, 정부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기 바라는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요구 수준을 고려한 현 정책의 기초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가. 행복육아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 과제

1) 추가 출산의 영향 요인의 다면평가를 통한 육아정책 재설계

본 연구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별 중요도와 정책효과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었으며, 정책효과가 높다고 인식한 정책은 자녀 돌봄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 임신·출산, 돌봄까지 조금 더 포괄적인 영역으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인 경우, 그 이유로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36%), 다음으로 양육비 부담(30.3%)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서 심각(매우+다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1.1%로 나타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혼과 만혼의 증가, 결혼 이후의 양육비는 추가 출산의 중요한 변인이므로 전생애적인 측면에서의 육아정책이 종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2)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미세먼지(‘나쁨’ 이상)로 인해 결석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0%에 그쳐,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나쁨’ 이상) 자녀를 기관에 보낼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등원시키지 않고 싶지만 돌봄 방법이 없어 등원시킬 계획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맞벌이 가구들은 등원시키고 싶지 않지만 돌봄 방법이 없어서 등원시킬 계획이라는 응답이 외벌이 가구(3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응답을 보여, 미세먼지로부터의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미세먼지 관련 문제는 전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이나 특히 영유아의 미세먼지 노출은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건강 문제, 이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해결책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영유아 부모가 느끼는 육아의 행복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6.91점으로, 응답자가 느끼는 육아 행복도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육아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한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육아 행복감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를 도와줄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육아 행복감이 높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7.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육아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본 조사에서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머니 : 아버지가 7 : 3 정도의 비중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되었다. 이때, 맞벌이 가구에서조차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 및 가사 분담 비중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일을 기준으로 담당하는 사람도 대체로 어머니였으나,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많이 담당하는 일은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으로 여전히 육아의 주체는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의 육아지원 인력의 부재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진전된 변화가 요구된다.

나. 육아정책 유형별 추진 과제

1) 놀이를 통한 영유아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첫 자녀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를 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3시간 24분, 주말에 5시간 29분 가량이었고,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는 시간은 평균 주중 1시간 33분, 주말 4시간 49분이었다. 한편 자녀가 충분히 놀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5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놀이 대상(친구, 부모 등)의 부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놀이 방법(놀이감 등) 부족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시기에 충분히 휴식하고, 놀 수 있는 인적, 물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강화

조사결과,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5.4%로, 지역 규모에 따라서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관 이용자(423명) 중 14.9%가 의심해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5.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9%로, 훈육을 위한 체벌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아동수당 수급대상 및 효과성 검토

본 연구의 수시조사가 실시된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신청했다는 응답이 89.6%였으며,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완화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4점 기준 2.78점으로 약간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아동수당 도입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매우+다소) 19.6%, 아니다(다소+전혀) 46.1%로 나타났으며, 아동수당의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해서는 영유아 전체 가구로 확대가 가장 높았다. 정부의 재정 현황과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아동수당의 수급 범위와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본 조사결과,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조부모/친인척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응답자가 취업자인 경우에 조부모/친인척이 도와준다는 응답이 미취업자에 비해 높았다. 한편,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외벌이 가구의 독박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독박 육아로 인한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시조사에서 다자녀 가구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동 도우미, 다자녀 우선 주차 등)에 대해서는 80%이상의 응답자가 지지하였으며, 정기조사 결과에서도 다만, 79.1%가 지지하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제정보센터(2010. 11.). 2011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 경제정보센터(2011. 7.).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 경찰청(2015. 11.). 2015년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 곽재현·홍지숙(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옴로(YOLO) 현상 분석. 관광연구저널, 32(2), 21-34.
- 교육과학기술부(2009. 3.). 교원능력평가 활용과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사교육비 및 사교육 의식 파악을 위한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 교육부 보도자료(2017. 12. 17.).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7-33.
- 김중성(2017). 스포츠관광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3), 99-109.
- 김주희(2010). 육아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17). 지역사회 육아 친화 환경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탐색.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혜(2009).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아의 상호작용의 질 및 순응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7). 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안정행정부(2013. 2.). 국민 여론조사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 보고서.
- 여성가족부(2018. 1.).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7.).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 통일부(2011. 12.). 남북교류협력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요약).

한국교육개발원(20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7).

한윤옥(2012). 양육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Institute of Marriage and Family Canada(IMFC)(2013). Canadian daycare desires.

Learning Heroes(2017). Parents 2017: Unleashing their power & potential.

LEAD Commission, Hart Research Associates(2012). Parents' and teachers' attitudes and opinions on technology in educ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NACCRRA)(2006). Parents' perceptions of child care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ies(NACCRRA)(2010). The economy's impact on parent's choices and perceptions about child care.

National Public Radio(NRR), 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2016). Child Care and Health America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PPIC)(2016). Californians & Education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Abstract

KICCE Poll for Establishing the Culture of Happy Child Care(II)

Eun-Young Choi·Hyomi Choi·Hyemin Lee

It is necessary, through continuous investigation of public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the current Korean child care policy,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n child care that can not be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o develop policies to improve them. To this end, the Korea Institute for Child Care Policy (KICCE) will conduct a five-year study from 2017 on the 'KICCE POLL for the 'Establishing the Happy Child Care Culture' and this study is the second year study. In the second year, basic data were constructed and analyzed through methods such as analyzing literature and press articles on Child Care polices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ublic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expert councils. In addition, the KICCE POLL homepage was reorganized and operated to share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and those of the second year.

Regular survey was conducted on 3,000 sampled, an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opinions on birth rates and low birth rates, child care status of parents of infants, awareness of child care policy, and opinions on child care policy. Occasional surveys were conducted on 500 parents of infants, focusing on parenting happiness, support policies for multi-child family, the need for extra-curricular English activities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he amount of time for

mother and father to spend in child care and housework, the amount of time for parents to play with child, and safety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he direction of the child care polic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establish mid-term and long-term plans for the culture of happy child care. Second,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policy differentiation of the government's cost support. Third, the priority of service support is to raise publicity and quality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Fourth,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olicy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Fifth, the keynote and direction of the current policy need to be reviewed considering the level of policy demand.

The tasks of the child care polic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desirable to redesign the child care policy through multi-faceted evalu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ditional birth. Second, we need to establish an environment where infants and children live safely. Third, it is needed to create a happy parenting culture. Fourth,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he spread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re to strengthen. Fifth, we should support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Six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Seventh, it is recommended to examine the recipients of child allowance. Eighth, there is a need to expand support for part-time child care support service.

Keyword: poll, child care, culture



부록

- 부록 1. 정기조사 설문지
- 부록 2. 1차 수시조사 설문지
- 부록 3. 2차 수시조사 설문지
- 부록 4. 1차 수시조사 결과(인포그래픽)
- 부록 5. 2차 수시조사 결과(인포그래픽)

부록 1. 정기조사 설문지

2018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Ⅱ) 설문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육아정책, 환경 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조사진행 관련: | 전장호 차장 | 02-3406-3887 | |
| | 마크로밀엠브레인 이새롬 과장 | 02-3440-4008 | |
| ☐ 조사내용 관련: | 최은영 연구위원 | 02-398-7782 | eyny@kicce.re.kr |
| |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부연구위원 | 02-398-7771 | hmchoi@kicce.re.kr |
| | 이혜민 연구원 | 02-398-7727 | hmlee@kicce.re.kr |

육 아 정 책 연 구 소

1. 기초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 ②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③ 중소도시

☐ ④ 군(읍·면 지역)

(특별·광역·특별자치시 이외 시 소재)

3.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4. 귀하의 혼인여부에 대하여 응답해주시시오

☐ ① 미혼

☐ ② 배우자 있음(기혼, 사실혼)

☐ ③ 배우자 없음(이혼, 별거, 사망)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5-1로)

☐ ② 없음(☞ II로)

5-1.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부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녀수 ()명			
구분	연령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자녀 1	만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자녀 2	만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자녀 3	만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자녀 4 만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자녀 5 만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기관(미취학 아동이 평일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후 시간까지 머물면서 교육과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학원,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로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이 이러한 학원의 일종임) 등)

5-2. (미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	이용기관
		<보 기>
자녀 1 만 ()세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 ☐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자녀 2 만 ()세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 ⑥ 직장어린이집 ☐ ⑦ 협동어린이집 ☐ ⑧ 국공립유치원 ☐ ⑨ 사립유치원 ☐ ⑩ 반일제 이상 학원
자녀 3 만 ()세		☐ ⑪ 기타()

II. 저출산 대응 정책

1. 귀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화면 제시)

구분	중요도					정책효과				
	① 매우 중요함	② 중요 함	③ 보통	④ 중요 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효과 있음	③ 보통	④ 효과 없음	⑤ 전혀 효과 없음
0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02) 임신·출산 지원 정책										
0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0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 참고

구분	내용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일자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0.2→3.2만명)
		▶ 청년인턴채용 확대(1→5만명)
		▶ 청년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신설(500팀 내외 지원)
		▶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 신설(160억원 조성)
	주거	▶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공급 지원 확대(0.5→1만호)
▶ 신혼가구(혼인 후 5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3.4만명 추가지원)		
▶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 지원 확대(1만호 추가지원)		
▶ 신혼부부청년 기존 주택매입임대 공급 확대(2천호 추가지원)		
기타	▶ 서민·중산층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이하) 등에 대한 혼인세액 공제 도입 추진	
임신· 출산 지원 정책	임신·출산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20% 일괄 인하(‘17.1)
		▶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7.10)
		▶ 난임 휴가제 도입 추진(‘17.7월 시행)
		▶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확대
	가족 지원	▶ 분만취약지 2개소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 추가 선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자녀 돌봄 지원 정책	맞춤형 보육지원	▶ 다문화 유치원·예비학교·중점학교 확대 운영 등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 국공립 등 공공 어린이집 확충 및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실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20개소 추가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인상
		▶ 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및 내실화(4천명 추가 지원)
		▶ 아이돌봄 이용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근로문화 개선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시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6월)
		▶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3월)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성화	▶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확산
		▶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135→150만원)
		▶ 중소기업 비정규직·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 20→30만원),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금 2배 인상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 인상(월 150→2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2. 22). 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

2. 귀하는 그동안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③ 보통 ④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항 3-1, 3-2) ② 없다(☞ 문항 3-4)
③ 생각 중(☞ 문항 3-4) ④ 해당 없음

3-1.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

총 ()명

3-2.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아(☞ 문항 3-3) ② 여아(☞ 문항 3-3)
③ 선호 없음

3-3. (선호하는 자녀성별이 있는 경우)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② 교육비 부담 때문에
③ 직장생활로 바빠서 ④ 건강이 안 좋아서
⑤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⑥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
⑦ 개인시간(자기계발, 여가 등)이 ⑧ 기타()
필요해서

4. 귀하는 결혼 당시 몇 명의 자녀를 계획하셨습니까?

()명

5.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

6. 귀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② 다소 심각한 문제이다
 ③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④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⑤ 모르겠다

III. 육아 현황 -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모만

III-1. 양육 효능감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①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②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③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④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1	2	3	4	5
⑥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	2	3	4	5
⑦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1	2	3	4	5
⑧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⑨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III-2. 양육스트레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① 나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 물을 계속 치워야 한다.	1	2	3	4	5
②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칭얼대며 불평한다.	1	2	3	4	5
③ 아이 밥 먹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거나 불평하는 등)	1	2	3	4	5
④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5
⑤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⑥ 아이의 스케줄(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때문에 나의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있다.	1	2	3	4	5
⑦ 아이는 나에게 함께 놀아주거나 재밌게 해달라고 조른다.	1	2	3	4	5
⑧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5
⑨ 집안 일을 하는데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적거린다.	1	2	3	4	5
⑩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2	3	4	5
⑪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많다.	1	2	3	4	5
⑫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입혀야 한다.	1	2	3	4	5
⑬ 아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1	2	3	4	5
⑭ 공공장소(식품가게, 쇼핑센터, 음식점)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1	2	3	4	5
⑮ 외출할 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기 위해 아이를 준비시키려면 어렵다.	1	2	3	4	5
⑯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기고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⑰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싸우거나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거나 친구가 없는 등)	1	2	3	4	5
⑱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한다.	1	2	3	4	5

III-3. 사회적 관계망

질문	가족, 친척	친구	이웃
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②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③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④ 육아에 있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⑤ 육아와 관련한 통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⑥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임(오프라인)은 몇 개입니까?	_____개		
⑦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온라인)는 몇 개입니까?	_____개		
⑧ 자녀와 함께 하시는 교육,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_____개		

III-4. 육아 인프라

1. 현재 집 또는 거주지 주변에 아래의 기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충분성	이용가능 기관 수
1) 어린이집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2) 유치원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3) 놀이터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4) 아동도서관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5) 미술관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6) 박물관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7) 문화센터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2. 현재 집 또는 거주지 주변의 육아환경 필요성과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질문	필요성	만족도
		낮 다 보 통 높 다	낮 다 보 통 높 다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 인근의 육아환경	① 편리한 보행환경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② 보차분리(보행안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③ 자연환경(식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④ 어린이 놀이시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⑤ 주차 여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⑥ 상가의 규모와 시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⑦ 커뮤니티 시설(센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⑧ 커뮤니티 시설(센터) 내 프로그램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⑩ 전반적인 단지 및 주택 인근의 육아환경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주택의 입지에 따른 육아환경	① 조부모댁과의 거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② 병원과의 거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③ 부모의 직장과의 거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④ 대중교통의 접근성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⑤ 공원과의 거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⑥ 대형마트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의 거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⑦ 문화센터와의 거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⑧ 어린이 도서관과의 거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⑨ 영유아 플라자와의 거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⑩ 유흥업소 등 기피시설과의 분리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⑪ 전반적인 주택 입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IV. 육아정책 인지 및 의견

IV-1. 비용지원 정책

1.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비용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정부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 ① 잘 안다 ☐ ② 대략 안다 ☐ ③ 모른다
2)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① 잘 안다 ☐ ② 대략 안다 ☐ ③ 모른다
3)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 ① 잘 안다 ☐ ② 대략 안다 ☐ ③ 모른다
4)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이용 시 지원)	☐ ① 잘 안다 ☐ ② 대략 안다 ☐ ③ 모른다
5) 시간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 지원)	☐ ① 잘 안다 ☐ ② 대략 안다 ☐ ③ 모른다
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지원)	☐ ① 잘 안다 ☐ ② 대략 안다 ☐ ③ 모른다
7) 아동수당 지급(2018년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	☐ ① 잘 안다 ☐ ② 대략 안다 ☐ ③ 모른다

2. 정부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만5세 누리과정,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로 0-5세 연령별로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매우 바람직	바람직	보통	바람직하 지 않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 보육료·유아학비 전 계층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①	②	③	④	⑤

2-1. 전 계층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② 세금 부담 가중 우려
③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히
④ 재정 지원 불안정
⑤ 기타()

2-2.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② 세금 부담 가중 우려
③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④ 재정 지원 불안정
⑤ 기타()

3. 현재 정부는 **0-5세**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는 영유아(**0-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생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3-1.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 ☐ ②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 ☐ ③ 세금을 늘리기 전에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 ☐ ④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 ☐ ⑤ 다른 증세 방안(기업 법인세 증액 등)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 ☐ ⑥ 기타()

2.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낸 경험이 있거나 향후에 보내신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1순위 ()번	1순위 ()번
2순위 ()번	2순위 ()번

- ① 운영 시간 ② 학부모 비용 ③ 집과의 거리
 ④ 국공립 등 운영주체 ⑤ 주변의 평판 ⑥ 차량운행 여부
 ⑦ 형제 재원 여부 ⑧ 원장 및 교사 ⑨ 프로그램(특별/특성화/방과후 활동 포함)
 ⑩ 기타() ⑪ 모르겠음

3. 귀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기관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어린이집

-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4.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사항을 각 기관별로 2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어린이집
(,)	(,)

- ① 학력이 높은 교사 ② 경력이 많은 교사
 ③ 교육·보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 ④ 인성이 좋은 교사
 ⑤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⑥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⑦ 기타()

5. 귀하는 정부의 다음과 같은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중요도					기대하는 정책효과				
	① 매우 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효과 있음	③ 보통	④ 효과 없음	⑤ 전혀 효과 없음
1)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2)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5)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6) 시간제 보육 지원기준 개선										
7)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8) 아이돌보미 대기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										

※ 참고

부처/정책과제		내용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단계적으로 신·증설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유치원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추진
	공영형 사립유치원 ¹⁾ 도입	▶ ‘18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개발,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후, 단계적 확대
보건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 매년 확충 추이 점검과 함께 출산 동향,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따른 유아 수요 등 종합적 환경 고려를 통해 매년 목표 설정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확대	▶ 사업장 사전 신고 방식으로 전환 등 설치의무 이행 수단 개편 ▶ 위탁보육을 예외적 허용으로 최소화하여 어린이집 직접적인 설치 확대 ▶ 사업장 내 보육수요를 고려한 최소 설치기준 마련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	▶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회계투명성 확보, 수요자 중심성 강화 등 관리 강화 ▶ 역량 있는 보육교사 확보 등을 통해 우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지원기준 인상
	시간제 보육 지원기준 개선	▶ 맞벌이형-기본형으로 이원화된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부모의 이용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여성 가족부	「공동육아 나눔터」 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기능 강화	▶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 ▶ 지자체는 돌봄공간 확보, 기업은 공간 리모델링 지원, 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민간 거버넌스 협력모델 구축 ▶ 「방과후아카데미」확대 및 운영시간, 규모, 형태 등 다양화 모델 시범운영 추진

아이돌보미 대기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집중시간대를 설정하고, 해당 시간대에 아이돌보미 우선투입으로 대기수요 해소 ▶ 보육시설, 학교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 파견 및 1:다(多) 서비스 제공 ▶ 지역별 맞춤형,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

주: 1) 공영형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출처: 1) 교육부 보도자료(2017. 12. 27.).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2) 보건복지부(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3) 여성가족부(2018. 1.).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IV-3. 시간지원 정책

1.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정도, 향후 이용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1-1. 인지여부		1-2. 도움 정도						1-3. 향후 이용 의향 (※ 해당 있을 경우만 응답)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 없음	이용 희망	희망 하지 않음	해당 없음
01) 출산전후 휴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①	②	③
02) 육아휴직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①	②	③
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①	②	③
04) 유연근무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①	②	③
05) 직장어린이집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①	②	③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V. 육아정책 현안

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 ① 국가 안보(전쟁, 북핵 문제 등) ☐ ②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 ③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등) ☐ ④ 인재(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 ⑤ 경제적 위험(기업 파산, 실업 등) ☐ ⑥ 자원(에너지 고갈)
☐ ⑦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 ⑧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 ⑨ 범죄 발생(괴괴, 아동학대, 살인, 성폭력 등) ☐ ⑩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
☐ ⑪ 기타

※ 박스 안에 서술된 다음의 상황들을 상상하며, 응답해주시요.

출근 시간 지하철 환승 게이트 앞에 한 살 아이를 아기 띠에 메고 세 살 아이 손을 잡은 엄마가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2. 아이 엄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 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 ② 출퇴근 시간에는 안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③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편할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 ④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좀 짜증스럽다
☐ ⑤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남들이 뭘 하든 관심이 없다)
☐ ⑥ 기타 ()

2-1.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동 도우미, 다자녀 우선주차 등)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②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③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④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3.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하려던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향후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하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한다.
☐ ② 영어수업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 ③ 잘 모르겠다

VI. 육아정책 방향

1. 귀하는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음 중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부모의 일·가정 양립 ☐ ②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 ③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 ④ 아이의 행복
☐ ⑤ 기타()

※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귀하는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설계에 있어, 다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 ②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3. 귀하께서 현재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가지를 고르시오)

- ☐ ①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 ②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
☐ ③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 ④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 ⑤ 시간연장형(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 ⑥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 ⑧ 육아정보상담 제공 ☐ ⑨ 유연근무제 확대(시차출근제, 단시간근로 등)
☐ ⑩ 기타() ☐ ⑪ 잘 모르겠음

※보육료(만 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 중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 큰 아동은 종일반* 보육료, 그 외의 아동은 맞춤형 보육료 지원

※보육료(만 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를 대상으로 월 220천원의 비용 지원

※유아학비: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를 대상으로 월 220천원의 비용 지원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100~200천원의 비용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하는 보육

※시간제 보육: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

4. 귀하는 정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문항 4-1)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문항 4-1)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⑤ 모르겠다

4-1. 정부가 출산·육아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항목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交通安全 등)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⑨ 기타()
 ⑩ 없음

5. 귀하는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⑤ 모르겠다

6. 귀하는 국가가 세금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별로 찬성하지 않음 ④ 전혀 찬성하지 않음
 ⑤ 모르겠다

7. 귀하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출산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만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금액은 월 10만원임)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럴 것이다 ☐ ③ 보통
☐ ④ 그렇지 않을 것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7-1. 아동수당의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①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 ☐ ② 소득수준 하위 90%(현행) 유지
☐ ③ 소득수준 하위 80% 또는 그 이하로 축소 ☐ ④ 다자녀 가구 할증
☐ ⑤ 저소득층 가구 할증 ☐ ⑥ 기타()

VII. 개인 배경

1. 본인(및 배우자)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퇴, 수료는 졸업이 아님)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⑧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본인	배우자

2. 본인(및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④ 휴직 중
⑤ 무직(주부 포함) ⑥ 무응답, 모름

본인	배우자

3.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무직(무직, 군인, 학생, 주부 등) ⑧ 무응답, 모름

본인	배우자

4.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종사상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 ⑩ 군인 | ⑪ 기타 |

본인	배우자

5. 본인(및 배우자)의 월평균 총가구소득(세전 근로소득, 이자, 임대수입 등의 합)은 얼마나 됩니까?

본인	배우자
_____만원	_____만원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2. 수시조사(1) 설문지

2018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 설문조사(Ⅰ)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행복한 영유아 육아정책을 위한 귀하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조사진행 관련: | 전장호 차장 | 02-3406-3887 | |
| | 마크로밀엠브레인 이새롬 과장 | 02-3440-4008 | |
| ☐ 조사내용 관련: | 최은영 연구위원 | 02-398-7782 | eyny@kicce.re.kr |
| |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부연구위원 | 02-398-7771 | hmchoi@kicce.re.kr |
| | 이혜민 연구원 | 02-398-7727 | hmlee@kicce.re.kr |

육 아 정 책 연 구 소

I. 개인 배경

1. 귀하는 영유아 자녀(0세-6세 미취학 영유아)가 1명 이상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설문종료)

2. 귀하의 영유아 자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 ② 중소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시 소재)

☐ ③ 읍·면 지역

4. 귀하는 현재 취업중이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휴직중인 경우는 취업 중임. 시간제 근무자 포함(최근 3개월 이상)

5. 귀하는 가정은 맞벌이 가정입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6.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최대 3명까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 ③ 반일제 이상 학원

☐ ④ 이용안함(가정보육)

☐ ⑤ 기타

※ 반일제 기관: 미취학 아동이 평일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후 시간까지 머물면서 교육과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학원.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로,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이 이러한 학원의 일종임.

II. 육아/육아 문화

1. 현재 귀하는 육아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0부터 10까지 중 지금 현재 귀하가 느끼는 정도를 적어주십시오(10: 가장 행복함, 0: 전혀 행복하지 않음.

()

1-1. (0~3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아이를 훈육하기 힘들어서 ☐ ② 육아를 도와줄 인력이 없어서
☐ ③ 휴식시간이 부족해서 ☐ ④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2. (7~10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커서
- ☐ ② 육아를 도와줄 인력이 있어서
- ☐ ③ 육아휴직 등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 ☐ ④ 정부의 비용 지원(양육수당, 보육교육비 등)을 받고 있어서
- ☐ ⑤ 기타(적어주세요:)

※ 박스 안에 서술된 다음의 상황들을 상상하며, 응답해주십시오.

출근 시간 지하철 환승 게이트 앞에 한 살 아이를 아기 띠에 메고 세 살 아이 손을 잡은 엄마가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2. 아이 엄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 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 ☐ ② 출퇴근 시간에는 안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 ③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편할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 ☐ ④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좀 짜증스럽다
- ☐ ⑤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남들이 뭘 하든 관심이 없다)
- ☐ ⑥ 기타 ()

2-1.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동 도우미, 다자녀 우선 주차 등)에 대해 귀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 ②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 ③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 ④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III. 영유아 생활환경: 미세먼지 관련 정책

1.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결석할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본 정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1-1.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만) 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자녀를 기관에 등원시키지 않으실 계획이십니까?

- ☐ ① 그럴 계획이다(=등원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 ②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녀를 돌볼 방법이 없어 등원시킬 계획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미세먼지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므로 등원시킬 계획이다

2. 현재 수준의 상황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귀하께서 가장 원하는 방안을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영유아 대상 미세먼지용 마스크 보급
☐ ② 공공 실내놀이터 확충
☐ ③ 실외활동 대체 활동 마련
☐ ④ (영유아 기관 포함) 공공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⑤ 미세먼지 관련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
☐ ⑥ 미세먼지 수치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보 투명화
☐ ⑦ 기타()

IV. 유아 영어교육

1. 귀하는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영어나 어린이집에서의 영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1-1. (필요하다고 한 경우만) 귀하는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영어나 어린이집에서의 영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영어를 빨리 배우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 ② 일반 영어학원에 보내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 ③ 다른 아이들이 하니깐 뒤쳐질까봐
☐ ④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방침이어서
☐ ⑤ 기타()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3. 수시조사(2) 설문지

2018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 설문조사(II)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행복한 영유아 육아정책을 위한 귀하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조사진행 관련: | 전장호 차장 | 02-3406-3887 | |
| | 마크로밀엠브레인 이새롬 과장 | 02-3440-4008 | |
| ☐ 조사내용 관련: | 최은영 연구위원 | 02-398-7782 | eyny@kicce.re.kr |
| | 육아정책연구소 이혜민 연구원 | 02-398-7727 | hmlee@kicce.re.kr |

육 아 정 책 연 구 소

I. 개인 배경

1. 귀하는 영유아 자녀(0세-6세 미취학 영유아)가 1명 이상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설문종료)

2. 귀하의 영유아 자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 ② 중소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시 소재)

☐ ③ 읍·면 지역

4. 귀하는 현재 취업중이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휴직중인 경우는 취업 중임. 시간제 근무자 포함(최근 3개월 이상)

5. 귀하는 가정은 맞벌이 가정입니까?

☐ ① 그렇다

☐ 아니다

6.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최대 3명까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 ③ 반일제이상 학원

☐ ④ 이용안함(가정보육)

☐ ⑤ 기타

II. 영유아 자녀 돌봄

1. 귀하는 실제 영유아 자녀 양육과 가사를 배우자와 어떻게 역할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 아버지 2, 어머니 5 : 아버지 5, 어머니 2 :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2. 자녀 양육 중 다음의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분	번호
1)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2)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3)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4)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5)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3. 현재 귀하는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 ① 조부모/친인척 ☐ ②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가사도우미
☐ ③ 공공 아이돌보미 ☐ ④ 이웃, 친구 등 지인
☐ ⑤ 자녀가 다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부탁
☐ ⑥ 시간제 보육 신청하여 활용 ☐ ⑦ 기타 ☐ ⑧ 없음

Ⅲ. 아동수당

1. 귀하는 2018년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셨습니까?

- ☐ ① 네 (☞ 1-1) ☐ ② 아니요(☞ 2)

1-1. 귀하가 아동수당 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 ☐ ① 뉴스 등 보도를 통해 ☐ ② 주변 엄마들이 알려줘서
☐ ③ 주민센터 등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 ④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알려줘서
☐ ⑤ 맘카페(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 ⑥ 기타()

2.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 ① 대상자가 안될 것 같아서 ☐ ②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③ 신청 절차가 어렵고 번거로워서 ☐ ④ 아동수당이 필요 없어서
☐ ⑤ 기타()

3.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주로 어디에 사용할 생각입니까?

- ☐ ① 분유, 기저귀 등 자녀의 생필품 구입 ☐ ② 자녀의 보육, 교육비로 사용
☐ ③ 자녀의 완구 및 도서 등 구매 ☐ ④ 가족 여행 등 문화 여가비로 사용
☐ ⑤ 자녀의 의료비로 사용 ☐ ⑥ 자녀를 위한 적금 혹은 보험료로 사용
☐ ⑦ 가구 생활비로 보태서 활용 ☐ ⑧ 기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음)

4.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음 ☐ ② 별로 도움되지 않음
☐ ③ 약간 도움이 됨 ☐ ④ 매우 도움이 됨

5. 아동수당의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①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 ☐ ② 소득수준 하위 90%(현행) 유지
☐ ③ 소득수준 하위 80% 또는 그 이하로 축소 ☐ ④ 다자녀 가구 할증
☐ ⑤ 저소득층 가구 할증 ☐ ⑥ 기타()

IV. 자녀와의 놀이

1.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대리양육자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주중/주말)은 평균 얼마입니까?

- | | | |
|-------------------------|---|---|
| 1) 어머니 | ☐ ① 주중(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 ② 주말(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 2) 아버지 | ☐ ① 주중(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 ② 주말(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 3)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 ① 주중(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 ② 주말(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2. 귀하의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 없으면 0시간 0분으로 표기)

- ☐ ① 주중(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② 주말(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3. 귀하의 자녀가 현재 충분히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3-1. (①, ②에 응답한 경우)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놀이시간 부족(학원 이용 등으로) ☐ ② 놀이공간 부족
☐ ③ 놀이대상(친구, 부모 등) 부재 ☐ ④ 놀이방법(놀이감 등) 부족
☐ ⑤ 기타()

4. 귀하는 놀이(특히 영유아기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의 놀이는 _____다.

V.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1. 귀하는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1-1. (①, ②에 응답한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 ☐ ① 등하원 버스사고 ☐ ② 아동학대
☐ ③ 급식·위생 ☐ ④ 주변 유해시설
☐ ⑤ 노후된 시설설비(실외놀이 시설 등) ☐ ⑥ 기타()

2. 귀하는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네 (☞ 2-1) ☐ ② 아니오(☞ 3)

2-1. 자녀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녀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 ② 자녀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 ③ 다른 부모님들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 ④ 다른 선생님들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 ⑤ 신체학대의 흔적(예: 상처 등) 때문에 ☐ ⑥ 자녀의 행동(예: 놀람, 틱 증상 등) 때문에
☐ ⑦ 기타()

3. 귀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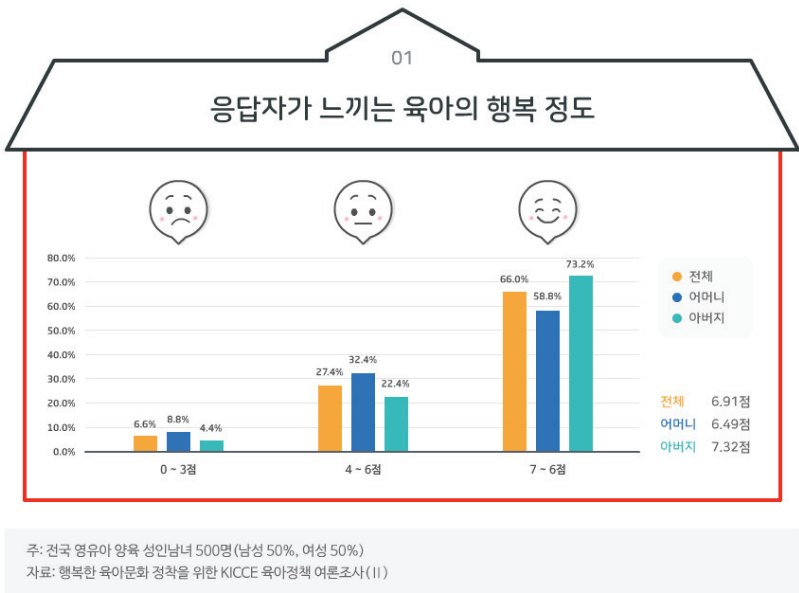
- ☐ ① 네 (☞ 3-1) ☐ ② 아니오 (☞ 3-2)

3-1. 훈육의 방식으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체벌 형태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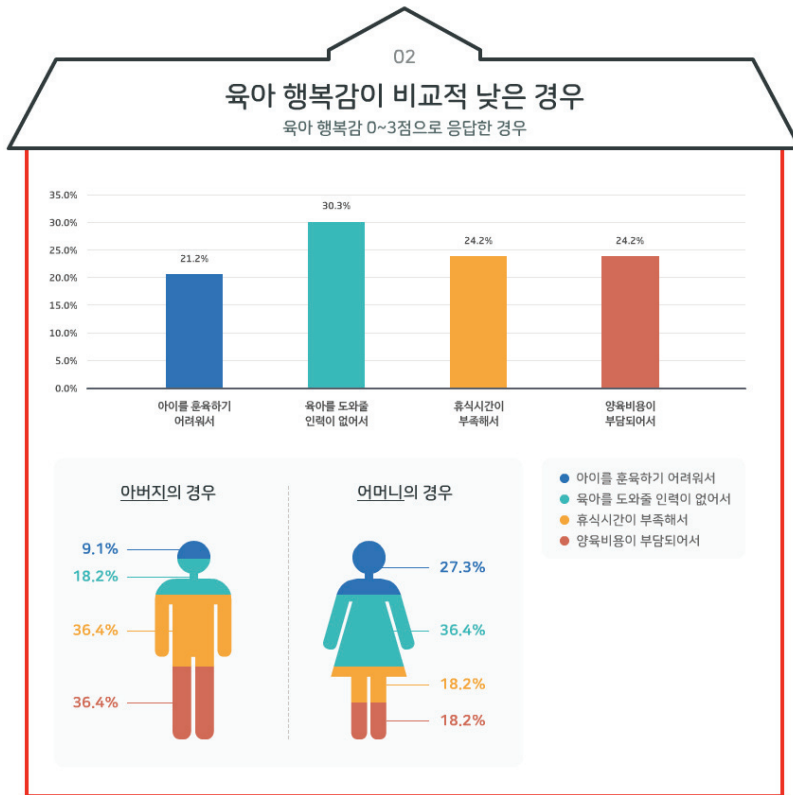
3-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대신,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4. 1차 수시조사 결과(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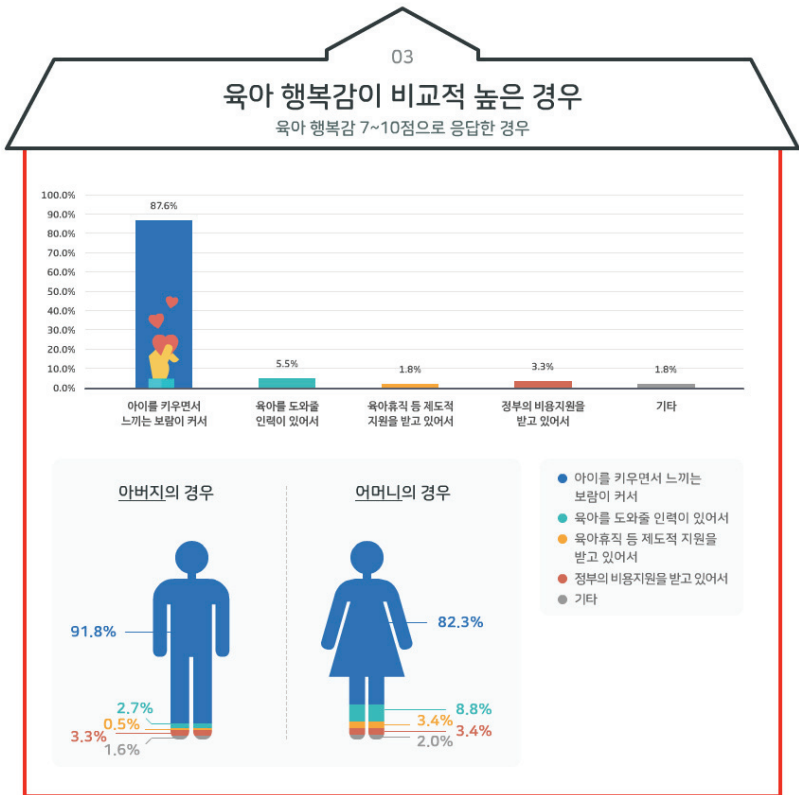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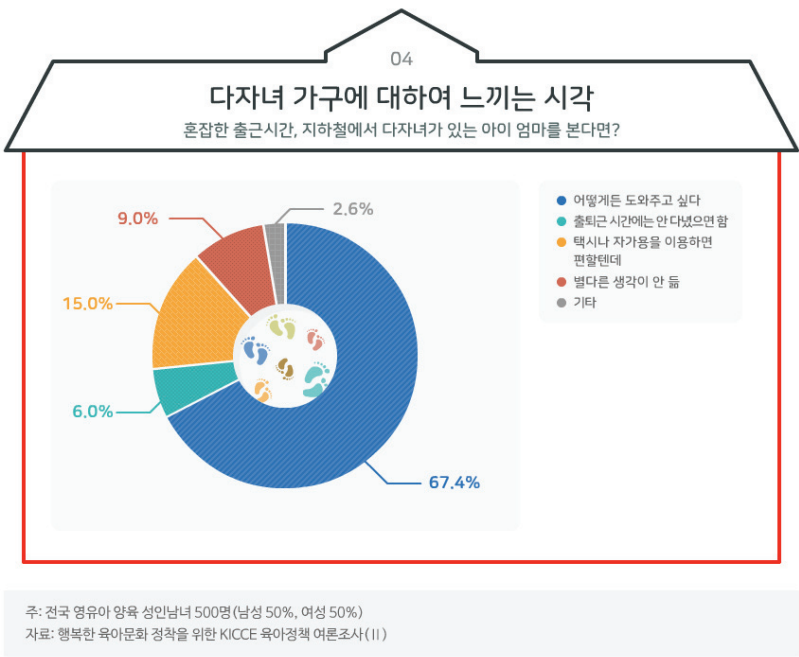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 (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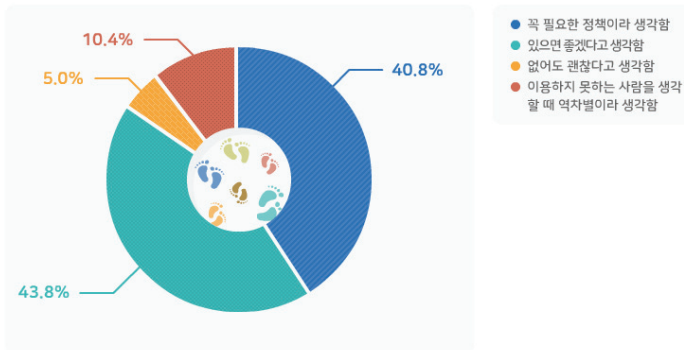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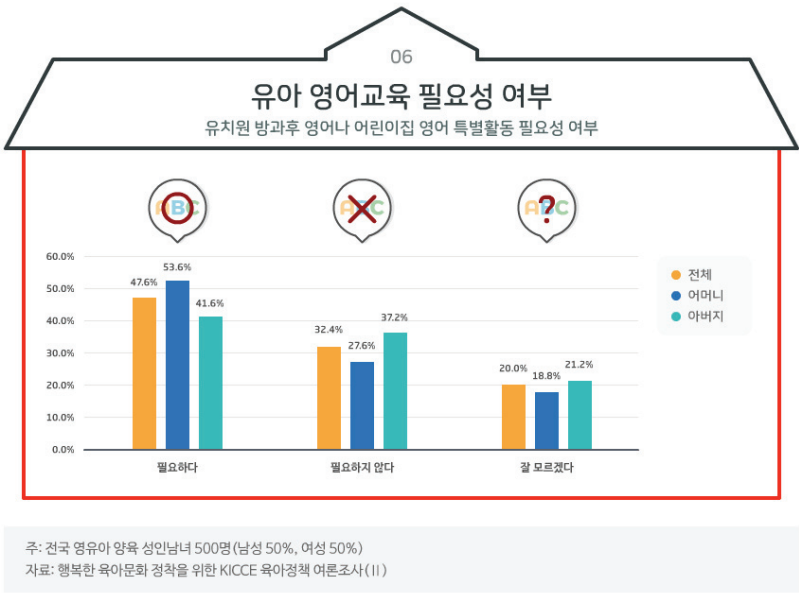
05

다자녀 가구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생각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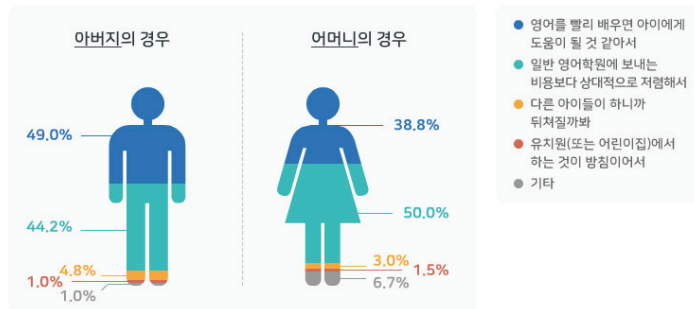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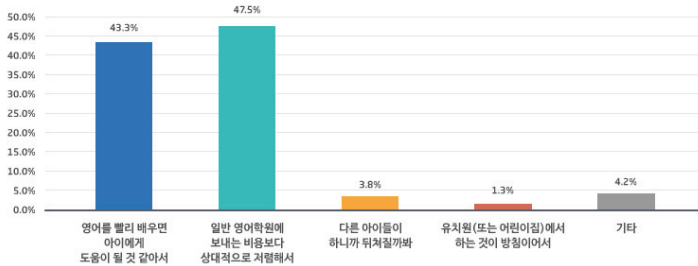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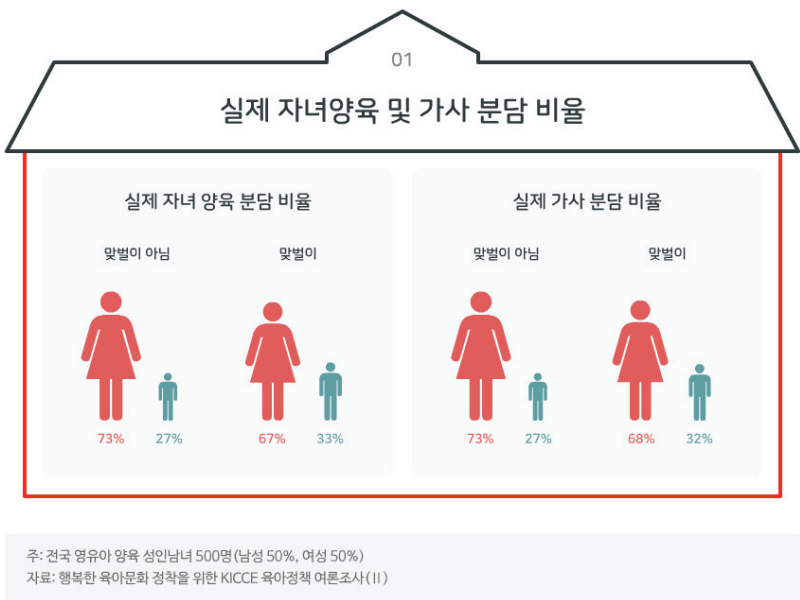
07

방과후 영어/영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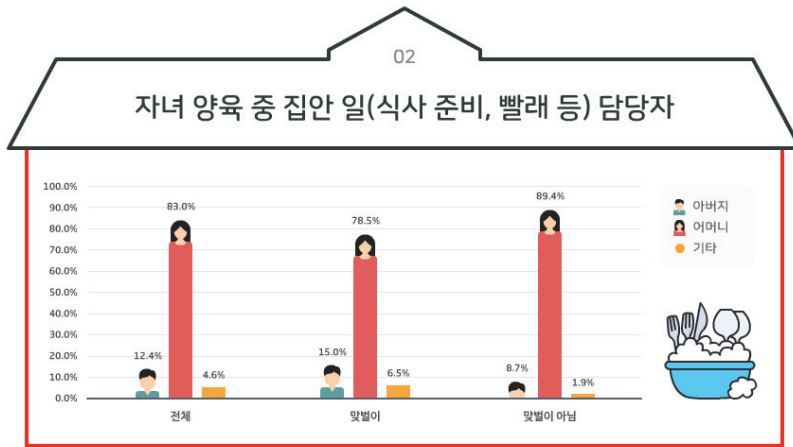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부록 5. 2차 수시조사 결과(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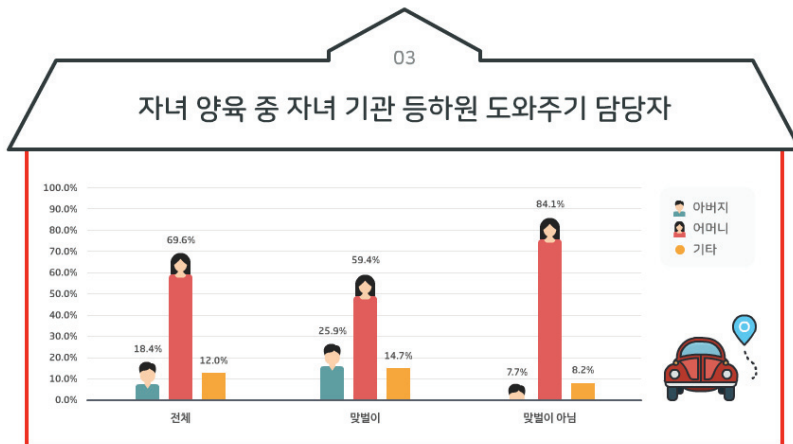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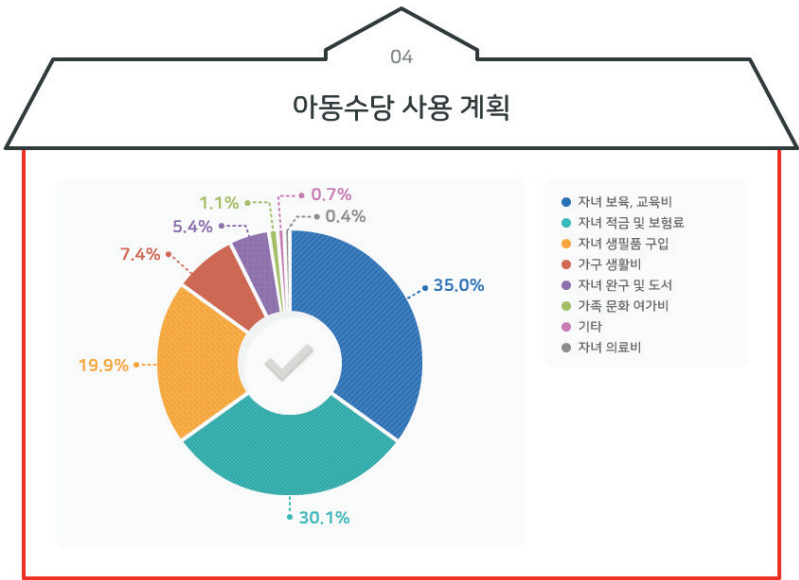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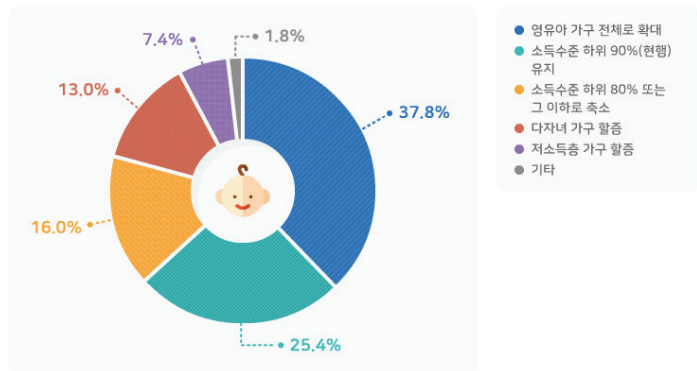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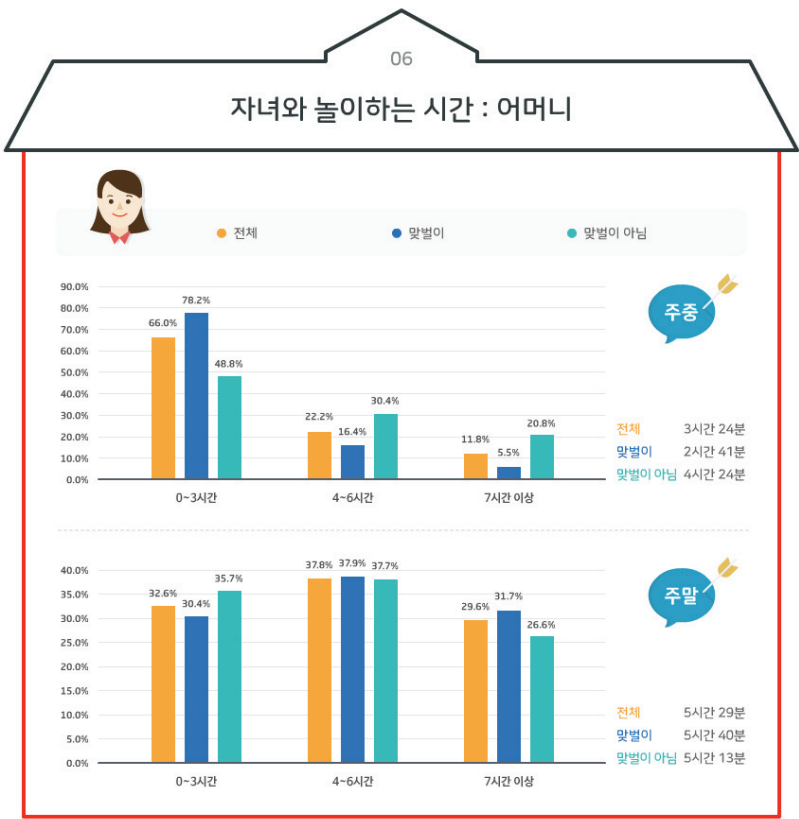
05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한 의견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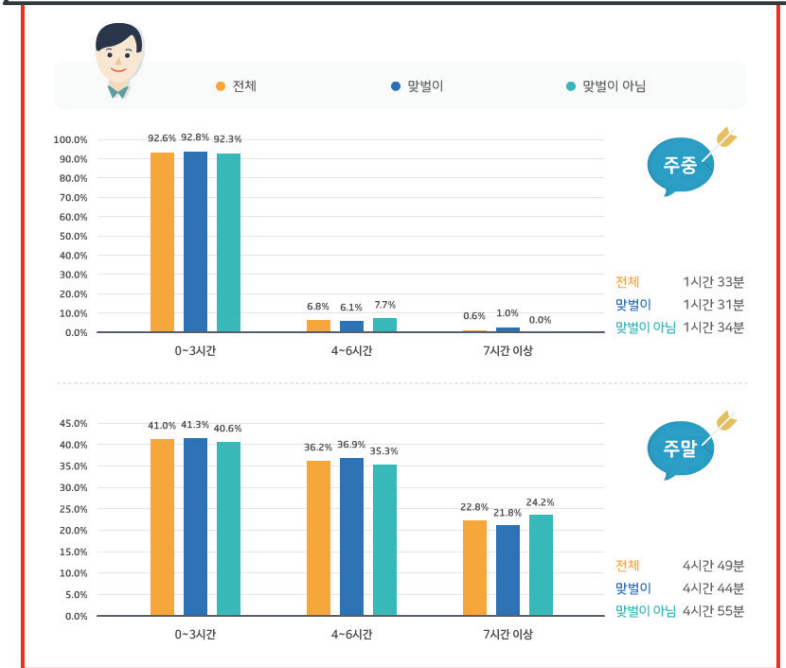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07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 :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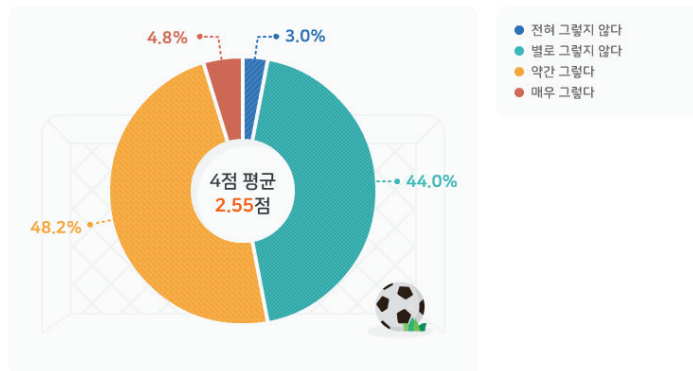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08

현재 자녀가 충분히 놀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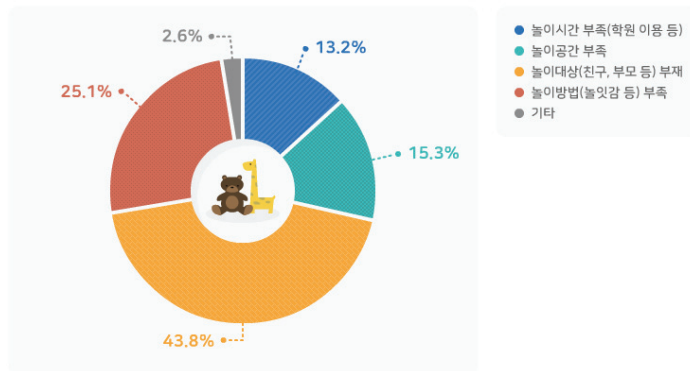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09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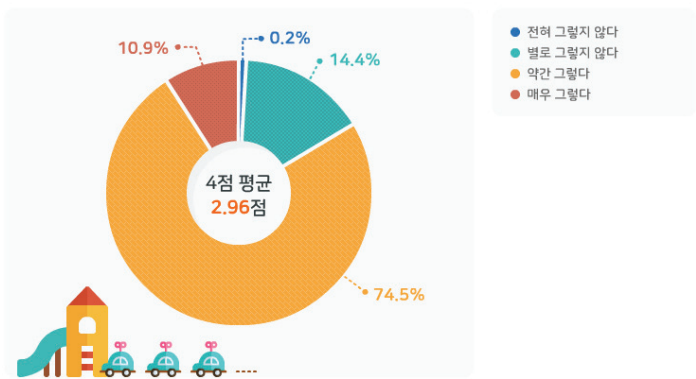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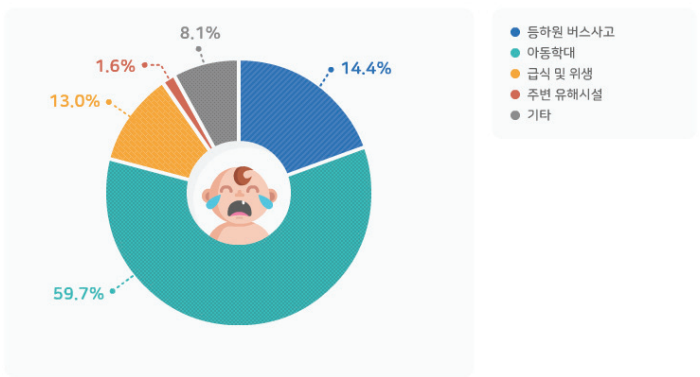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안전 인식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 (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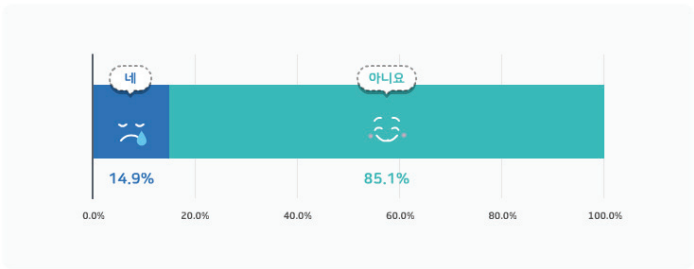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 (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12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의 자녀 아동학대 의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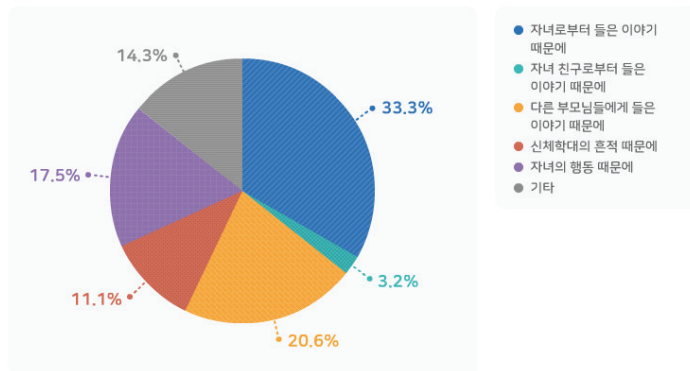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423명 (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13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의 자녀 학대 의심에 대한 이유



주: 전국 영유아 양육 성인남녀 500명 (남성 50%, 여성 50%)

자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by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